

# 제자 삼는 전도

## 48강 훈련 코스



앤드류 워맥, 던 크로우 지음

Copyright © 2018, Andrew Wommack  
본 내용은 제자훈련을 목적으로 복사하여 무료로 배포할 수 있으나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Andrew Wommack Ministries  
P. O. Box 3333  
Colorado Springs, CO 80934-3333  
[www.awmi.net](http://www.awmi.net)



특별히 성경 번역본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역개정을 사용하였습니다.

---

The Complete Discipleship Evangelism 48-Lesson Course

© 2018

Andrew Wommack Ministries - Europe  
PO Box 4392, Walsall, WS1 9AR, England  
[www.awme.net](http://www.awme.net)

---

ISBN 978-1-912351-19-0

Item Code: ko417

# 제자 삼는 전도 - 48강 훈련 코스 목차

## 레벨 1

제 1강	영생	1-1
제 2강	은혜로 받는 구원	1-5
제 3강	은혜로 받는 의	1-10
제 4강	하나님과과의 관계	1-14
제 5강	하나님의 참 본성	1-19
제 6강	회개	1-24
제 7강	헌신의 결단(commitment)	1-30
제 8강	물세례	1-34
제 9강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 1	1-38
제 10강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 2	1-43
제 11강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1-47
제 12강	하나님 말씀의 신실함(integrity)	1-51
제 13강	하나님은 무죄	1-55
제 14강	성령세례의 능력	1-60
제 15강	성령세례를 받는 방법	1-65
제 16강	방언의 유익	1-70

## 레벨 2

제 1강	모든 괴로움의 근원: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2-1
제 2강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	2-5
제 3강	생각을 새롭게 하기	2-8
제 4강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중요성	2-12
제 5강	축사	2-18
제 6강	민는 자의 권세	2-23
제 7강	구원 안에 속해 있는 치유	2-29
제 8강	치유의 장애물	2-34
제 9강	용서	2-40
제 10강	결혼생활 1	2-46
제 11강	결혼생활 2	2-51
제 12강	하나님적인 사랑 1	2-58
제 13강	하나님적인 사랑 2	2-64
제 14강	재정 1	2-70
제 15강	재정 2	2-75
제 16강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2-79

## 레벨 3

제 1강	나를 통해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랑	3-1
제 2강	사역을 위한 은사의 사용	3-6
제 3강	기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3-15
제 4강	하나님적인 인간관계의 능력	3-21
제 5강	박해	3-24
제 6강	왕과 그분의 왕국(Kingdom)	3-29
제 7강	구원하는 믿음의 목적	3-37
제 8강	율법의 올바른 사용	3-41
제 9강	율법 아래가 아닌 은혜 아래	3-47
제 10강	죄에 대한 의식은 이제 그만	3-52
제 11강	나는 사랑받는 자이며, 나는 아름답습니다	3-59
제 12강	구원의 열매 1	3-64
제 13강	구원의 열매 2	3-70
제 14강	제자로의 부르심	3-75
제 15강	자기 간증 사용법	3-81
제 16강	각 사람의 은사를 사용하여 제자삼기	3-88



# 제자 삼는 전도



레벨 1

레벨 1  
16강 훈련 코스

목차

제 1강	영생.....	1-1
제 2강	은혜로 받는 구원.....	1-5
제 3강	은혜로 받는 의.....	1-10
제 4강	하나님과 의 관계.....	1-14
제 5강	하나님의 참 본성.....	1-19
제 6강	회개.....	1-24
제 7강	헌신의 결단(commitment).....	1-30
제 8강	물세례.....	1-34
제 9강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 1.....	1-38
제 10강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 2.....	1-43
제 11강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1-47
제 12강	하나님 말씀의 신실함(integrity).....	1-51
제 13강	하나님은 무죄.....	1-55
제 14강	성령세례의 능력.....	1-60
제 15강	성령세례를 받는 방법.....	1-65
제 16강	방언의 유익.....	1-70

## 레벨 1

### 제 1강

# 영생

앤드류 워맥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성경구절은 아마도 요한복음 3:16일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알았던 구절인 것 같지만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구절이요, 적용 또한 잘못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16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통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가르쳐왔습니다. 그 말도 사실이긴 하지만 이 구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진짜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가 이 영생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도 사실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지만 복음에는 그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복음이 진짜 전달하려는 바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 17:3)

이 구절은 ‘영생이란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글쎄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삽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영과 혼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이지요. 무덤에서 썩는 것은 몸입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상태로 계속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인 진리입니다. 누구나 영원히 사니까요. 이 구절은 하나님과의 영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이란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7:3에서 예수님이 정의하신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것 이상입니다. 여기에 “안다”라는 말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친밀하고 가장 직접적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성경 전반에 걸쳐 사용된 단어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굉장히 멋진 일이 맞습니다만 그것이 구원의 진짜 목적은 아닙니다. 구원의 진짜 목적은 주 하나님과 친밀하고도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을 목적으로 삼진 않습니다.

이렇듯 구원의 진짜 목적을 설명하지 않음으로 인해 복음의 참 모습이 가려져 왔습니다.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구원을 소개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삶이 지옥과 같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면서 다름, 거절, 상처, 부부관계의 문제 때문에 낙심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간신히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관한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삶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멸망과 저주 대신 축복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운명을 바꿔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 아닙니다.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려는 목적도 있습니다(갈 1:4). 예수님은 바로 지금,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고도 직접적인 관계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가까운 관계, 직접적인 관계로 회복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일대일로 알아가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얻고자 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양질의 삶을 주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요한복음 10:10에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도둑[사탄/저자 주]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당신에게 영생을 주기 원하십니다. 풍성한 삶을 주기 원하십니다. 당신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 풍성한 삶이며 당신이 원하는 것도 바로 그 풍성한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그분에게 가까이 이끌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만약 주님을 모른다면 이제 그 목적을 위해 주님을 알기 바랍니다. 거듭난 분이려면 죄 사함을 넘어 아버지와의 영생의 단계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 영생에 관한 진리들

- A. 복음의 목적은 영생이다(요 3:16).
- B.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요 17:3).
- C.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다(고전 6:16-17).
- D. 영생은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다(요일 5:12).
- E. 하나님은 당신과 일대일의 관계를 원하신다(계 3:20).



## 제자되기 연습문제

1. 요한복음 3:16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2. “안다”라는 단어의 성경적 의미는 친밀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뜻입니다(창 4:1). 요한복음 17:3을 읽어보세요. 이 구절에 따르면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3. 요한일서 5:11-12을 읽어보세요. 영생은 언제 시작됩니까?
4. 요한복음 10:10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주러 오셨습니까?
5. 풍성한 삶의 뜻을 자신의 말로 설명해 보세요.
6.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어 세상 죄를 위해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7. 영생이란 삶의 길이, 즉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 즉 풍성한 삶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이해되십니까?

## 인용구절

-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 (창 4:1)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영어성경에는 ‘안다’로 번역됨)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 (요 17: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 (요일 5:11-12)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 (요 10:10)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 정답

1. 요한복음 3:16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죄를 사해 주고 영생을 주시려고
2. “안다”라는 단어의 성경적 의미는 친밀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뜻입니다(창 4:1). 요한복음 17:3을 읽어보세요. 이 구절에 따르면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아는 것
3. 요한일서 5:11-12을 읽어보세요. 영생은 언제 시작됩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영접한 날
4. 요한복음 10:10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주러 오셨습니까?  
풍성한 삶!
5. 풍성한 삶의 뜻을 자신의 말로 설명해 보세요.  
도둑이 오는 이유의 반대
6.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어 세상 죄를 위해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7. 영생이란 삶의 길이, 즉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 즉 풍성한 삶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이해 되십니까?  
네

## 레벨 1

### 제 2강

# 은혜로 받는 구원

던 크로우

예수님은 비유를 여러 번 사용하셨습니다. 비유란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를 뜻합니다. 누가복음 18:9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은 구체적입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깔보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공로를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을 ‘자기 의’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깔보면서 “나는 너보다 나아”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요즘 말로 하자면 기도하러 교회에 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 한명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란 말 자체는 “구별된 자”라는 뜻이지만 그들은 너무나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한테 너무 가까이 오지 마. 내가 더러워진단 말이야! 나는 너희들과는 달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예수님이 언급하신 또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는 자들로서 사람들을 속여 이익을 취하는 악한 사람들이었고 타락하고 죄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부당하게 세금을 거두어 자기가 먼저 떼어 먹고 남은 것을 로마 정부에 바쳤던 사람들이니 다른 사람들이 좋게 봤을 리가 없었겠지요.

계속해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사람이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이어”라고 했지만 사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니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종교적인 바리새인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며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부정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간음을 행하지도 않았습디다. 나는 이 세리와는 다릅니다.” 여기 이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 보다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깔본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말하자면 “내 공로가 보이시죠?”라는 말입니다.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는

또 교회에 헌금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나는 나름대로 선하게 살고 있습니다! 좋은 일도 하고 교회에 헌금도 한다고요!”

이제 13절에 나오는 세리의 말을 들어 봅시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어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는 멀리 서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삶과 자신이 행한 일들이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가슴만 칩니다. 구약에서 가슴을 친다고 했을 때는 옷도 함께 찢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 깨어진 마음의 표현이며 하나님은 그것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이 죄 많은 세리는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14절을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세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 하나님께 용서 받았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어떻게 용서를 받았을까요? 세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집으로 돌아갔는데 왜 종교적인 바리새인은 그렇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이 자기를 높이며 “나는 다른 사람들 보다 나아!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라고 한 반면, 세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고 우리 모두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세리는 자신을 낮추었기에 용서와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로 받는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놀라운 말이며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을 기록한 헬라어로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널리 받아들여진 은혜의 정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 값없이, 공로 없이 받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세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자기를 겸손하게 낮췄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헬라어에 ‘카리스마’라는 말도 있습니다. ‘카리스’에 ‘마’를 붙인 단어입니다. ‘카리스마’란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을 뜻하며 이 세리에게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즉 ‘의’였고 그것은 선물이었습니다.

로마서 5:17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나님은 그분 앞에서의 바른 자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선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의의 선물을 그 세리가 발견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7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는 오직 한 종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음을 알아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 제자되기 연습문제

1. 누가복음 18:9을 읽어보세요. 비유란 무엇입니까?
2. 누가복음 18:9을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서는 누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3. 누가복음 18:9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세요. 자기 의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 항상 어떤 자세를 드러냅니까?
4. 누가복음 18:10을 읽어보세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왔습니다. 지금이라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간 것입니까?
5. 누가복음 18:10을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6. 누가복음 18:11을 읽어보세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7. 누가복음 18:12을 읽어보세요. 금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8. 누가복음 18:12을 읽어보세요. 십일조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9. 누가복음 18:13을 읽어보세요. 세리는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10. 누가복음 18:13을 읽어보세요. 세리는 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습니까?
11. 누가복음 18:13을 읽어보세요. 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12. 누가복음 18:14을 읽어보세요.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말을 듣고 돌아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13. 누가복음 18:14을 읽어보세요. 왜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가 의롭다는 말을 듣게 되었을까요?
14. 누가복음 18:14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이 세리를 용서하셨습니까?
15. 로마서 10:13을 읽어보세요. 당신이 만약 지금 무릎을 꿇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세리를 용서하셨듯이 당신도 용서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요일 1:8-9 참고)

## 인용구절

(눅 18:9-12)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10)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11)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눅 18:13-14)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롬 10:13)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일 1:8-9)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 정답

1. 누가복음 18:9을 읽어보세요. 비유란 무엇입니까?  
영적인 진리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
2. 누가복음 18:9을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서는 누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의롭게 여겨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 즉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들
3. 누가복음 18:9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세요. 자기 의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 항상 어떤 자세를 드러냅니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세
4. 누가복음 18:10을 읽어보세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왔습니다. 지금이라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간 것입니까?  
교회
5. 누가복음 18:10을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과 세리

6. 누가복음 18:11을 읽어보세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7. 누가복음 18:12을 읽어보세요. 금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음식을 먹지 않는 것
8. 누가복음 18:12을 읽어보세요. 십일조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수입의 10분의 1을 헌납하는 것
9. 누가복음 18:13을 읽어보세요. 세리는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멀리. 너무 중한 죄인이라 부끄러워서 성전(교회)에 들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10. 누가복음 18:13을 읽어보세요. 세리는 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습니까?  
자신의 죄가 부끄러워서
11. 누가복음 18:13을 읽어보세요. 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12. 누가복음 18:14을 읽어보세요.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말을 듣고 돌아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리
13. 누가복음 18:14을 읽어보세요. 왜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가 의롭다는 말을 듣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교만으로 가득차서 구원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14. 누가복음 18:14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이 세리를 용서하셨습니까?  
네
15. 로마서 10:13을 읽어보세요. 당신이 만약 지금 무릎을 꿇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세리를 용서하셨듯이 당신도 용서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요일 1:8-9 참고)  
네. 하나님은 저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저를 깨끗케 하실 것입니다.



레벨 1

제 3강

# 은혜로 받는 의

던 크로우

오늘은 은혜로 받는 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21-23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구별/저자 주]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보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라고 합니다. 제가 전에 어떤 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 아내에게 정절을 지키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등등 여러 가지를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까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의’와 동일한 ‘의’를 가져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와 동일한 의를 가진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 한 분만 그런 의를 가지셨으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면 그분의 의와 동일한 의를 가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3:21-22이 뜻하는 바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과 내게 주시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시는 의이며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람의 의란 그 사람의 최선의 행위 또는 그가 하는 선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당신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하지는 못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 의와 동일한 의가 필요하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의입니다.

율법에 따른 의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 행위로 얻어내는 의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의를 얻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좋은 소식”이란 뜻이며 복음의 좋은 소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즉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과 그로 인해 율법 앞에서 담당할 수 있는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의를 주시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며 율법과 상관없이, 우리의 행위나 업적, 성취와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의 의를 제공하실까요? “**거기에는 차별[구별/저자 주]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당신도 죄를 지었고 저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용납 하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상태가 상실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당신의 행위, 노력, 공로를 통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오며 믿음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의가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해진 것은 그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21-22을 읽어보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의롭게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5:17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의의 선물, 즉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자격을 선물로 건네고 계십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은 대가를 치르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값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선물을 주면서 값을 내라고 한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물을 사기 위해 당신이 값을 치른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저에게 의를 선물로 제공해 주셨고 이 의의 선물, 죄 사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자되기 연습문제

1. 디도서 3:5을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의는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습니까?
2. 고린도후서 5:21을 읽어보세요. 우리에게는 어떤 의가 필요합니까?
3. 로마서 3:22을 읽어보세요. 이 의는 어떻게 받습니까?

4. 빌립보서 3:9을 읽어보세요. 율법의 의란 무엇입니까?
5. 라디아서 2:21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게 됩니까?
6. 로마서 5:17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 인용구절

(딤후 3:5/킹제임스 흠정역)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고후 5: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롬 3:22)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빌 3:9)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갈 2:21)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롬 5:17)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 정답

1. 디도서 3:5을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의는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2. 고린도후서 5:21을 읽어보세요. 우리에게는 어떤 의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하나님의 의
3. 로마서 3:22을 읽어보세요. 이 의는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4. 빌립보서 3:9을 읽어보세요. 율법의 의란 무엇입니까?

내 행위로 내가 이루어 낸 의

5. 갈라디아서 2:21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게 됩니까?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을 신뢰하지 않고 나 자신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할 때

6. 로마서 5:17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선물

## 레벨 1

### 제 4강

# 하나님과 관계

앤드류 워맥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가지려면 그분의 기본적인 본성과 성품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분의 성품과 본성을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긍정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와 동일한 일이 에덴 동산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시험(tempt,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시험에 넘어갔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으며 인류 전체를 죄에 빠뜨렸습니다. 이 시험이 온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본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창 3:1-5)

사탄의 말에는 다음과 같은 교묘한 속임수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니다. 좋은 것을 감춰두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지 않으려고 한다.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잠재력을 모두 다 발휘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기를 원치 않는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도 그들이 좋은 것을 갖지 못하도록 막고 해하려는 의도다.’ 즉 결론적으로 사탄의 말은 ‘하나님은 너희에게 최선을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말로 하나님을 비난하여 그분의 가장 중요한 본성과 성품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따르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들을 멀리한다면 너에게 진짜 행복은 없을 거야. 인생은 아주 따분할거고.” 하지만 슬픈 사실은 마약, 술, 섹스, 반항, 방종, 성공, 등등 전부 다 시도해 봐도 결국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땐 이미 그들의 인생, 가족, 건강이 산산조각 난 이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며 그분은 우리에게 오직 좋은 뜻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용했던 시험(temptation, 유혹)과 동일한 시험을 우리에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리 좋은 분이 아니라는 미혹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을 경우, 하나님에 대해 그런 인상을 갖기 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말씀 속에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엄격하고 가혹하게 다루신 사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민수기 15:32-36에는 한 남자가 안식일에 땀감을 모았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처벌이 매우 엄격하게 들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배경에는 성경을 대강 읽어서는 알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7:13에서 바울이 설명한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약의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우리가 범하는 죄를 더욱 죄 되게 하는데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하는지를 깨닫게 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법과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이만하면 괜찮다고 평가하는 실수를 범했기 때문에,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율법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누군가 죄를 지어도 그 즉시 바로 죽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가 그다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 결과 자신들의 기준을 낮췄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관한 참된 관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른 삶이 무엇인지 인류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적절한 기준의 잣대를 대야만 하였고 사람들이 그 잣대를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거절하고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율법을 집행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명령들을 주신 이유는 “이것을 전부 다 지키지 않으면 너희를 용납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참 본성과 성품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통해 우리가 옳고 그름을 더 정확하게 깨닫고 또 우리는 구세주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율법을 다 지켜서 완벽해져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 문제이며 이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 결정된다는 오해를 낳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면 하나님께 용납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 것인데 그것은 성경이 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인류를 심판하시려는 것도 아니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담당시키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인류를 다시 그분께로 이끌어 화해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향한 그리고 오늘날 당신을 향한,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심정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요일 4:8) 그분은 당신의 죄를 제거하기 원하시며 당신을 그분에게서 분리시키는 모든 것을 제거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당신의 행위에 근거한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지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여서 갖게 되는 관계입니다. 당신의 과거가 어떻든지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 제자되기 연습문제

1. 창세기 3:1을 읽어보세요. 사탄은 하와에게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2. 창세기 2:17과 3:3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 외에 하와는 어떤 말을 더했습니까?
3. 창세기 3:6을 읽어보세요. 사탄이 하와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넣을 수 있게 되자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4. 창세기 3:9-10을 읽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대화하시며 그들과 교제하려고 하십니까?
5. 창세기 3:22-24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를 에덴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까?
6.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이 아닌 긍휼임을 알 수 있습니까?
7. 로마서 5:17을 읽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어떻게 받습니까?
  - A. 값을 치러서
  - B. 일을 해서
  - C. 선물로 거저
8. 로마서 6:23을 읽어보세요.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9.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에 은혜로 무엇을 주십니까?
10. 로마서 10:3을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11. 로마서 4:3, 요한일서 1:9 그리고 히브리서 10:17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12.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 인용구절

(창 3:1)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 2: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 3:3)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창 3: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 3:9-10)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10)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 3:22-24)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 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3)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24)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롬 5:17)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롬 6:23)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롬 10:3)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롬 4:3)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요일 1: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히 10:17)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 정답

1. 창세기 3:1을 읽어보세요. 사탄은 하와에게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2. 창세기 2:17과 3:3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 외에 하와는 어떤 말을 더했습니까? 선악과를 만지면 안 된다.

3. 창세기 3:6을 읽어보세요. 사탄이 하와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넣을 수 있게 되자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 먹었다.
4. 창세기 3:9-10을 읽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대화하시며 그들과 교제하려고 하십니까?  
네
5. 창세기 3:22-24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를 에덴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서 죄가 있는 상태로 영원히 살지 않게 하시려고
6.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이 아닌 긍휼임을 알 수 있습니까?  
네
7. 로마서 5:17을 읽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의의 선물을 어떻게 받습니까?  
C. 선물로 거저
8. 로마서 6:23을 읽어보세요.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사망
9.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에 은혜로 무엇을 주십니까?  
예수 안에 있는 영생
10. 로마서 10:3을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의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
11. 로마서 4:3, 요한일서 1:9 그리고 히브리서 10:17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며 기억하지 않으신다.
12.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분은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다.



레벨 1

제 5강

# 하나님의 참 본성

앤드류 워맥

주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그분의 본성과 참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 때문에 화가나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분의 생명과 축복을 주시려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까?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다른 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변하셨거나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담당시켰던” 시기가 있었을 뿐입니다.

이것을 자녀양육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녀들이 너무 어릴 때는 모든 것을 다 설명하면서 설득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왜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하는지, 장난감을 빼앗는 이기적인 행동은 왜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로 설명한다고 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대신 규칙을 알려주고 규칙을 어기면 야단맞는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과 마귀에 대해 모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마귀에게 문을 열어준다는 것을 몰라도 규칙은 적용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그 논리를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계속 그렇게 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은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구약의 이치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새 언약 아래 우리에게 허락된 영적인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멀리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시고 집행하셨습니다. 율법에는 그에 따른 징벌도 있었으며 최악의 경우는 사망이었습니다. 사탄이 죄를 통해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했고 그 규제는 집행되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으신다.’는 오해를 낳았지만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로마서 5:13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도”란 말은 모세가 있기 전, 즉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그 외에 제사에 관련된 법을 유대인들에게 주시기 전을 뜻합니다. 그 전에도 죄가 세상에 존재했지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여기다”로 번역된 단어 “impute(임퓨트)”는 회계용어입니다. 무언가를 구입할 때 “카드로 계산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구입한 내용은 그 카드 이용내역에 기록되며 차후에 청구됩니다. 만일 그 카드회사에서 카드 값을 인식하는데(값으로 여기는데) 실패한다면 카드 이용내역은 기록되지 않으며 카드 값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즉 이 구절이 하고자 하는 말은 십계명이 오기 전까지는 죄의 값이 사람들에게 청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창세기 3장과 4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에 빠졌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인류와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으셨다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못한 인간들과 교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동산에서 쫓아내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가 올바른 행위를 통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와는 정 반대입니다. 로마서 5:8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사랑을 확증하셨으며 당신이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고 합니다. 즉 신약이 가르치는 바는 당신이 행동을 바로 했을 때가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당신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바꿔 놓을 위대한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단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지금 그 모습에 머물고 싶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결과로 변화됩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대화하시면서 교제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과도 대화를 하셨고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도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반응으로 볼 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겁먹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이 땅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하나님의 이 질문에 거짓말로 답했고 양심의 가책은 없어 보였습니다. 이로써 가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매우 익숙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으며 두려움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바와는 달리 하나님은 인류와의 관계를 깨지 않으셨고 여전히 그들과 교제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그들에게 담당시키지(청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무마하셨거나 그들에게 잘못이 없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바른 기준으로 돌리기 위해 율법을 주셔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며 인간은 자기를 겸손히 낮추어 용서를 선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셔야만 했습니다. 슬프게도 종교는 이것을 조종하고 악용하여 ‘율법을 지키므로 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을 얻어내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고 가르쳐왔습니다. 아닙니다! 구약에 나온 율법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강조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절망 가운데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당신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이라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주된 본성은 언제나 사랑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 제자되기 연습문제

1. 로마서 5:13을 읽어보세요. “여기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2. 로마서 7:7을 읽어보세요.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3. 갈라디아서 3:24을 읽어보세요. 이 구절에 따르면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4. 요한복음 8:1-11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5. 요한복음 3:34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하나님의 참 본성을 보여주셨습니까?
6. 요한일서 4:8을 읽어보세요. 이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참 본성은 무엇입니까?
7. 로마서 5:6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8. 로마서 5:8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9. 로마서 5:10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10.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당신의 구세주가 되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참 본성인 은혜와 긍휼을 당신에게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인용구절

(롬 5:13)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롬 7:7)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갈 3:24)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 8:1-11) 예수는 감람 산으로 가시니라 (2)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 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3)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4)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6)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7)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8)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9)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10)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요 3:34)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요일 4:8)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롬 5:6)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롬 5: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롬 5:10)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 정답

1. 로마서 5:13을 읽어보세요. “여기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값을 청구하다

2. 로마서 7:7을 읽어보세요.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를 죄로 알게 하는 것

3. 갈라디아서 3:24을 읽어보세요. 이 구절에 따르면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류에게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4. 요한복음 8:1-11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공홀과 은혜로

5. 요한복음 3:34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하나님의 참 본성을 보여주었습니까?

네

6. 요한일서 4:8을 읽어보세요. 이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참 본성은 무엇입니까?

사랑

7. 로마서 5:6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연약하고(소망이 없고), 경건하지 않은 상태

8. 로마서 5:8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죄인

9. 로마서 5:10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원수

10.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당신의 구세주가 되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참 본성인 은혜와 공홀을 당신에게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 레벨 1

### 제 6강

# 회개

## 던 크로우

회개의 뜻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는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에 대한 예화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한 사람이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 예화를 통해 완벽한 예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11-12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요구한 것은 당시에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아버지는 그 요구를 받아들여 두 아들에게 각각 유산을 나눠줬습니다. 13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둘째 아들은 받은 재산, 즉 자기 몫의 유산을 전부 가지고 먼 나라로 갔고 거기에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한 번역본에 보면 “창녀들과 노는데 돈을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14-15절입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땅은 황폐해지고 사람들은 굶주리게 되었다/ 저자 주]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는 그 나라 사람에게 고용되어 돼지에게 먹이 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16절을 봅시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굶어 죽을 듯이 배가 고파진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돼지 먹이라도 좀 주세요!”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재산은 이미 탕진한 상태였습니다. 17절에 계속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어떤 번역본에는 “스스로 돌이켜” 대신 “제 정신이 들어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종들에게는 먹을 것이 충분했는데 막상 아들인 자신은 배가 고파서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즉 회개를 합니다. 회개는 생각(mind)을 바꾸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돌이키게 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마음(heart)의 변화입니다. 18-19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즉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 저를 종으로 삼아 주세요. 저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저를 그냥 종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회개는 이렇듯 태도, 생각, 마음

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돌이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자기가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우리의 본향, 천국으로부터 멀어졌었습니다. 이사야 53:6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긍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넘겨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어느 날 저는 한 번도 이 예화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탕자의 아버지가 뭐라고 할지 뻔하다고 했습니다. “네가 한 짓을 보라. 평생 모아온 내 재산을 다 탕진했구나. 이제 너도 내 종들처럼 일이나 해라.” 이 땅의 아버지들은 대부분 매우 화를 내며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20-24절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자기 아들을 향한 사랑이 그의 마음에서 흘러나와/저자 주]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 아버지는 파티를 열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또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었더니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아버지, 저는 당신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요.’하면서 하늘 아버지에게 그분의 긍휼을 구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저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당신을 종으로 삼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회복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셨습니까? 지금 당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돌이켜서 당신의 본향, 천국을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 제자되기 연습문제

1. ‘회개’를 정의해 보세요.
2. 누가복음 13:1-5을 읽어보세요. 멸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3. 베드로후서 3:9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길 원하십니까?
4. 누가복음 16:19-31을 읽어보세요. 28절에서 부자는 왜 누군가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얘기 해 줄 것을 원했습니까?



5. 누가복음 16:30을 읽어보세요. 그 형제들이 고통 받는 곳(지옥)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6. 사도행전 26:18을 읽어보세요.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이 구절은 회개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 사도행전 26:20을 읽어보세요. 이방인이 해야 할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8. 마태복음 7:21-23을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대신 무엇을 했다고 하십니까?
9.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진정한 회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0. 이사야 55:7을 읽어보세요. 악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11. 악인이 해야 할 두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12.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13. 누가복음 15:7을 읽어보세요. 회개하는 죄인에 대한 하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14. 사도행전 3:19을 읽어보세요. 당신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당신의 죄는 어떻게 됩니까?

### 인용구절

(눅 13:1-5) 그 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2)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으므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3)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4)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5)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벧후 3:9)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눅 16:19-31)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20)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1)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현대를 훔더라 (22)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3) 그가 음부에서 고통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25) 아브라함이 이르되 애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26)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27)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28)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29)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0)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행 26:18)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행 26:20)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마 7:21-23)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 55:7)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눅 15:7)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행 3:19)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 정답

1. '회개'를 정의해 보세요.
  - A. 새로운 결의를 위한 180도 전환
  - B. 생각(mind)의 변화
  - C. 자신의 옛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택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마음의 변화
  - D. 방향의 전환. 당장 완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E. 인생의 방향을 완전하게 바꾸는 결정
  - F. 옛 방식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법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
  - G.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2. 누가복음 13:1-5을 읽어보세요. 멸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한다.
  
3. 베드로후서 3:9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길 원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4. 누가복음 16:19-31을 읽어보세요. 28절에서 부자는 왜 누군가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얘기 해 줄 것을 원했습니까?  
그들이 고통 받는 곳으로 오지 않게 하려고
  
5. 누가복음 16:30을 읽어보세요. 그 형제들이 고통 받는 곳(지옥)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6. 사도행전 26:18을 읽어보세요.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이 구절은 회개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 A. 눈을 뜨다.
  - B.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온다.
  - C.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 D. 죄 사함(용서)을 받는다.
  - E. 기업(상속, 유업)을 얻는다.
  
7. 사도행전 26:20을 읽어보세요. 이방인이 해야 할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 A. 회개한다.
  - B. 하나님께 돌아온다.
  - C.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한다.

8. 마태복음 7:21-23을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대신 무엇을 했다고 하십니까?

**불법**

9.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진정한 회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말이 아닌 마음에서 온다.**

10. 이사야 55:7을 읽어보세요. 악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의 길, 자신의 생각을 버려야 한다.**

11. 악인이 해야 할 두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

12.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궁홀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신다.**

13. 누가복음 15:7을 읽어보세요. 회개하는 죄인에 대한 하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늘이 기뻐한다.**

14. 사도행전 3:19을 읽어보세요. 당신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당신의 죄는 어떻게 됩니까?

**죄 없이함(죄 사함)을 받는다.**

레벨 1

제 7강

## 헌신의 결단(commitment)

던 크로우

누가복음 14:25-26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눅 14:25) 이 말씀을 하실 때 즈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았습니다. 번역된 상태에서는 제대로 알 수 없지만 헬라어 원어는 불완전 시제를 쓰고 있고 그 뜻은 큰 무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는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먹을 것을 주셨기 때문인지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 돌아보시며 의도적으로 한 마디를 하시는데 이것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도록 할 수도 있는 말이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나와 함께 가길 원하는 자, 나를 따르기 원하는 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다/저자 주]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눅 14:26) 이 구절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 진짜 그런 뜻은 아니지요? “미워하다”니,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덜 사랑한다거나 그런 뜻이지요?’ 그러나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단어의 뜻은 말 그대로 “미워하다”라는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능한 한 최고로 강한 단어를 사용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갖는 관계 중에 가장 가까운 관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머니, 아버지, 또는 배우자나 자녀일 것입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등을 돌리고 이혼을 요구한다든지, 부모님께서 돌아가신다든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당신 곁에 누가 남습니까? 아마도 형제자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관계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헌신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 헌신의 결단이란 예수님을 가장 중요시 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에서 첫 번째가 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이 땅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들과 비교하

습니다. “미워하다”라는 단어는 비교를 위한 비유로써,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와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 나머지 그것이 이 땅의 모든 관계 위에 있길 원한다.” 그런데 당신이 배우자나 자녀,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형제자매보다 더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더욱 사랑합니다.

왜 부부관계가 깨어집니까? 사람들이 왜 이혼합니까? 그 이유는 배우자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데로 하지 않으니 당신을 버리겠어.” 이것이 이혼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다 위에 계시고자 하는 관계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당신의 자아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는 값을 치르지 않는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첫 번째 자리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 제자되기 연습문제

1. 누가복음 9:57-62을 읽어보세요. 이 구절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결단의 정도에 대해 뭐라고 가르칩니까?
2. 누가복음 8:13-14을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지거나 멀어지는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3. 에스겔 16:8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결혼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묘사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너’는 이 관계에서 누구의 소유입니까?
4. 고린도전서 6:19을 읽어보세요. 당신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5. 고린도전서 6:20을 읽어보세요. 당신의 몸과 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6. 야고보서 4:4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영적 간음이 가능합니까?
7. 하나님의 눈에 영적 간음으로 간주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로마서 1:25을 참고하여 적어보세요.
8. 요한복음 2:23-25을 읽어보세요. 이 구절을 통해 헌신의 결단과 믿음에 대해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습니까?
9. 누가복음 14:28-30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비용을 계산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 인용구절

(눅 9:57-62)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58)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59)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60)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61)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대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62)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눅 8:13-14)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14)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겔 16:8)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별거벗은 것을 가리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고전 6:19-20)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약 4:4) 간음한 여인들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롬 1:25)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요 2:23-25)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24)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25) 또 사람에게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눅 14:28-30) 너희 중의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29)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30)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 정답

1. 누가복음 9:57-62을 읽어보세요. 이 구절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결단의 정도에 대해 뭐라고 가르칩니까?  
그것은 완전한 헌신의 결단이다.
2. 누가복음 8:13-14을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지거나 멀어지는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그들을 말씀에서 멀어지게 했다.
3. 에스겔 16:8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결혼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묘사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너’는 이 관계에서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
4. 고린도전서 6:19을 읽어보세요. 당신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
5. 고린도전서 6:20을 읽어보세요. 당신의 몸과 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
6. 야고보서 4:4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영적 간음이 가능합니까?  
네
7. 하나님의 눈에 영적 간음으로 간주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로마서 1:25을 참고하여 적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우상에게 마음이 빼앗기는 것(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다.)
8. 요한복음 2:23-25을 읽어보세요. 이 구절을 통해 헌신의 결단과 믿음에 대해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전부를 원하신다.(완전한 헌신의 결단)
9. 누가복음 14:28-30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비용을 계산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 레벨 1

### 제 8강

# 물세례

던 크로우

질의 : “천국 가려면 꼭 침례를 받아야 하나요? 저는 일곱 살 때 침례를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열여덟 살인데 초교파 출신의 어떤 사람 말이 그렇게 어린 나이에 구원을 받거나 침례를 받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침례교인인 우리 가족들은 침례를 받아야만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저는 천국에 꼭 가고 싶어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데 제가 다시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지금 저의 나이는 침례를 받아도 좋은 나이인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제발 되도록 빨리 알려주세요.”

응답 : 구원과 죄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저 받는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10:43에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고 합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 옵니다. 믿음이란 예수님과 그분이 흘리신 피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다준다는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44-48을 보면 믿는 자가 침례받기 전에 성령 받은 것을 볼 때, 그들은 침례받기 전에 이미 구원 받았다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하지만 죄의 용서가 침례 받는 순간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행 2:38). 그 이유는 침례 자체가 ‘한 사람이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께 돌아설 때 겉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행위와 표현’이기 때문입니다.(마가복음 16:16에서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합니다.) 또 침례는 양심을 깨끗케 하기 위해 주님께 부르짖는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행 22:16, 벰전 3:21).

일곱 살 때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예수님께로 돌아서고 침례를 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어린아 이와 같은 믿음을 받아주십니다. 침례에 조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회개입니다. 마음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로 인해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님과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이셨습니까?(행 2:38, 20:21, 17:30)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과 구원자로 믿으셨습니까?(막 16:16, 요 3:16, 롬 10:9-10)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죄를 회개하고 당신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을 물세례를 통해 완성하십시오.

침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 믿음 없이 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과 구원자로 여기고 그분께로 돌이킨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기꺼이 표현하길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에 ‘노(No)’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죽은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표현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약 2:18-19).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에는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따라옵니다. 그 믿음은 항상 자기를 표현하고자 합니다. 침례는 그 믿음을 표현하는 한 방법입니다. 침례가 우리를 구원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물이 죄를 씻어주진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줍니다. 그러나 그 피를 당신에게 적용시켜 주는 것은 바로 믿음이며 그 믿음은 침례를 받는 순간에 표현되기도 합니다(행 22:16). 문제는 당신이 회개를 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지체하십니까? 침례를 받으십시오!

### 제자되기 연습문제

1. '질의'를 던진 사람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2. 사도행전 10:43에 따르면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3. 침례는 보통 구원을 받는 순간 믿음의 표현으로 받습니다. 사도행전 2:38은 이 진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4. 마가복음 16:16은 이 진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5. 침례는 주님을 부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22:16은 이 진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6. 침례는 깨끗한 양심(의식)을 가지기 위해 주님을 부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베드로전서 3:21은 이 진리를 증명하고 있습니까?
7. 사도행전 2:38에 따르면 침례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8. 마가복음 16:16에 따르면 침례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9. 갓난아기도 회개할 수 있습니까?
10. 갓난아기도 믿을 수 있습니까?
11. 사도행전 10:43-48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를 믿은 후, 믿는 자가 밧아야 할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 인용구절

(행 10:43)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행 2:38)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막 16:16)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행 22:16)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벧전 3:21)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행 10:43-48)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44)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46)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47)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풀을 금하리요 하고 (48)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 정답

1. ‘질 의’를 던진 사람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다?  
천국가기 위해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2. 사도행전 10:43에 따르면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선물로 거저 받는다.
3. 침례는 보통 구원을 받는 순간 믿음의 표현으로 받습니다. 사도행전 2:38은 이 진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한다.

4. 마가복음 16:16은 이 진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원과 세례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5. 침례는 주님을 부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22:16은 이 진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구절은 누군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의 죄가 깨끗해진다고 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소리를 내어 부른다는 것도 되며(눅 18:13) 이 구절에 나타나 있듯이 침례를 받는 행위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6. 침례는 깨끗한 양심(의식)을 가지기 위해 주님을 부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베드로전서 3:21은 이 진리를 증명하고 있습니까?  
네
7. 사도행전 2:38에 따르면 침례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회개
8. 마가복음 16:16에 따르면 침례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믿어야 한다.
9. 갓난아기도 회개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10. 갓난아기도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11. 사도행전 10:43-48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를 믿은 후, 믿는 자가 밧아야 할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물세례를 받는 것

레벨 1

제 9강

#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 1

앤드류 워맥

고린도후서 5:17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한글킹제임스)”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신약에서 300번 이상 사용된 용어로서 하나님과의 살아있고 연합된 관계를 뜻합니다. 일단 이 관계가 형성되면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과정이 남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새롭게 된 것은 몸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변화를 이룬 부분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전에 똥똥했던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이상 구원받은 후에도 똥똥할 것입니다. 또한 이 변화는 정신이나 감정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과 정신을 “진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그다지 똑똑하지 않았다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다지 똑똑하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똑같은 기억과 똑같은 생각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세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말씀에 따르면 변화를 받은 부분은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성경구절은 데살로니가전서 5:23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영, 혼, 몸이 있다고 말합니다. 몸은 매우 분명합니다. 눈에 보이는 걸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감정, 정신과 같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바로 성경이 혼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누군가 나를 직접 건드리지 않아도 말로써 나를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건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적 부분과 정신적 부분만을 인식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한 부분이 더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영입니다.

구원 받을 때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부분은 바로 영입니다. 실제로 생명이 나오는 부분이지요. 야고보서 2:26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킹제임스 흠정역)” 이 구절은 우리의 물리적인 몸에 생명을 불어 넣어 주는 것이 영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영은 우리의 생명이 나오는 곳입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의 몸이 완성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 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숨을 불어넣다”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우리가 숨을 쉰다고 할 때 쓰는 바로 그 단어이며 다른 곳에서는 “영”으로 번역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물리적인 몸과 혼의 부분을 창조하셨지만 그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은 후에야 비로소 그는 살아있는 혼(living soul)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부분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기 전, 즉 자신의 삶을 완전히 주님께 드려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기 전의 영은 죽은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2:1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거듭 나기 전에도 자신이 살아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존재가 끝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문자 그대로 따져볼 때 “분리”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물리적으로 죽게 된다고 해서 존재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은 후에 즉시 하나님의 임재로 가거나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고 가르칩니다. 혼과 영은 계속해서 삽니다. 다만, 죽은 뒤 부패하는 물리적인 몸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7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육체가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을 말하며 그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뜻합니다.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 넣으신 것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동기를 부여해 주는 부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란 인간의 영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생명, 거룩하고 완전한 생명, 성경이 조에(ZOE)라고 부르는 “완전하고 풍성한 생명”에서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기능은 했지만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기능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감정적인 스트레스의 원인입니다.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새 영을 받아 거듭나게 되는데 “거듭남”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5에서 사용하신, 바로 그 용어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날 때 영, 혼, 몸을 가지고 태어나듯이 거듭 날 때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4:6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با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영을 우리 안에 넣어 주시고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생명, 새로운 정체성,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영을 갖게 됩니다.

거듭난 이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영에서 일어난 일을 정신적, 혼적 영역으로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 구원의 1/3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영이 완전하게 변화된 것입니다. 더 이상 변할 것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영으로 영원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안에는 이미 사랑, 기쁨,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 영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며 그로인해 신앙생활에 큰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당신은 완전하게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얻기 전까지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들여다보아 우리의 참 정체성과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을 깨닫고 믿을 때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실현됩니다.

### 제자되기 연습문제

1. 고린도후서 5:17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무엇입니까?
2. 고린도후서 5:17을 읽어보세요. 옛 것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3. 고린도후서 5:17을 읽어보세요. 무엇이 새롭게 되었습니까?
4. 에베소서 2:1을 읽어보세요. 거듭나기 전, 살리심을 받기 전 당신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5. 에베소서 2:2을 읽어보세요. 믿지 않는 자였을 때 당신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6. 에베소서 2:3-5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무엇이 풍성하신 분입니까?
7. 에베소서 2:4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왜 그토록 긍휼이 풍성하십니까?
8. 에베소서 2:5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9. 에베소서 2:5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10. 고린도전서 6:9-10을 읽어보세요. 여기 나온 것들 중에 자신과 관계된 것이 있습니까?
11. 고전도전서 6:11을 읽어보세요. “있었으나”는 과거, 현재, 미래 중 어떤 시제입니까?
12. 고린도전서 6:11을 읽어보세요. 당신이 “거듭났을 때” 일어난 세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13. 고린도전서 6:11을 KJV(킹제임스 영어성경)으로 읽어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 중 어떤 시제를 쓰고 있습니까?
14. 고린도전서 6:17을 읽어보세요. “주와 합하는 자는 \_\_\_\_\_ 이니라”

## 인용구절

(고후 5:17/한글킹제임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엡 2:1-5)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4)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고전 6:9-11/킹제임스 흠정역)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10)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11) 너희 가운데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고전 6:11/KJV) And such were some of you: but ye are washed, but ye are sanctified, but ye are justified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and by the Spirit of our God.

(고전 6:17)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 정답

1. 고린도후서 5:17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

2. 고린도후서 5:17을 읽어보세요. 옛 것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나갔다(사라졌다).

3. 고린도후서 5:17을 읽어보세요. 무엇이 새롭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

4. 에베소서 2:1을 읽어보세요. 거듭나기 전, 살리심을 받기 전 당신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허물(범법)과 죄로 죽은 상태

5. 에베소서 2:2을 읽어보세요. 믿지 않는 자였을 때, 당신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순종하면서 불순종의 영으로 살았다.
6. 에베소서 2:3-5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무엇이 풍성하신 분입니까?  
공휼
7. 에베소서 2:4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왜 그토록 공휼이 풍성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
8. 에베소서 2:5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9. 에베소서 2:5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그분의 은혜로
10. 고린도전서 6:9-10을 읽어보세요. 여기 나온 것들 중에 자신과 관계된 것이 있습니까?  
네
11. 고린도전서 6:11을 읽어보세요. “있었으나”는 과거, 현재, 미래 중 어떤 시제입니까?  
과거
12. 고린도전서 6:11을 읽어보세요. 당신이 “거듭났을 때” 일어난 세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13. 고린도전서 6:11을 KJV(킹제임스 영어성경)으로 읽어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 중 어떤 시제를 쓰고 있습니까?  
현재(한글로는 과거시제이나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14. 고린도전서 6:17을 읽어보세요. “주와 합하는 자는 \_\_\_\_\_ 이니라”  
한 영



레벨 1

제 10강

##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 2

앤드류 워맥

지난 강에서는 거듭남의 의미에 대해 나눴습니다. 거듭남이란 우리의 영 안에서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17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한글킹제임스)” 또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영 안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고 했습니다. 외적인 것을 통해서 영을 인식할 수 없으며 감정을 통해서도 인식할 수 없습니다. 감정은 혼적인 영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느껴지지 않는더라도 우리 영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말씀에 근거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몇 가지 성경구절을 통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24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하신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킹제임스 흠정역)”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거듭나면 그 영은 의롭고 참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성경은 두 가지 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 행위로 얻어내는 의가 있는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이러한 의를 유지해야 합니다. 바르게 살지 않고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 수도 있고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의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21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죄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외적인 의를 훨씬 초월하는 의로써 이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근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거저 받습니다. 우리는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의롭게 되어가는 중이 아닙니다. 이미 의롭습니다. 다른 말로 정의하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근거하여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근거하지 않으십니다. 변화가 일어난 곳은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는 이미 의로움과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되었고 완전하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에베소서 2:10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의 영은 완벽하고 온전합니다. 영 안에는 죄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1:13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완전히 용서받고 깨끗이 씻음 받은 것을 저도 믿어요. 그런데 저는 그 이후로 죄도 지었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동과 생각, 감정적인 부분에서 넘어진 것이며 당신의 영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영은 마치 밀봉을 하듯 인치심을 받아서 완전히 봉해졌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것도 그 안으로 침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치셨습니다 (밀봉하셨습니다). 거듭나는 순간 당신은 새 영을 받았고 죄는 그 영에 침투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것은 육신이 아닌 영적인 정체성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는 것을 뜻합니다.

정체성 자체가 변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행동에 근거하지 않으며 우리의 생각에도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새 정체성에 근거합니다. 이것은 이미 완성된 일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의로움과 참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정체성 위에 굳게 서십시오.

### 제자되기 연습문제

1. 고린도전서 6:17을 읽어보세요. 우리의 영 안에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2. 에베소서 3:17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는 이제 어디에 거하십니까?
3. 에베소서 3:17을 읽어보세요.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4. 요한일서 5:12을 읽어보세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고백해야 합니까?
5. 골로새서 1:26-27을 읽어보세요. 여러 세대 동안 감춰져 왔으나 이제 알려진 비밀은 무엇입니까?
6. 에베소서 4:23-24을 읽어보세요.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존재는 무엇입니까?
7. 고린도후서 5:21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가진 의는 누구의 의입니까?

8. 에베소서 1:4을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9. 에베소서 1:6을 읽어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용납하심을 받았습니까?

### 인용구절

(고전 6:17)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엡 3:17/킹제임스 흠정역)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

(요일 5:12)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골 1:26-27/킹제임스 흠정역)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다. (27)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 시니라.

(엡 4:23-24)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킹제임스 흠정역)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하신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고후 5: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엡 1: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엡 1:6)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 정답

1. 고린도전서 6:17을 읽어보세요. 우리의 영 안에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우리 영이 주님과 합해졌다.

2. 에베소서 3:17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는 이제 어디에 거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3. 에베소서 3:17을 읽어보세요.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믿음으로
4. 요한일서 5:12을 읽어보세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고백해야 합니까?  
그 아들(예수 그리스도)
5. 골로새서 1:26-27을 읽어보세요. 여러 세대 동안 감춰져 왔으나 이제 알려진 비밀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6. 에베소서 4:23-24을 읽어보세요.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존재는 무엇입니까?  
새 사람(거듭난 영)
7. 고린도후서 5:21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가진 의는 누구의 의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8. 에베소서 1:4을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다.
9. 에베소서 1:6을 읽어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용납하심을 받았습니까?  
사랑하시는 자(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레벨 1

제 11강

#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던 크로우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주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1:8-9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언젠가는 넘어지고 언젠가는 죄를 짓게 됩니다. 거듭나기 전과 달라진 것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 본성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를 근심하게 합니다. 거듭난 우리는 죄 짓기를 원치 않고 의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만약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시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과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불안할 것이며 어떤 면에서는 세상보다 더 못한 상황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책감으로 괴로워하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믿는 자는 관심을 죄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를 의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히브리서 10:2은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가 우리 삶의 중심(focus)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로마서 4:2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근거했다면 우리는 그 것에 대해 자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하신 일,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 일도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께 감사하는 동시에 내가 한 일에 대해서도 어깨를 으쓱 댈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실 때 처음부터 사람 쪽에서는 자랑도, 영광도 없도록 해 놓으셨습니다(롬 3:27). 영생의 선물은 말 그대로 선물이며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롬 6:23).

로마서 4:2은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의 행위로 받습니까? 자기의 공로로 받습니까? 그가 하는 일에 대한 대가로 받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그가 한 일, 또는 그가 하지 않은 일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입니까? 로마서 4:3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내가 실패하고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그 때에도 나를 붙잡아주고 멸망하지 않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지셨기에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4:6은 말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바” 구약의 사람 다윗도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의로움,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를 거저 주실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 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리고 8절입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 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죄를 인정할 수도 있다든지, 어떨 때는 죄를 인정하고 어떨 때는 죄를 인정 하지 않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합니 다. 헬라어로 이것은 강한 부정이며 그 뜻은 주님은 절대,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죄를 담당시키지 않 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새 언약의 좋은 소식입니다. 히브리서 10:16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 르시되 그 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리고 그 법의 일부는 17절에 나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 하지 아니하리라”

당신이 죄를 짓고 또 그것을 미처 고백할 시간이 없었을 때에도 당신을 붙잡아 주고 당신을 의롭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머물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 분의 이름은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입니다(마 1:21).

### 제자되기 연습문제

1. 로마서 4:5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_\_\_\_\_ 사람들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2. 로마서 4:2-3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그에게 없었던 것을 그의 것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3. 로마서 4:22-24을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십니까?
4. 로마서 4:6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을 따라 그에게 의로움을 주셨습니까?
  - A. 그들의 공로를 따라
  - B. 그들의 공로와 상관없이
  - C. 그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가에 따라

5. 히브리서 10:14을 읽어보세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동안 완전해 졌습니까?
6. 로마서 5:17을 읽어보세요. 의는 어떻게 받습니까?
- A. 얻어내서
  - B. 선물로
  - C. 일을 해서
7. “선물”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8. 예수님을 나 개인의 구원자로 신뢰하려면 그분이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믿어야 합니까?
- A. 교회로
  - B. 천국으로
  - C. 선교지로

### 인용구절

(롬 4:5)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롬 4:2-3)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롬 4:22-24)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23)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롬 4:6)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히 10:14)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롬 5:17)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 정답

1. 로마서 4:5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_\_\_\_\_ 사람들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2. 로마서 4:2-3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그에게 없었던 것을 그의 것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의
3. 로마서 4:22-24을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십니까?  
의롭게
4. 로마서 4:6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을 따라 그에게 의로움을 주셨습니까?  
B. 그들의 공로와 상관없이
5. 히브리서 10:14을 읽어보세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동안 완전해 졌습니까?  
영원히
6. 로마서 5:17을 읽어보세요. 의는 어떻게 받습니까?  
B. 선물로
7. “선물”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받는 사람이 값을 치르지 않고 거저 받는 것
8. 예수님을 나 개인의 구원자로 신뢰하려면 그분이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믿어야 합니까?  
B. 천국으로



## 레벨 1

### 제 12강

# 하나님 말씀의 신실함(integrity)

앤드류 워맥

마가복음 4장은 하나님 말씀의 신실함을 설명한 놀라운 장입니다. 여기서 신실함이란 말씀 안에 있는 능력, 신뢰성 그리고 믿음을 말합니다. 이 예화와 함께 예수님께서 하루에 가르치신 비유는 무려 10개나 됩니다. 그것을 알려면 마가복음 4장,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비유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4:26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14절에서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농사를 잘 짓는 방법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을 통해 깨닫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27절입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 이 사람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는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도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한단 말입니까?”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분명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압니다. 작디작은 씨 하나를 땅에 심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싹을 틔우고 튼튼한 줄기가 되어 100배의 열매를 맺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것을 다 이해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해를 못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듯이 말씀도 역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자신을 폭 담으면 태도와 자세가 바뀌게 되고 삶의 경험들이 달라지며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뀌게 됩니다.

28절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땅은 씨가 싹을 틔우고 생명을 낼 때까지 그것을 품고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마음에 심겨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성경책을 가까이 두거나 항상 가지고 다닌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 어떤 능력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반드시 말씀을 취해서 그것을 씨로 삼아 마음에 심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은 원래 그것이 만들어진 의도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을 심으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저절로 바뀌게 됩니다. 28절 나머지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즉 성장과 성숙에는 과정과 단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저에게 항상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비전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거나 단 한사람도 주님께 인도해 본 적이 없다면 몇 주 만에 TV나 라디오에 출연하는 영향력 있는 사역자가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일에는 단계가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께 받는 과정도 각각의 단계가 있으며 이 비유가 하는 얘기도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반드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생기고 그 다음으로 믿음이 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렇듯 승리로 가는 길에는 항상 단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멈춰있던 차가 한 순간에 0km에서 100km로 달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원이라 해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씨와 같다고 말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마음에 심겨져야 하고 단계별로 성장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싹, 그리고 이삭의 단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충실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성장에는 거쳐야 할 단계가 있지만 결국에는 열매 맺는 성숙한 단계에 이를 수 있습니다.

35절이 결론입니다. “**그 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은 하루 종일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씨와 같은지, 또 어떻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삶에 풀어 놓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 적어도 10개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고 제자들이 잘 배웠나 평가하기 위해 문제를 내십니다. “자, 주님의 말씀이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예수님은 “자, 배를 타고 중간쯤 가다가 빠져 죽자.”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편으로 가자”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올라 곧 잠이 드셨습니다. 그러자 광풍이 몰아쳐서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배는 큰 여객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객실에서 하나도 젖지 않은 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배는 작은 배였고 잠든 예수님도 파도에 흠뻑 젖었습니다. 예수님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셨지만 여전히 잠들어 계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화가 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상관도 안하십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이렇습니다. “뭐라도 좀 하십시오! 바가지로 물을 퍼내시던지, 노를 저으시던지,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을 통해 구속사역을 마무리 하셨으며 그것이 우리가 필요한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필요한 모든 씨들을 공급하셨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심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심고 생명을 열매 맺을 때까지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아무것도 안하십니까?”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애들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뭐라도 했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이며 제자들이 해야 하는 일은 그 말씀을 취해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통해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공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 씨의 형태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를 취해 마음에 심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에 심는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서 뿌리가 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삶의 광풍에 맞설 때 그것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선의 뜻은 예수님께서 그날 가르치신 것들을 취하여 그들도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에 따르면, ‘**건너편으로 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은 약속이야. 우주의 창조자께서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신다. 중간쯤 가서 빠져죽자고 하지 않으셨어. 자,

그러니 건너편으로 가자!” 그리고 말씀을 취해 거기에 믿음을 합하여 바람과 물결을 꾸짖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에 따라 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 제자되기 연습문제

1. 마태복음 13:19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 여호수아 1:8을 읽어보세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까?
3. 요한복음 6:63을 읽어보세요. 이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4. 마태복음 4:4을 읽어보세요. 사람은 물리적인 음식만으로 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5. 에베소서 6:17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무기와 같습니까?
6. 검(칼)은 원수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까?
7. 로마서 8:6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리를 내어드리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 고린도후서 3:18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우리를 가득 채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겠습니까?

### 인용구절

(마 13:19)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 가에 뿌려진 자요

(수 1:8)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요 6:63)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마 4: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엡 6: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롬 8:6)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고후 3:18)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 정답

1. 마태복음 13:19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악한 자가 와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말씀을 앗아간다.
2. 여호수아 1:8을 읽어보세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까?  
밤낮으로
3. 요한복음 6:63을 읽어보세요. 이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영이요 생명
4. 마태복음 4:4을 읽어보세요. 사람은 물리적인 음식만으로 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5. 에베소서 6:17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무기와 같습니까?  
검
6. 검(칼)은 원수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까?  
네
7. 로마서 8:6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리를 내어드리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과 평안이 넘친다.
8. 고린도후서 3:18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우리를 가득 채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겠습니까?  
주님과 그분의 영광

레벨 1

제 13강

# 하나님은 무죄

앤드류 워맥

오늘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고 자동적으로 믿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의 잘못된 정의로 인해 그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제하신다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나머지 삶의 전반에 이 교리가 깊이 박힌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와 정 반대로 가르치고 있으며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1:13-17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구절은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10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어떤 것이 좋은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어떤 것이 나쁜 것이라면 그것은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신학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야고보서 4:7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킹제임스 흠정역)”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 한다, 즉 하나님께 통제할 권한을 맡겨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대적해야 합니다. “대적하다”의 뜻은 적극적으로 대항하여 싸운다는 말입니다.

자신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을 때, 예를 들어 질병, 사업의 실패, 실업, 아이들의 반항, 이혼 등이 전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매우 수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그런 일들을 사용하신다고 진짜 믿는다면 그 문제에 대항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싸운다는 말이 됩니다. 야고보서 4:7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께는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어떤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어떤 것은 마귀에게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의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모르면 결국 마귀에게 복종하고 사탄에게 권세를 넘겨주는 꼴이 됩니다.



너무 자주 오용되는 로마서 말씀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전에 한 장례식에 갔었는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고 교회도 다니지 않았으며 말씀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8:28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이 오용되었습니다.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장례식은 십대 남자아이와 여자 아이의 장례식이었는데 그들은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한 뒤 차를 너무 빨리 몰다가 미끄러져서 코너를 도는 중에 공중전화 부스를 들이받고 둘 다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장례를 집도한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데는 무슨 목적이 있으십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꼭 마귀가 했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아이들의 잘못입니다. 물론 부모님과 다른 어른들이 그들에게 가르친 것에 반항하도록 유혹한 것은 마귀였겠지만 결국 선택은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술과 마약을 한 것은 그 아이들입니다. 공중전화 부스를 들이 받은 것도 그 아이들입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결과였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이 결국 선을 이룬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고 있으며 게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목적/KJV)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이라는 조건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말씀의 원리에 명백하게 반항하여 술과 마약을 했던 그러한 사건에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보면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3:8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목적/KJV)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탄의 일을 멸하시려고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즉 그분의 부르심 안에서 행하는 자들, 마귀를 대적하는 자들,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는 자들에게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만이 ‘마귀가 내 삶에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죽이고도 독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 오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선택해야하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의지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사람들이 포함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진짜 하셨다면, 즉 암, 장애, 우울증, 슬픔,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주신 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이 만약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지 않을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감옥에 가두어서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느 누구보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치고 이런 나쁜 일들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은 마귀 짓이고 어떤 일은 자연적인 결과입니다.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들조차 자기들의 보험규약에 지진이나 전염병을 “하나님이 하신 일(Acts of God)”이라고 규정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 제자되기 연습문제

1. 야고보서 1:13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악에게 시험받게 하십니까?
2. 야고보서 1:17을 읽어보세요. 좋은 선물은 어디에서 옵니까?
3. 요한복음 10:10을 읽어보세요. 도둑은 누구입니까?
4. 요한복음 10:10을 읽어보세요. 도둑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5. 요한복음 10:10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6. 야고보서 4:7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7. 로마서 8:28을 읽어보세요. 이 구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합니까?
8. 사도행전 10:38을 읽어보세요. 질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까?
9. 요한일서 3:8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 인용구절

(약 1:13)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약 1:17)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요 10:10)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약 4:7/킹제임스 흠정역)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롬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행 10:38)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요일 3: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 정답

1. 야고보서 1:13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악에게 시험받게 하십니까?

아니요

2. 야고보서 1:17을 읽어보세요. 좋은 선물은 어디에서 옵니까?

빛들의 아버지

3. 요한복음 10:10을 읽어보세요. 도둑은 누구입니까?

마귀

4. 요한복음 10:10을 읽어보세요. 도둑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5. 요한복음 10:10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



6. 야고보서 4:7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도망간다.

7. 로마서 8:28을 읽어보세요. 이 구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됩니까?  
아니요

8. 사도행전 10:38을 읽어보세요. 질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까?  
아니요

9. 요한일서 3:8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 레벨 1

### 제 14강

# 성령세례의 능력

던 크로우

마가복음 16:15-16은 지상 대 명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의 전도를 통해 지상 대 명령이 사마리아에서 어떻게 행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5)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7)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가복음 16:15-16에 따라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으며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었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세례(침례)를 받았습니다. 지상 대 명령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을까요?

성경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 것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위의 말씀에 따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었을 때 구원을 받았고 물세례도 받았지만 성령세례는 받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8:14-17을 봅시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위 말씀에 보듯이 누군가가 믿고, 세례 받고, 구원 받았다고 해서 성령으로 세례 받았다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22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오순절이 돼서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을 때 성령님으로 살리심을 받는 것과 성령께서 개개인 위에 임하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은 다릅니다. 성령세례란 한 개인이 성령 안으로 꼭 잠기는 것을 말하며 이로 인해 그 사람은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9:1-2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위 지방들을 두루 다니고 에베소에 이르러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노라, 하거늘(킹제임스 흠정역) 쉽게 말해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물었습니다. “믿은 이후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바울이 또 말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또 대답합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더 정확히 설명했을 것이고 여기 믿는 자들은 자신들이 받은 물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자기 자신을 연결시켜 생각했을 것입니다. 6-7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이 사람들은 분명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제자들이었지만 성령세례는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즉 한 사람이 거듭나고 물세례를 받았더라도 성령세례는 받지 않았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은 구원의 경험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물로 세례를 줄 수는 있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성령으로 세례를 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없다면 지금 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누가복음 11:13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 제자되기 연습문제

1. 마가복음 16:16과 사도행전 8:5에 근거하여 보면 사도행전 8:12에 나온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2. 사도행전 8:14-16을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성령세례를 받았습니까?
3. 사도행전 19:1-5을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믿는 자들입니까?
4. 사도행전 19:6-7을 읽어보세요. 이 사건이 있기 전 이 사람들은 이미 성령세례를 받은 상태였습니까?
5. 누가복음 11:13을 읽어보세요. 이 구절은 성령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합니까?
6. 고린도전서 14:2을 읽어보세요. 방언을 할 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7. 고린도전서 14:14을 읽어보세요. 방언을 할 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8. 고린도전서 14:16-17을 읽어보세요. 방언을 할 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9. 사도행전 2:4을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할 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인가요?
10. 사도행전 2:4을 읽어보세요. 말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 인용구절

(막 16:16)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행 8:5)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행 8:12)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행 8:14-16)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15)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행 19:1-5)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2)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3)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4)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5)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행 19:6-7)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7)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눅 11:13)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고전 14:2)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 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고전 14:14)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고전 14:16-17)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17)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행 2:4)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 정답

1. 마가복음 16:16과 사도행전 8:5에 근거하여 보면 사도행전 8:12에 나온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네

2. 사도행전 8:14-16을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성령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니요

3. 사도행전 19:1-5을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믿는 자들입니까?

네

4. 사도행전 19:6-7을 읽어보세요. 이 사건이 있기 전 이 사람들은 이미 성령세례를 받은 상태였습니까?

아니요

참고: 이것을 볼 때 성령세례는 구원과 다른 경험임을 알 수 있다.

5. 누가복음 11:13을 읽어보세요. 이 구절은 성령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합니까?

구해야 한다.

6. 고린도전서 14:2을 읽어보세요. 방언을 할 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말하고 비밀을 말한다.

7. 고린도전서 14:14을 읽어보세요. 방언을 할 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영이 하나님께 기도한다.

8. 고린도전서 14:16-17을 읽어보세요. 방언을 할 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영으로 축복(송축)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9. 사도행전 2:4을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할 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인가요?

그 사람

10. 사도행전 2:4을 읽어보세요. 말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성령님

레벨 1

제 15강

## 성령세례를 받는 방법

던 크로우

오늘은 성령을 받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1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백부장이란 군대 서열인데 지금의 연대장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옳은 일을 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또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발견하게 될 매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옳은 일을 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3-6절입니다. “하루는 제 구 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옳은 일을 할 만큼 의로웠으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에게 보내진 천사가 말하기를 그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시몬 베드로를 데려와서 그 것이 무엇인지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43에서 베드로가 그에게 한 말을 통해 그가 들어야 했던 말이 무엇이었던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저자 주]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에는 옳은 일을 한 것에 대한 공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갖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하는 일은 위대하고 놀라운 것들이다. 내가 기억할 만한 것들이지. 하지만 네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겠다. 내가 보낸 천사가 베드로를 데려오라 할 것이다. 베드로는 네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10:43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저자 주]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사도행전 10:44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고넬료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 들으면서 그것을 받아들였고

죄 사함을 위해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을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자마자 성령께서 그와 거기 모인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45절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들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46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음이라(한글킹제임스)”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누군가에 임하실 때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서 그들이 성령으로 채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주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저는 어느 날 해질녘, 텍사스 델러스에 있는 들판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말하는 방언과 성령세례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의 언어를 뛰어 넘어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저에게 새 언어를 주셨는데 제가 알지도 못하고 배운 적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4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킹제임스 흠정역)” 누가 말했습니까? 그들이 말했습니다. 누가 말하게 했습니까? 성령님이 말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13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구하고, 믿고,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이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새 언어를 주셔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 제자되기 연습문제

- 아래 각 구절에서 구원을 설명하는 용어를 적어 보세요.  
(요 3:3)  
(행 3:19)  
(막 16:16)  
(골 2:13)  
(롬 8:9)  
(마 25:46)
- 사도행전 11:15을 읽어보세요. 이 구절은 성령세례의 경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는데(요 20:22), 며칠 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행 2:1-4).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세요(행 1:8 참고).



4. 사도행전 1:8을 읽어보세요. 성령세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5. 사도행전 2:38-39과 고린도전서 1:7을 읽어보세요. 성령세례는 오늘날에도 유효합니까?
6. 누가복음 11:13을 읽어보세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당장 어떻게 해야 합니까?
7. 사도행전 2:4을 읽어보세요. 당신은 성령을 구하고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십니까?

### 인용구절

(요 3: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행 3:19)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막 16:16)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골 2:13)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롬 8:9)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마 25:46)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행 11:15)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요 20:22)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행 2:1-4)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행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2:38-39)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9)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고전 1:7)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눅 11:13)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행 2:4)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 정답

1. 아래 각 구절에서 구원을 설명하는 용어를 적어 보세요.

(요 3:3) 거듭남

(행 3:19) 새롭게 됨

(막 16:16) 믿고 세례를 받음

(골 2:13) 용서받음

(롬 8:9) 그리스도의 영을 받음

(마 25:46) 영생

2. 사도행전 11:15을 읽어보세요. 이 구절은 성령세례의 경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심

3.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는데(요 20:22), 며칠 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행 2:1-4).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세요(행 1:8 참고).

요한복음 20:22에서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고 사도행전 2:1-4에서는 같은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하나는 내적 체험, 하나는 외적 체험).

4. 사도행전 1:8을 읽어보세요. 성령세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역(service, 봉사)을 위해 또는 증인이 되기 위해 능력을 받는 것

5. 사도행전 2:38-39과 고린도전서 1:7을 읽어보세요. 성령세례는 오늘날에도 유효합니까?

네.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유효하다.

6. 누가복음 11:13을 읽어보세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당장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해야 한다.

7. 사도행전 2:4을 읽어보세요. 당신은 성령을 구하고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십니까?

네. 성령께서 주시는 언어로 말하겠습니다.

## 레벨 1

### 제 16강

# 방언의 유익

앤드류 워맥

성령세례가 처음 임했을 때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는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이 방언으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을 보면 오순절 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전체에 걸쳐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에 대한 것은 방언 외에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방언은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4:13-14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understanding)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단 방언을 하게 되었으면 통역(통번)을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제가 성령세례를 받고 방언을 하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보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삶을 극적으로 바꿔준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거듭나던 그 순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내 안에 모든 것을 넣어주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저에게 임하신 이후에는 거듭나는 순간 저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방언을 시작한 첫 해에는 저의 생각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미친 짓이다, 시간 낭비일 뿐이야.’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데에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유다서 1:20(쉬운성경 참고/역자 주)은 방언으로 기도할 때 가장 거룩한 믿음으로 자신을 튼튼히 세운다고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려면 자연적인 사고와 논리에서 벗어나 초자연적인 믿음의 영역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제가 경험한 또 다른 것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수년간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곤 했는데 그러면 하루 이틀 뒤에 그 사람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고 제가 기도하는 동안 그들에게 뭔가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너무 많아져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나의 정신적인 능력 그 이상의 지혜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며(요일 2:20)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내 영이(고전 2:16)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었기 때문에 제가 가진 인간적인 이해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방법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 말씀드렸다시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저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 그때 이러한 생각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기도하면 이렇게 알 수 없는 말로 중얼거리는 것 보다는 훨씬 나을 텐데...’ 저 역시 이런 생각과 싸우면서 계속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간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인사도 없이 그냥 들어와서 털썩 앉더니 눈물을 흘리며 자기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문제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구야, 큰일이네. 우리말로 기도를 하고 있을걸.’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 만난 적이 없는 이 사람을 위해 뭘 기도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나?’ 그러자 어쨌든 나는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생각으로 기도했으면 절대 할 수 없었던 기도를 이 사람을 위해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저는 뭔가를 깨닫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의 문제가 뭘지 말해 주겠네.” 그리고는 그 사람이 털어 놓던 이야기의 결말을 제가 대신 마무리했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까지 그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방언을 부정하는 교회에 다녔을 때 일어났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는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었고 저 또한 저에게 일어난 일에 확신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말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둘 다 겁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초자연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영이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의 영은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쁨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며 어떠한 한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영이 가진 그 능력과 계시로 행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육신의 삶도 완전히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는 것을 인식하고 믿으십시오. 그 때 당신의 영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을 말하는 것이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13에서 말하듯이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통역이란 방언 한번 하고 우리말로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중에 방언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면 그때는 멈추고 우리말로 통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계시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저의 태도가 변하곤 하는데 꼭 어떤 말씀을 받지는 않더라도 갑자기 모든 것이 분명해지면서 뭔가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온전한 계시가 임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그것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역이 올 것을 믿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상이지요. 방언기도는 매일의 삶에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방언기도는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생각을 뛰어넘어 마음으로 아버지와 직접 대화하는 것입니다. 방언기도는 당신을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주며 하나님의 감춰진 지혜를 풀어놓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방언을 자유자제로 하여 믿음을 풀어놓고 방언기도의 모든 유익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 제자되기 연습문제

1. 유다서 1:20과 고린도전서 14:4을 읽어보세요. 성령으로 기도할 때 가장 큰 유익은 무엇입니까?
2. 사도행전 2:4을 읽어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3. 사도행전 2:4을 읽어보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결과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4. 고린도전서 14:14을 읽어보세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나의 어느 부분이 기도하는 것입니까?
5. 고린도전서 14:2을 읽어보세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6. 고린도전서 14:2을 읽어보세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자신이 뭐라고 하는지 기도하는 사람은 알 수 있습니까?
7. 고린도전서 14:2을 읽어보세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당신의 영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8. 고린도전서 14:4을 읽어보세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9. 고린도전서 14:16-17을 읽어보세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 인용구절

(유 1:20/쉬운성경)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만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가장 거룩한 믿음으로 자신을 튼튼히 세우십시오.

(고전 14:4)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행 2:4)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고전 14:14)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고전 14:2)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 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고전 14:4/킹제임스 흠정역)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나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고전 14:16-17)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17)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 정답

1. 유다서 1:20과 고린도전서 14:4을 읽어보세요. 성령으로 기도할 때 가장 큰 유익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운다.
2. 사도행전 2:4을 읽어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모두 다
3. 사도행전 2:4을 읽어보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결과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다른 언어(방언)로 말하기 시작했다.
4. 고린도전서 14:14을 읽어보세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나의 어느 부분이 기도하는 것입니까?  
내 영
5. 고린도전서 14:2을 읽어보세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6. 고린도전서 14:2을 읽어보세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자신이 뭐라고 하는지 기도하는 사람은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7. 고린도전서 14:2을 읽어보세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당신의 영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비밀
8. 고린도전서 14:4을 읽어보세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자신을 세운다.
9. 고린도전서 14:16-17을 읽어보세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송축하며 감사한다.





# 제자 삼는 전도



레벨 2

## 레벨 2 16강 훈련 코스

### 목차

제 1강	모든 괴로움의 근원: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	2-1
제 2강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	2-5
제 3강	생각을 새롭게 하기.....	2-8
제 4강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중요성 .....	2-12
제 5강	축사.....	2-18
제 6강	믿는 자의 권세.....	2-23
제 7강	구원 안에 속해 있는 치유.....	2-29
제 8강	치유의 장애물.....	2-34
제 9강	용서.....	2-40
제 10강	결혼생활 1.....	2-46
제 11강	결혼생활 2.....	2-51
제 12강	하나님적인 사랑 1 .....	2-58
제 13강	하나님적인 사랑 2.....	2-64
제 14강	재정 1.....	2-70
제 15강	재정 2.....	2-75
제 16강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	2-79

## 레벨 2

### 제 1강

# 모든 괴로움의 근원: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앤드류 워맥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은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문제들의 근원입니다. 잠언 13장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직접 찾아서 읽어보지 않으면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었다는 것 자체를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10절입니다. “오직 교만에 의해서 다툼이 생기나 좋은 충고를 받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킹제임스 흠정역)”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툼이나 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오직 교만 때문이라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다 저사람 때문인데.” 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르는 소리 마세요. 이것은 그냥 저의 성향입니다.” 아니요, 성경말씀은 오직 교만에 의해서 다툼이 온다고 합니다. 교만은 다툼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유일한 원인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물론 나에게 문제가 아주 많다는 것은 인정해요. 하지만 교만은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자존감이 낮는데 어떻게 내가 교만하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먼저 교만을 제대로 정의해야 합니다. 교만은 단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교만의 정의는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의 중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실상 모든 교만의 뿌리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모세의 형제자매인 미리암과 아론은 다른 인종과 결혼한 모세를 대적하고 비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민 12:2) 그런데 3절을 보니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를 증명하듯 모세는 그들의 말에 감정 상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한 것을 잠깐 생각해 봅시다. 당시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었는지 알 순 없지만 그래도 수백만은 됐을 텐데 그중에 모세가 가장 온유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라면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단지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한쪽은 오만함이고 다른 한 쪽은 낮은 자존감입니다. 이 둘은 같은 것이 정반대로 표현된 것일 뿐, 둘 다 근원은 같습니다. 그 근원은 바로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든 더 못하다고 생각하든 그것은 아무런 상관

없습니다. 둘 다 전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교만을 거쳐서 나오는 생각들입니다. 소심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도 굉장히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의 뿌리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잠언 13:18에서 “오직 교만에 의해서 다툼이 생긴다(킹제임스 흠정역)”고 한 말씀을 여기에 적용해 보면 화가 나는 이유는 본인의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때문이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그런 식으로 반응하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자기중심적인 사고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언짢게 하는 것을 막을 도리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신 안에 있는 문제들을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언행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통제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통제하셨습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은 바로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우리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시며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중심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극심한 고난과 억울함의 한가운데에서도 자신 앞에 닥친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사랑으로 행하시며 용서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화가 나는 이유는 자신의 이기심 때문이며 성경말씀은 우리가 마땅히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죽은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이 정말 죽었다면 우리가 아무리 모욕을 주고 발로 차고 침을 뱉고 무시한다고 해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주변 상황에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이유는 그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 안에 있는 것들 때문입니다. 주변의 모든 장애물을 없애버리고, 자신의 기분을 거슬리게 하는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릴 만큼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과 그분의 나라를 사랑하며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고쳐간다면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던 다툼과 분쟁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분의 나라를 주신 이유는 당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이루신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이 삶에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필요만을 채워 주시기 위해 그 모든 일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생명을 버릴 때 인생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을 자신보다 더 사랑할 때 자신의 내면에 있는 모든 분노와 상처가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나눈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당신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바로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대신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직면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당신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것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 제자되기 연습문제

1. 마가복음 9:33-34을 읽어보세요.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은 무엇에 대해 논쟁했습니까?
2. 제자들의 논쟁에 나타난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까?
3. 마가복음 9:35을 읽어보세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4. 누가복음 22:24-27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5. 잠언 13:10을 읽어보세요. 다툼을 일으키는 유일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6. 갈라디아서 2:20을 읽어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7. 마태복음 7:12을 읽어보세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 인용구절

(막 9:33-35/킹제임스 흠정역) 그분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에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서로 논쟁하였느냐? 하셨으나 (34)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그들이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일로 자기들끼리 논쟁하였기 때문이라. (35) 그분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말째가 되며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하시고

(눅 22:24-27/쉬운성경) 제자들 사이에 누가 가장 큰 사람으로 여김을 받을 것인가를 놓고 서로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25)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의 왕은 백성들 위에서 왕노릇 한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은인으로 불린다. (26) 그러나 너희가 그러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지도자는 종처럼 되어야 한다. (27)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과 그를 시종드는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잠 13:10/킹제임스 흠정역) 오직 교만에 의해서 다툼이 생기나 좋은 충고를 받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갈 2:20/킹제임스 흠정역)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한글킹제임스).

(마 7:1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 정답

1. 마가복음 9:33-34을 읽어보세요.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은 무엇에 대해 논쟁했습니까?  
누가 가장 큰 자인가
2. 제자들의 논쟁에 나타난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까?  
네
3. 마가복음 9:35을 읽어보세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모든 사람의 종
4. 누가복음 22:24-27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제자들 사이에 누가 가장 큰 사람으로 여김을 받을 것인가를 놓고 서로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의 왕은 백성들 위에서 왕노릇 한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은인으로 불린다. 그러나 너희가 그러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지도자는 종처럼 되어야 한다.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과 그를 시종드는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5. 잠언 13:10을 읽어보세요. 다툼을 일으키는 유일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교만
6. 갈라디아서 2:20을 읽어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장점과 약점에 집중하지 않는다.
7. 마태복음 7:12을 읽어보세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타인 중심의 사고방식을 갖는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한다.

## 레벨 2

### 제 2강

#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

던 크로우

묵상이라는 말의 뜻은 “어떤 것에 대해 숙고하다, 깊이 생각하다, 머릿속에서 계획을 세우다, 목적하다 또는 의도하다”입니다. 헬라어로 묵상은 “어떤 것을 머릿속에서 계속적으로 생각하다”이며 “상상하다”로 번역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적 묵상의 두 가지 목적은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 정확한 지식을 깊이 생각하는 것”과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 찬양, 묵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주제별 성경공부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깊이 생각하고 싶은 주제를 정합니다. 세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세례라는 단어를 헬라어, 히브리어로 정의해보고 권위 있는 사전을 통해서도 정의 해봅니다. 그 단어가 파생된 어근도 살펴봅니다. 그 단어가 포함된 성경구절의 맥락을 숙고하다 보면 세례와 연관된 다른 주제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죄 사함(행 2:38), 회개(행 2:38), 믿음(막 16:16), 양심(벧전 3:21),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행 22:16) 등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자신이 직접,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성경말씀이 주는 의문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세례의 조건은 무엇인가?’, ‘세례의 목적은 무엇인가?’, ‘세례는 언제 행해져야 하나?’, ‘얼마 동안 행해져야 하나?’ 등입니다.

묵상은 강해 성경공부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강해 성경공부란 성경 66권 중에서 한 권을 택하여 한 구절씩 공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한 성경 전체를 오랫동안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여 각각의 장, 절까지 친숙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묵상은 단어 공부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공부해 보십시오.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주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예수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의롭게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등입니다.

성경의 한 단락을 가지고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단락이란 글을 쓸 때 사용하는 생각의 단위로 주로 여러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글을 쓰다가 강조하고자 하는 주제를 바꿀 때 단락을 바꾸곤 합니다.

성경말씀을 묵상할 때 물음표 등과 같은 부호들을 살펴보십시오. ‘이 질문의 목적은 무엇인가?’, ‘전체 맥락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나?’와 같은 질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묵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지 그 단어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 제자되기 연습문제

1. “묵상”의 뜻은 무엇입니까?
2. 성경적 묵상의 두 가지 목적은 무엇입니까?
3. 주제별 성경공부란 무엇입니까?
4. 강해 성경공부란 무엇입니까?
5. 누가복음 6:46을 읽어보세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6. 마태복음 1:21을 읽어보세요. “예수”의 뜻은 무엇입니까?
7. 누가복음 23:1-2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입니까?
8. 단락은 무엇입니까?
9. 성경적인 묵상은 단지 그 단어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_\_\_\_\_입니다.

### 인용구절

(눅 6:46)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마 1: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눅 23:1-2)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2)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 정답

1. “묵상”의 뜻은 무엇입니까?  
깊이 생각하다, 계속 생각하다, 숙고하다.
2. 성경적 묵상의 두 가지 목적은 무엇입니까?  
1)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 정확한 지식을 깊이 생각하는 것  
2) 하나님에 대해 계속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면서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3. 주제별 성경공부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한 주제를 선택하여 공부하고 숙고하는 것
4. 강해 성경공부란 무엇입니까?  
성경책 한 권을 정해 한 구절, 한 구절을 공부하는 것
5. 누가복음 6:46을 읽어보세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대상
6. 마태복음 1:21을 읽어보세요. “예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
7. 누가복음 23:1-2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입니까?  
왕으로 기름부음 받은 자
8. 단락은 무엇입니까?  
같은 주제의 글 한 단위
9. 성경적인 묵상은 단지 그 단어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_\_\_\_\_입니다.  
그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

## 레벨 2

### 제 3강

# 생각을 새롭게 하기

던 크로우

오늘은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인용할 텐데 첫 번째 구절은 빌립보서 4:8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런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러한 것들을 곱곰이 생각하라(킹제임스 흠정역)” 사도바울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로마서 7:22-23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생각들을 때때로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와 싸우는 죄의 법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생각할지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우리의 생각이 내 머리에 집을 짓도록 내버려 둘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 잠언 23:7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가 하면 그도 그러하니라(킹제임스 흠정역)”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로마서 12:1-2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개역개정)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킹제임스 흠정역)” 성경말씀은 생각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아폴로호가 우주로 날아갔을 때 10분마다 한 번씩 궤도를 수정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구에서 달까지 지그재그로 날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달에 도착했을 때에는 반경 800미터나 되는 착지점의 가장자리에서 몇 발 떨어지지 않은 곳에 간신히 착륙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도 목표를 정하고 산제물이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한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산제물의 문제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제물이기 때문에 가끔씩 제단에서 기어내려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의 궤도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만을 원하고 당신의 방법만을 원합니다.”

이렇듯 완전한 헌신은 필수적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승리하는 삶을 누리려면 그 다음 단계인 ‘생각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세상이 겪는 불행한 일들을 원치 않는다면 세상과 똑같이 생각해선 안 되겠지요. 빌립보서 4:8에서 읽었듯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의로운 것, 좋은 평판 등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 문설주에 달고 옷에도 달았습니다. 말씀이 항상 눈앞에 있도록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 얘기하면서 말씀이 명령하는 바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 앞에 두어야 합니다. 사랑스러운 것과 의로운 것 그리고 좋은 평판에 대해 생각하는 것의 반대는 하나님과 성령님에 관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8:6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의 영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생명이고 평안입니다. 그러나 불륜, 세상의 일들, 돈, 탐욕, 등을 생각하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 사람도 그러하기 때문에(잠 23:7) 생각한 것들을 행동에 옮기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삶이 파괴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진짜 영적전쟁은 항상 마귀를 대적하고 꾸짖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영적전쟁이란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리고 생각이 어디에 거하는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6:3은 생각이 주님께 고정된 자를 하나님께서 완전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우리 모두에게 궤도를 수정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새롭게 하고 사랑스러운 것, 의로운 것, 좋은 평판(소식)에 대해 생각할 것입니다.”

만일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거나 속박되어 있거나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즉시 사로잡으십시오. 성경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대적하면 원수는 우리에게서 도망칠 것입니다. 저 또한 생각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우울한 감정이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는 힘이 들어도 성경을 펴서 성경구절을 하나 취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당신이 말씀하시는 저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말씀하시는 저의 모습입니다. 당신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승리란 이렇게 단순하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내가 원수에게 허락해 왔던 일들을 이제 대적할 것이다. 나는 성경을 펴서 글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것이 당신이 말씀하시는 나의 정체성입니다. 당신은 제가 용서받았다고 하십니다. 당신은 제가 정결하다고 하십니다. 당신의 사랑에서 저를 끊을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하신 모든 일들을 생각하는 동안 당신을 괴롭혔던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전에 누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10분간 절대로 분홍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뒤로 10분간 모두가 분홍색 코끼리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자유의 여신상은 무슨 색이었죠?” 누군가 녹색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자유의 여신상이 어느 쪽 팔을 들고 있었나요?” 누군가 오른팔이라고 합니다. 그가 또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 여신상은 뭘 들고 있었죠?” 누군가

햇불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그 분홍색 코끼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졌죠. 여러분,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반드시 그 생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성경말씀은 그러한 생각들 대신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될 것들이 우리를 향해 올 때는 그 즉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 즉시 주님께로 달려가서 주님께 나를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 말의 뜻은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6은 우리가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영적인 것들에 고정 시킬 때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이 주는 변화를 경험할 것이라고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당신에게 주신 자유 안에서 행하게 될 것입니다.

### 제자되기 연습문제

1. 로마서 12:1을 읽어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2. 로마서 12:2을 읽어보세요. 이 구절은 우리가 \_\_\_\_\_ 과 달라야 한다고 합니다.
3. 사도행전 17:11을 읽어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무엇과 일치시켜야 합니까?
4. 로마서 8:5-6을 읽어보세요. 영의 생각(영적인 생각)은 \_\_\_\_\_입니다.
5. 로마서 12:1-2을 읽어보세요. 이 구절에 따르면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6. 이사야 26:3을 읽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완전한 평강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7. 이사야 26:3-4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주님께 생각을 고정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인용구절

(롬 12:1-2)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킹제임스 흠정역)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행 17:11/한글킹제임스) 베뢰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하므로

(롬 8:5-6)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 26:3-4/킹제임스 흠정역)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4)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 정답

1. 로마서 12:1을 읽어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2. 로마서 12:2을 읽어보세요. 이 구절은 우리가 \_\_\_\_\_과 달라야 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세대) 또는 불신자들
3. 사도행전 17:11을 읽어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무엇과 일치시켜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4. 로마서 8:5-6을 읽어보세요. 영의 생각(영적인 생각)은 \_\_\_\_\_입니다.  
생명과 평안
5. 로마서 12:1-2을 읽어보세요. 이 구절에 따르면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고 말씀에 맞춰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
6. 이사야 26:3을 읽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완전한 평강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생각을 주님께 고정하므로
7. 이사야 26:3-4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주님께 생각을 고정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도, 찬양, 말씀 묵상, 감사 등

## 레벨 2

### 제 4강

#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중요성

던 크로우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25입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먼저 질문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저는 콜로라도 주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한 지역교회에 제자삼는 전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성도들에게 설명한 뒤에 교회 밖으로 나가서 실제로 사용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 교회와 6주간 협력한 결과 이 교회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로 구성된 20개의 성경공부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뒤로 수개월간 우리는 이 성경공부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훈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저를 매우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성경말씀은 주님이 매일 매일 교회에 구원받은 자들을 더하신다고 했는데 이 성경공부 멤버들은 왜 교회로 나오지 않는 겁니까?”

우리가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 사역할 때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 훈련도 받았습니다. 우리의 섬김으로 신앙적 성장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그 목사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일요일에 이 교회 건물에 모이지 않는 겁니까?” 당시 교회에 대한 저의 개념도 완전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말이 저를 많이 혼란스럽게 했고 결과적으로 저도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제자삼는 전도 프로그램이 정말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걸까?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제자삼고 있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사람들이 왜 주일예배에 나오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를 공부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때 제가 발견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 바로 이 강의입니다.

로마서 16:3, 고린도전서 16:19, 골로새서 4:15, 빌레몬서 1:2, 사도행전 5:42, 사도행전 20:20에서 초대 교회가 누군가의 집에서 모였다고 말합니다. 저도 교회의 종류가 여러가지라는 것을 잘 압니다. 가정교회도 있고 성도 수가 적은 교회, 성도 수가 많은 교회, 그리고 엄청나게 큰 대형교회. 그러나 성경말씀 속에서 저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초대교회가 모일 때 적은 수의 사람들이 누군가의 집에서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로렌스 리처드즈(Lawrence Richards)가 쓴 ‘성구 강해 사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p164). “교회라는 단어는 너무나 많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 뜻에 대해 혼란스러울 수 있다. ‘교회’는 어떤 건물을 뜻하기도 한다(예; 4번가에 있는 교회). 어떤 교단이나 그들이 믿는 교리를 나타내기도 한다(예; 미국의 개신교 또는 침례교). 주일 모임을 뜻하기도 한다(예; “오늘 교회 갔다 오셨어요?”). 하지만 이 가운데 교회에 대한 그 어떤 정의도 성경적이지 않다.” 이것을 읽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뜻이란 말인가? “교회”라는 단어의 뜻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계속해서 ‘성구 강해 사전’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예배로 연결된 집단이라기보다 종교적 모임을 위한 건물이라고 생각하다 보니 교회의 정의가 잘못될 수 있다.”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이며 문자 그대로의 뜻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한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또 몇 가지 더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에클레시아는 다양한 수의 모임을 포괄한다. 가정집에서 만나는 소그룹일 수도 있고(롬 16:5) 큰 도시의 모든 믿는 자들을 일컫는 것이기도 하다(행 11:22). 또는 아시아, 갈라디아와 같이 지리적으로 큰 지역을 말하기도 한다. 전형적인 교회 모임은 가정집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집단이 모이면 모두가 찬양을 하고 지식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방언과 통변을 하기도 했다(고전 14:26). 어떤 사람들이 뭔가를 나누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조심스럽게 분별했다(고전 14:29). 이러한 나눔은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로 존재하도록 하는 데에 결정적인 요소였다. 모두가 참여해야 했고 자신의 영적 은사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했다.”

히브리서 10:25은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교회란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주님으로부터 나아갈 방향을 인도받기 위해, 또 그 방향을 따라가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주된 목적은 권면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음 위에 세워주려고 모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은 곳곳으로 퍼져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들이 회개하고 믿을 때 주님은 교회에 사람들을 더하셨습니다. 교회 건물에 사람들을 더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더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인 목적은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 성령의 은사를 나누기 위해, 서로를 섬기기 위해, 또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일 때면 자신이 가진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여 서로를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나가서 말씀을 전했고 이것을 또 반복하였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래서 함께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이는 장소는 상관없이 없었습니다. 어떤 건물에서 모이기도 했고 가정집에서 모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수가 모이기도 했고 가정집에서 적은 수가 모이기도 했습니다. 모이는 목적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여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권면하여 세워주기 위해 교제하는 것이라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장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언급한 제자삼는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 20개의 성경공부 모임으로 모였던 것은 20개의 교회로 모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아닐지라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 주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또 성령의 은사로 서로를 섬기기 위해 모인 “교회”가 일주일에 20번이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교회를 다니든, 교단에 속한 교회든, 초교파 교회든, 대형교회에서 모이든, 가정집에서 모이든 성경말씀은 그 날이 다가올수록, 죄가 더할수록 은혜는 더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은혜가 더해갈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일부를 맡아서 감당하는 교회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고 서로를 권면할 수 있고 자신의 영적인 은사로 서로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이는 모임이라면 모두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일 지라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라면 정기적으로 모여야 합니다. 서로 만나서 서로의 영적 은사를 사용하므로 서로를 권면하고 격려하고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교회에 대해 배울 것은 많습니다. 장로에 대해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알아야 하고 감독, 목사, 교회운영 등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겠지만 오늘 강의의 목적은 교회의 목적을 알아 외딴 섬에 떨어져 혼자 고립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즉 전 세계에 퍼져있는 믿는 자들의 모임에 넣어주십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은사로 서로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교회로서 모여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과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 제자되기 연습문제

1. 히브리서 10:25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폐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2. 사도행전 5:42을 읽어보세요.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_\_\_\_\_.
3. 사도행전 2:42을 읽어보세요. 초대교회에서 계속해서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4가지를 적어보세요.
4. 사도행전 2:44-45을 읽어보세요. 다음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초대교회는 건물을 짓기 위한 현금을 거뒀다.”
5. 고린도전서 12:28을 읽어보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8가지 은사를 적어보세요.
6. 고린도전서 14:26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로 모일 때, 자유롭게 은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만날 때 일어났던 5가지를 적어보세요.
7. 사도행전 6:1을 읽어보세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누구에게 음식을 나누었습니까(구제했습니까)?
8. 야고보서 1:27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종교는 무엇입니까?
9. 디모데전서 5:9-11을 읽어보세요. 초대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과부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10. 고린도전서 9:14을 읽어보세요. 교회가 지원했던 사람들 중에는 과부, 고아, 가난한 사람들 외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11. 마태복음 25:35-40을 읽어보세요. 사람들은 왜 교회 헌금 통에 헌금하는 것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12. 사도행전 4:32-35과 잠언 3:9-10을 읽어보세요. 초대교회의 장로와 목사들은 교회의 재정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 인용구절

(히 10:25/킹제임스 흠정역)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 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행 5:42/한글킹제임스) 그들이 성전에서나 각 가정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을 쉬지 않더라.

(행 2:42)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행 2:44-45)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고전 12:28)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고전 14:26)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행 6:1) 그 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므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약 1:27/한글킹제임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종교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아보는 것과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흠 없이 지키는 것이라.

(딤후 5:9-11/한글킹제임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수 있는 자는 육십 세 이하여서는 안되며, 한 남자의 아내였던 여인으로서 (10) 선한 행실에 대한 좋은 평판이 있어야 하리니, 곧 자녀를 양육하였거나, 나그네들을 대접하였거나, 성도들의 발을 씻겼거나,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하였거나, 모든 좋은 일을 좇아 행한 사람이라야 되리라. (11) 그러나 젊은 과부들은 거절하라. 이는 그들이 정욕이 강해지면 그리스도를 거슬러 혼인하고자 하리니

(고전 9:14)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마 25:35-40)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36)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37)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39)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40)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행 4:32-35)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3)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34)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잠 3:9-10)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0)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 정답

1. 히브리서 10:25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폐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이는 일

2. 사도행전 5:42을 읽어보세요.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고 전파했다.

3. 사도행전 2:42을 읽어보세요. 초대교회에서 계속해서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4가지를 적어보세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음식을 같이 먹으며 성찬식을 하는 것) 기도했다.

4. 사도행전 2:44-45을 읽어보세요. 다음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초대교회는 건물을 짓기 위한 헌금을 거뒀다.”

거짓

5. 고린도전서 12:28을 읽어보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8가지 은사를 적어보세요.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기적)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6. 고린도전서 14:26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로 모일 때, 자유롭게 은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만날 때 일어났던 5가지를 적어보세요.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7. 사도행전 6:1을 읽어보세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누구에게 음식을 나누었습니까(구제했습니까)?  
과부
8. 야고보서 1:27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종교는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9. 디모데전서 5:9-11을 읽어보세요. 초대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과부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육십 세 이하여서는 안 되며, 한 남자의 아내였던 여인으로서(한번 만 결혼했던 사람) 선한 행실에 대한 좋은 평판이 있어야 하리니, 곧 자녀를 양육하였거나, 나그네들을 대접하였거나, 성도들의 발을 씻겼거나,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하였거나, 모든 좋은 일을 좇아 행한 사람이라야 되리라. 그러나 젊은 과부들은 거절하라.
10. 고린도전서 9:14을 읽어보세요. 교회가 지원했던 사람들 중에는 과부, 고아, 가난한 사람들 외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복음(말씀)전하는 자들
11. 마태복음 25:35-40을 읽어보세요. 사람들은 왜 교회 헌금 통에 헌금하는 것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12. 사도행전 4:32-35과 잠언 3:9-10을 읽어보세요. 초대교회의 장로와 목사들은 교회의 재정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헌금을 통해 주님을 공경했다.

## 레벨2

### 제 5강

# 축사

## 던 크로우

오늘은 귀신론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은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역 1/4 정도는 사람들에게서 악한 영을 내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38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또 요한일서 3:8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킹제임스 흠정역)” 전에는 저도 귀신론에 대해 지금과는 다르게 생각했었습니다. 귀신, 악한 영, 더러운 영, 마귀, 등등 그것들을 뭐라고 부르던 간에 저는 이런 것들이 제 3세계 국가들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텍사스 주 댈러스의 한 교회에서 수년 전에 겪었던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모두가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한 여자아이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간질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마침 그곳에 의사가 한 분 있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교회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사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 의사는 이 여자아이를 그곳으로 데려가 진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집에 들어서자 이 여자아이는 성난 고양이같이 돌변했습니다! 동공은 확대되었고 굵은 남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40킬로 정도의 자그마한 십대소녀였는데 말입니다. 그러더니 저를 과격하게 공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지옥에 갈 거야!”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지옥에 가지 않아.” 일단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겁이 났습니다. 그 영이 또 말했습니다. “맞아, 너는 지옥에 갈 거야!” 제가 또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지옥에 가지 않아.” 그 영은 저보다 더 힘이 세고 권세가 있어보였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어린 여자아이 안에 있는 그 존재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 친구 중 하나는 너무 겁을 먹은 나머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그 여자아이에게겐 초자연적인 힘이 있었고 자신이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독일어 같은 말을 했으며 온갖 마귀적인 것들이 그 여자아이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귀신이 들렸던 것입니다. 제가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성경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어려서 드라큘라 영화를 봤을 때 느꼈던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드라큘라가 어떤 사람에게 다가올 때 갑자기 그 사람이 드라큘라를 향해 십자가를 꺼내들면 “으으으” 하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장면 말입니다. 제가 성경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능력을 끌어내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도 불구하고 경험이 전혀 없었던 제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셨습니다. 제가 성경을 열었는데 마침 빌립보서가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2:8-11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자 마귀가 말했습니다. “하지 마, 나는 그 말씀을 견딜 수 없어! 하지 마!” 저는 ‘옳거니!’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었습니다. “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 그러자 그 여자아이가 또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하지 마, 나는 그 말씀을 견딜 수 없어! 하지 마! 하지 마!”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오직 말씀을 읽은 것뿐인데 이 마귀는 이 여자아이 안에서 미칠 지경이구나.’ 그래서 저는 또 읽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또 다시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 마, 견딜 수 없어!” 그 귀신이 그 여자아이의 귀를 움켜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 마, 나는 그 말씀을 견딜 수 없어. 하지 마!” 마귀는 그 여자아이를 제 앞에 내동댕이쳤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습니다.”

조금 전만해도 그 마귀가 저보다 더 힘이 세고 권세 있어 보였습니다. 저를 때려눕히고 던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성경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펴서 읽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6:17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무기에는 공격용 무기가 있습니다. 원수를 찔러 상하게 하는 칼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마귀가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마 4:10)” 그 뒤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사탄아...기록되었으되”라고 반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검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 뒤에 마귀가 예수님을 잠시 동안 떠났다고 말합니다.

원수를 패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령의 검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경함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공부하려고 할 때 마다 배가 고프다는 생각, 그래서 뭇 좀 찾아 먹어야겠다는 생각, 또는 그날 미처 마무리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생각이 전부 다 떠오르곤 했습니다. 제자훈련 모임에 신청한 사람들도 오지 못할 온갖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마침내 왜 그런지 알게 된 것

입니다. 성경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고 마귀는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성경공부 모임이나 제자훈련 모임에는 마귀가 당신이 절대 모르기를 바라는 뭔가가 항상 있습니다. 당신이 그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마귀가 막으려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나라가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골로새서 1:13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당신은 어느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나라(kingdom, 왕국)란 누군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의 왕이십니다. 당신의 삶을 그분께 드렸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일들로 삶을 가득 채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눅 6:46)” 예수님은 당신의 삶에서 최우선순위를 원하십니다. 어둠의 나라는 그분이 최우선순위가 되는 것을 막고 있으며 당신의 삶을 다스리는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원수가 존재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의 이름은 사탄이며 마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말씀은 우리가 그보다 더 큰 권세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마 10:8)” 원수보다 더 큰 권세가 당신에게 있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가지신 계획을 의심하게 하는 원수마귀의 계략에 더 이상 넘어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당신의 삶의 주님으로, 최우선으로 삼으십시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 제자되기 연습문제

1. 에베소서 6:12을 읽어보세요. 이 구절은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을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2. 마가복음 16:17을 읽어보세요. 이 구절은 믿는 자의 권세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3. 야고보서 4:7을 읽어보세요. 마귀에게서 자유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4. 야고보서 1:14을 읽어보세요. 사탄은 악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보기 좋게 만들어서 우리를 미혹합니까?
5. 로마서 6:13을 읽어보세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로 채우면 마귀들은 불편해서 스스로 떠납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합니까?



6. 로마서 13:14을 읽어보세요. 마귀는 육신의 일을 먹고 삽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굶겨 쫓아내려면 하나님의 사랑과 정결함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어떤 것도 육신에 \_\_\_\_\_ 하면 안 됩니다.
7. 누가복음 10:17-19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마귀를 내 쫓아 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구절은 \_\_\_\_\_ 을 제어 할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고 합니다.

### 인용구절

(엡 6:12)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막 16:17/킹제임스 흠정역)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약 4:7/개역한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약 1:14)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롬 6:13/개역한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롬 13:14)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눅 10:17-19) 칠십 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18)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19)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 정답

1. 에베소서 6:12을 읽어보세요. 이 구절은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을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싸움
2. 마가복음 16:17을 읽어보세요. 이 구절은 믿는 자의 권세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

3. 야고보서 4:7을 읽어보세요. 마귀에게서 자유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한다.

4. 야고보서 1:14을 읽어보세요. 사탄은 악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보기 좋게 만들어서 우리를 미혹합니까?

우리의 욕심(정욕)을 이용하여 악한 것을 좋은 것으로 보이게 한다.

5. 로마서 6:13을 읽어보세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로 채우면 마귀들은 불편해서 스스로 떠납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합니까?

죄에 순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복하라. 너희의 지체(몸)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6. 로마서 13:14을 읽어보세요. 마귀는 육신의 일을 먹고 삽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굶겨 쫓아내려면

하나님의 사랑과 정결함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어떤 것도 육신에 \_\_\_\_\_ 하면 안 됩니다.

공급

7. 누가복음 10:17-19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마귀를 내 쫓아 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

습니다.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구절은 \_\_\_\_\_ 을 제어 할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고 합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



## 레벨 2

### 제 6강

# 믿는 자의 권세

앤드류 워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에 관해 얘기하려면 우리가 가진 권세뿐만 아니라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도 다루어야 합니다. 그동안 사탄은 너무 과대평가 되어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우리보다 더 능력 있는 존재와 싸우고 있으며 간신히 사탄과 겨루고 있다는 식으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성경말씀은 전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12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즉 사탄은 실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사탄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우두머리긴 하지만 바로 앞 구절인 11절에 보면 우리는 마귀의 계락을 대적하기 위해 일어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탄의 유일한 능력은 우리를 속이는 것뿐입니다. 사탄에게는 우리를 정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시험이 왔을 때 사탄은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로 오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맘모스나 코끼리에게 들어가 아담의 머리를 짓밟고 “나를 섬길래, 아니면 죽을래?”하면서 겁주지 못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에게 들어갑니다. “간교하다”라는 말은 “교묘하다, 속이다, 교활하다”라는 뜻입니다. 사탄이 뱀을 통해 접근한 이유는 속이는 것 외에 아담과 하와에게 강요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는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에 대해 비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진짜로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안주려고 감추는 게 있지.”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께 죄를 짓도록 했습니다. 권세를 가진 것은 아담과 하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항할 어떤 힘도 갖지 못했던 사탄은 그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꼭 전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는 자의 권세에 관한 것입니다. 사탄에게는 당신을 정복할 어떤 힘도, 어떤 권세도 없습니다. 그는 패배했습니다. 사탄이 가진 능력이란 오직 거짓과 속임수로 다가오는 것뿐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엉망이라면 이렇게 말하고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탄이 나에게 공격하고 있어서 그래요.” 하지만 사탄에게 명분을 주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의 거짓과 속임수에 반응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자리를 내어주지 않으면 사탄은 당신을 공격할 방법도, 능력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0:3-5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

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구절들은 전쟁의 무기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여기에 언급된 무기들은 모두 생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속임수를 제외하면 사탄은 당신에게 어떻게 할, 그 어떤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짧게 요약해서 설명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창세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 하나님뿐이었기에 모든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6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땅과…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말씀을 시편 115:16과 연결해 봅시다. “하늘은 여호와와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그 권한으로 모든 것의 주인이셨지만 이 땅을 다스릴 권세는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사탄은 한 번도 이 땅을 다스릴 자격이나 능력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인간을 속여 죄를 짓도록 함으로써 인간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빼앗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을 인류에게 주셨으나 인류가 타락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권세와 능력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인간을 억압하고 이 땅을 다스릴 능력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말씀이 이 세상 신은 사탄이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 세상 신으로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인류보다 높은 위치에 올려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는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사탄이 억압하고, 다스리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사탄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엄청난 문제를 가져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육체를 지닌 인간에게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몸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고 영향을 미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접근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권세를 그에게 넘겨주도록 미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려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성경말씀에 따르면 귀신들은 들어갈 몸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사용하여 역사할 물리적인 인간의 몸이 없으면 사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물리적인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권세를 넘겨주셨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는 하나님의 손이 묶인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능력과 권세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 권세를 넘겨주셨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 이건 아닌데. 잠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시면서 권세를 다시 가져가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어기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을 찾았지만 모든 인간이 타락하였고 사탄에게 항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을 이해하셨다면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마귀가 큰 문제에 빠진 것이지요. 그동안 사탄은 인간의 권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권세를 자의로, 또 법적으로 사탄에게 넘겨준 것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개입하실 수 없었습니다. 사탄이 나쁜 짓을 한 것은 맞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와 능력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은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제 영일 뿐 아니라 물리적인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권세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이 땅의 권세까지 가지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탄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 5:26-27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물리적인 육체에 관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받은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마귀에게 항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과 싸움에서 항상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죽으셨고, 지옥에 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18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권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은 그것을 오용했지만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으로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가서 이런 일을 하여라.” 요컨대 이런 말입니다. “이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이것을 너희와 함께 나누겠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인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신 그 권세에 독특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으로 소유한 권세라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듯이 우리에게 단독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권세를 내버릴 수 있었고 마귀에게 짓눌려 절망적인 상태에 이를 수도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의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공동명의 같은 것이라 매매하려면 두 사람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권세는 주 예수님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그분의 권세는 교회와 공유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절대로 이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사탄은 완전히 힘을 잃었습니다. 그는 당신을 속여서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들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항복하도록 속이는 것 외에는 당신의 삶에 그 어떤 일을 할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당신이 마귀에게 권세를 내어 주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를지는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권세는 마귀에게 완전히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 그 권세는 예수님과 공동 소유이며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신실함을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권세와 능력을 가진 것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당신의 생각을 장악하려 싸우고 있으며 당신의 무기는 그러한 생각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사탄이 물리적으로 나를 억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성경말씀이 치유에 관해 뭐라고 하는지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8:32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개역한글)”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신에게 주셨는데 아직 자신의 생각을 사로잡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 또 자신이 이미 가진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 이 영적인 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권세와 능력을 가진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큰 격려가 됩니다.

이 진리를 취하여 묵상하므로 사탄이 무서워 떠는 것은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세를 가진 것은 당신이므로 사탄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그는 도망갈 것입니다(약 4:7).

### 제자되기 연습문제

1. 창세기 3:1을 읽어보세요. 사탄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능력은 속이는 것 뿐입니다. 뱀(마귀)은 하와가 무엇을 의심하도록 미혹했습니까?
2. 창세기 3:1을 읽어보세요. 사탄은 왜 속이는 방법을 택했을까요?
3. 창세기 1:26, 28을 읽어보세요. 사람에게 권세를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4. 시편 8:4-8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5. 고린도후서 4:4을 읽어보세요. 이 구절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6. 마태복음 4:8-9을 읽어보세요. 이 구절은 사탄이 세상 신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까?
7. 마태복음 28:18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 하늘과 땅의 권세는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8. 마태복음 28:18-19을 읽어보세요. 이 구절에 따르면 이 권세는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9. 에베소서 1:19을 읽어보세요.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 인용구절

(창 3:1)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 1: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 1: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시 8:4-8)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5)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6)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7)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8)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고후 4:4)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 4:8-9)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 28:18-19)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엡 1:19/한글킹제임스)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 정답

1. 창세기 3:1을 읽어보세요. 사탄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능력은 속이는 것 뿐입니다. 뱀(마귀)은 하와가 무엇을 의심하도록 미혹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2. 창세기 3:1을 읽어보세요. 사탄은 왜 속이는 방법을 택했을까요?  
힘으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권세를 포기하도록 속여야만 했다.
3. 창세기 1:26, 28을 읽어보세요. 사람에게 권세를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4. 시편 8:4-8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아래 두셨다.
5. 고린도후서 4:4을 읽어보세요. 이 구절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탄이 사람의 권세를 취하여 이 세상(이 세상 시스템 또는 이 세대)의 신이 되었다.

6. 마태복음 4:8-9을 읽어보세요. 이 구절은 사탄이 세상 신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까?

네

7. 마태복음 28:18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 하늘과 땅의 권세는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예수님

8. 마태복음 28:18-19을 읽어보세요. 이 구절에 따르면 이 권세는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믿는 자들

9. 에베소서 1:19을 읽어보세요.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믿는 우리



## 레벨 2

### 제 7강

# 구원 안에 속해 있는 치유

앤드류 워맥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치유의 값을 이미 다 치르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서 가르치실 때 지붕을 뜯고 친구들에 의해 내려진 중풍병자를 기적적으로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14-16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 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리고 17절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는데 본문은 이사야 53:3-5을 특정하여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주 예수 그리스도/저자 주]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구절들은 매우 능력 있는 말씀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만요, 이것은 영적인 치유를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성장한 교회에서도 몸의 치유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항상 영적으로 해석했지요. 우리가 상한 것은 감정적인 부분이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헌신할 때, 주께서 우리의 감정을 치유해 주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을 비교해보면 이사야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감정과 그 외에 다른 영역들을 치유해 주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구절들은 분명히 몸의 치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17의 치유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셨다는 이사야의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것은 신체의 고통, 상처, 질병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채찍을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성경구절을 성취하시기 위해 사람들의 육체를 치유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24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게다가 이 구절은 과거시제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몸을 치유하

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요합니다. 죄의 용서는 그 외에 모든 것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직 죄의 용서만을 위해 오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헬라어로 “구원”은 소조(SOZO)입니다. 소조는 많은 뜻을 가진 단어이며 “치유 받은”이라는 뜻으로도 번역되었습니다. 야고보서 5:14-15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기 “구원하리니”가 바로 헬라어로 소조(SOZO)이며 병든 자의 몸이 치유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가 신약에서 수백 번 ‘죄의 용서’로 번역되었고 ‘치유’로도 번역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깨끗케 하며, 죽은 자를 살리고, 마귀를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 하시면서 같은 문장에서 병든 자도 고치고, 문둥병자도 깨끗케 하며, 죽은 자도 살리고, 마귀도 쫓아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듯이 당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죄를 통해 뭔가를 가르치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다들 아는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절대 우리가 질병을 가지고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겪는 질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질병은 사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이켰거든요.” 인생의 역경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뭔가를 가르치시기 위해 질병을 보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죄 짓게 하지 않으시듯 우리에게 질병을 보내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어디 가서 죄를 지은 후, 뭔가를 배우기도 하나요? 불륜이나 동성애로 성병에 걸린다면 그런 방식의 삶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도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런 죄를 짓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니지만 죄를 통해 뭔가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벽에 머리를 박고 나서 그렇게 하면 아프다는 것을 깨달을 수는 있지만 꼭 자기 머리를 벽에다가 박아봐야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당신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뭔가를 가르치시려고 질병을 보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그의 몸에 짊어지셨고 그가 채찍을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신성한 치유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값을 치르신 구속사역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치유를 거절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화를 내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꼭 치유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유를 받지 않아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천국에 가는 것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실, 건강 가운데 거하는 법을 모르니 더 빨리 천국에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유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려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 제자되기 연습문제

1. 마태복음 8:16-17을 읽어 보세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2. 이사야 53:3-5을 읽어보세요. 어떤 종류의 치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3. 마태복음 8:17을 읽어 보세요.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4. 베드로전서 2:24을 읽어보세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하신 두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5. 야고보서 5:14-15를 읽어보세요. 15절에 “구원하리니”의 헬라어 원어는 소조(SOZO)로, “구원하다, 보호하다, 치유하다, 보존하다, 온전케 하다”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구절과 “구원”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의 정의에 따르면 구원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6. 마태복음 10:7을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무엇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까?
7. 마태복음 10:8을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8. 마가복음 16:15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9. 마가복음 16:16을 읽어보세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10. 마가복음 16:17을 읽어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표적이 따릅니까?
11. 마가복음 16:18을 읽어보세요. 그 외에 어떤 표적이 따릅니까?

### 인용구절

(마 8:16-17/킹제임스 흠정역) 저녁이 되매 그들이 마귀 들린 많은 자들을 그분께 데려오거늘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그 영들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쳐 주시니 (17)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도다, 하였느니라.

(사 53:3-5/한글킹제임스)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4)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

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5)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벧전 2:24)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약 5:14-15)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마 10:7-8/한글킹제임스) 가서 전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8) 병든 자들을 고쳐 주고, 문둥병자들을 깨끗케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 쫓으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어라.

(막 16:15-18)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 정답

1. 마태복음 8:16-17을 읽어 보세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예수님께 나아온 자들 모두
2. 이사야 53:3-5을 읽어보세요. 어떤 종류의 치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종류의 치유(몸의 치유 포함)
3. 마태복음 8:17을 읽어 보세요.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
4. 베드로전서 2:24을 읽어보세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두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짊어지셨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움(치유)을 얻었다.
5. 야고보서 5:14-15를 읽어보세요. 15절에 “구원하리니”의 헬라어 원어는 소조(SOZO)로, “구원하다, 보호하다, 치유하다, 보존하다, 온전케 하다”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구절과 “구원”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의 정의에 따르면 구원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치유

6. 마태복음 10:7을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무엇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7. 마태복음 10:8을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병든 자들을 고쳐 주고, 문둥병자들을 깨끗케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 쫓으라.
8. 마가복음 16:15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은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9. 마가복음 16:16을 읽어보세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믿고 침례를 받는다.
10. 마가복음 16:17을 읽어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표적이 따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마귀)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
11. 마가복음 16:18을 읽어보세요. 그 외에 어떤 표적이 따릅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 레벨 2

### 제 8강

# 치유의 장애물

앤드류 워맥

지난 강에서는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며 구속사역의 일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성경구절을 확인한 후에도 많은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사람들이 다 치유 받지 못한 걸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아는 것에 한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것들을 전부 다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못하겠지만 치유가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치유 받지 못하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무지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 또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실행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배웠습니다. 나에게는 권세도, 능력도 없다고 믿도록 훈련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저의 무지로 인해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열두 살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제 나이 스무 살이 채 되기도 전에 제가 보는 앞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두세 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 모두를 위해 기도했지만 그들은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가 아닙니다. 저의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무지가 치유를 막는 주요 원인인긴 하지만 그렇다고 무지를 변명거리로 삼아서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중력을 탓하는 것과 같습니다. “10층 건물에서 뛰어 내리면 죽는다는 걸 나는 몰랐다니까요.”라고 말합니다. 중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기 위해 꼭 10층 건물에서 뛰어내려 볼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칙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는 그 무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치유를 막는 다른 하나는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말을 ‘모든 질병은 전부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라고 잘못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질병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실 때,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 대해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즉 그들은 이 사람의 질병을 죄와 직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 그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그의 부모가 저지른 죄 때문인지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소경과 그의 부모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가 소경이 된 직접적인 원인이 그들의 죄 때문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죄는 절대로 질병의 원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한 사람을 초자연적으로 치유하십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단 한 명만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치유 받은 그 남자가 차후 유대인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을 보면 그 남자는 누가 자기를 치유했는지도 몰랐습니다. 12-14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죄는 중풍병보다 더 심한 것이 생기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질병의 원인을 죄와 연관시키신 것입니다. 반면 요한복음 9장의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인 것은 그 어떤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일은 자연적인 결과지만 어떤 경우에는 질병이나 삶의 문제들이 죄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 해도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를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자연의 이치를 거스른 행위입니다. 인간의 몸은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다. 성병은 잘못된 성관계를 통해 옵니다. 그러한 질병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 몸이 그렇게 해도 관참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의 이치가 반항을 하는 것입니다. 몸에 나쁜 음식을 먹는다면 몸이 반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자연의 법칙이고 자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삶에 분명한 죄가 있는데 동시에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그 죄를 멈춰야 합니다. 왜냐면 그 죄를 통해 사탄에게 문이 열리고 그 결과 사탄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치유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16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것은 사탄이 주인이 되고 우리는 구원을 잃어 지옥에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사탄에게 문을 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0:10은 도둑이 오는 이유는 오직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건강을 주려고 하시며 동시에 사탄은 우리를 병들게 하려고 합니다. 죄를 통해 사탄에게 순복하면 그에게 권세를 내어주어 내 삶에 기회를 내주는 꼴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께 치유해 달라고 기도를 해도 행동으로는 마귀가 질병을 가져오도록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당신이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것을 멈춰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내성적이어서 “나는 항상 부족해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은 믿지만 자격 없는 자신에게는 치유를 베풀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것도 분명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누구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치유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과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 근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무지하여서 자신을 마귀에게 내어주고 마귀로 하여금 나를 방해하게 허락해서도 안 됩니다. 죄를 회개함으로써 사탄에게 열린 문을 닫으면 치유가 훨씬 더 쉽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지나치는 또 한 가지 요소는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입니다. 이것에 대한 좋은 예는 마가복음 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모 형제를 잘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마가복음 6:4-6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행하실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었고 또 예수님의 믿음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물론 죄로 인해 사탄에게 열린 문도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심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제한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3:58과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무런 한계를 갖지 않으신 예수님, 죄로 인해 사탄에게 열린 문도 없으셨던 분께서 주변 사람들 때문에 제한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병원으로 달려가 모든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모두를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치유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뜻을 거슬러 역사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플 권리, 치유 받지 않을 권리도 지켜주십니다. 아무도 그들을 억지로 치유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믿음으로 치유 받을 수도 없습니다. 치유를 받고는 싶는데 힘들어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누군가의 믿음이 그들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믿음을 대신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가 중립에 있다면 뒤에서 미는 것이 의미 있습니다만 기아가 후진이나 주차로 되어 있다면 밀어봐야 소용없듯이 말입니다. 본인이 자신의 치유를 막고 있다면 아무도 그것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헛수고이며 교회 치유 집회에서도 당사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할 것이 많지만 지면의 한계가 있어 아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실 때도 그 사람의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눅 7:13)고 하셨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울지 않으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리셨습니다. 당사자는 이미 죽었으니 또 다른 누군가의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 쪽의 믿음을 포함하여 치유에는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몇 가지만 다뤘을 뿐이지만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



랍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치유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하나님과 협력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해 주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은 우리 내면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눈 것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건강 가운데에서 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제자되기 연습문제

1. 마태복음 8:17을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2. 호세아 4:6을 읽어보세요. 치유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 A. 지식이 없어서
  - B. 교회에 다니지 않아서
  - C. 죄가 많아서
3. 요한복음 9:1-3을 읽어보세요. 제자들은 이 남자가 왜 보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까? 그 생각은 옳았습니까?
4. 요한복음 5:14을 읽어보세요. 죄는 질병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지만 항상 질병만 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 외에 또 어떤 것을 야기할 수 있습니까?(롬 6:23 참고)
5. 로마서 5:12-14을 읽어보세요. 항상 죄 때문에 질병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 또 어떤 원인이 있겠습니까?
6. 사도행전 10:38을 읽어보세요. 이 구절에 따르면 질병의 또 다른 원인은 무엇입니까?
7. 마태복음 13:58을 읽어보세요. 치유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8. 야고보서 5:15을 읽어보세요. 병든 자를 구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인용구절

(마 8:17/킹제임스 흠정역)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도다, 하였느니라.

(호 4:6)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요 9:1-3)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신지라 (2)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3)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 내고자 하심이라

(요 5:14/한글킹제임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네가 나았도다. 더 악한 일이 네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더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더라.

(롬 6:23)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롬 5:12-14)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 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3)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14)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행 10:38)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마 13:58)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약 5:15)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 정답

1. 마태복음 8:17을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2. 호세아 4:6을 읽어보세요. 치유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A. 지식이 없어서
3. 요한복음 9:1-3을 읽어보세요. 제자들은 이 남자가 왜 보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까? 그 생각은 옳았습니까?  
죄 때문에, 아니요
4. 요한복음 5:14을 읽어보세요. 죄는 질병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지만 항상 질병만 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 외에 또 어떤 것을 야기할 수 있습니까?(롬 6:23 참고)  
질병 외에 더 악한 일들. 사망까지 올 수 있다.
5. 로마서 5:12-14을 읽어보세요. 항상 죄 때문에 질병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 또 어떤 원인이 있겠습니까?  
타락(창 3장).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죄와 질병을 가져왔다.
6. 사도행전 10:38을 읽어보세요. 이 구절에 따르면 질병의 또 다른 원인은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눌림
7. 마태복음 13:58을 읽어보세요. 치유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신(믿지 않음)
8. 야고보서 5:15을 읽어보세요. 병든 자를 구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도

## 레벨 2

### 제 9강

# 용서

## 던 크로우

마태복음 18:21-22입니다. “그 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는 자신에게 죄 지은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하는지 물으면서 자신이 꽤나 관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루에 일곱 번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베드로야, 일곱 번 말고 일흔 번씩 일곱 번 용서하여라.” 그러면 490번입니다. 490번 용서하라는 것은 491번 째 부터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게다가 한 사람이 하루에 490번이나 용서할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용서는 계속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3:34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또한 사도행전 7:60에 스테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용서를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자세는 항상 용서하고자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용서에 관한 예화를 드셨습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한화 100억 이상/저자 주]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주인에게 100억이 넘는 돈을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이 돈을 다 갚을 길은 없습니다. 이 종도 그것을 알고 주인도 그것을 압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파산신고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거나, 아내, 또는 자녀 그리고 모든 소유를 팔아 노예가 되는 것 밖에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평생 감옥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긍휼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주인님, 제발 기다려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꼭 갚을 테니 기다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27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십시오. 주인이 긍휼한 마음이 들어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롬 6:23). 사망은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금과 은을 다 합해도 우리의 빚을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긍휼과 은혜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고 빚을 탕감한다.”

100억이 넘는 돈을 방금 탕감 받은 이 남자는 동료에게 받을 돈이 2만 원정도 있었습니다. “내가 방금 100억 넘게 탕감 받았는데 2만원이 뭐라고? 내가 탕감 받았듯이 자네도 탕감해 주겠네. 그냥 잊어버리게. 나는 100억 넘게 탕감 받았으니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이 남자가 그 동료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28-31절에 그 남자가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100억이 넘는 돈을 탕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단돈 2만원 때문에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32-34절입니다. “그때에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오 악한 종아, 네가 내게 애걸하기에 내가 네게 네 빚을 전부 용서해 주었은즉 내가 너를 가엽게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그의 주인이 노하여 그가 자기에게 진 빚을 다 갚기까지 그를 형벌 주는 자들에게 넘겨주었느니라(킹제임스 흠정역)” 그리고 이 남자는 감옥에 던져집니다. 자기 동료를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용서도 상실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사망이라는 죄의 값을 용서받고서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서 용서를 받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저지른 아주 작은 일을 용서 못할 큰일 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다고 하십니다.

제가 목회했던 교회 성도들 중에 장래의 일을 보는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한번은 그 자매가 저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저는 누가 언제 죽을지, 언제 차사고가 날지, 그런 것을 아는데요, 이것을 저에게 말해주고 보여주는 영은 성령님이신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답이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그 영은 성령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점치는 영인 것 같네요. 그 영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고 끝내 바울은 그 영을 꾸짖어 그 여종에게서 떠나라고 했지요. 그러자 그 여종이 그 능력을 잃어버렸고요. 당신에게 말하는 영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내가 거듭나지도 않았을 때부터 나에게 이런 정보를 주는 것은 성령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영입니까?’라고 말입니다.” 어느 날 그 자매는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 얘기해 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이 괜찮다고 하셨다면 괜찮겠지요. 저는 예수님이 아니니까요.”

이 일은 1986년 초에 있었던 일인데 그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챌린저라는 우주선에 8명이 탔었습니다. 그 중에 한명은 여교사였습니다. 미래 일을 맞춘다던 그 자매가 TV를 보고 있었는데 TV에 나온 그 여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나는 챌린저호에 오릅니다.” 그런데 그 영이 이렇게 말했다

고 합니다. “저 여자는 죽을 거야, 저 여자는 죽을 거야.” 다음날, 챌린저호는 발사되자마자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폭발했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자매는 저에게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던 목사님, 저에게 정보를 주며 말하던 영은 성령님이 아니신 것 같아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그날 밤 예배를 마치고 모두가 떠난 후에 기도했습니다. “더러운 점치는 영아, 이 자매에게서 나와!”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러운 영을 쫓으려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나에게로 데리고 오라”고 하신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없으니 이 자매를 주님께 데리고 갑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그때 제 아내가 함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아내에게 지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매님의 엄마와 관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용서하세요.” 그 순간 그 자매 안에서 한 음성이 소리쳤습니다. “싫어! 엄마는 나를 버렸어!”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이 더러운 영아, 내가 너를 묶는다.” 그리고 그 자매에게 엄마를 용서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자매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엄마를 용서하고 마음에서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용서하기로 선택함으로써 이 문제를 보내버릴 수 있었고 그 결과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의 비유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하늘 아버지로부터 이러한 큰 용서를 받은 후에 마음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형벌을 주는 자들에게 넘겨집니다. 형벌이 무엇입니까? 마귀적인 견고한 진, 억압, 질병, 우울, 그 외에 많은 것들입니다. 그 뿌리는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고도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우리 삶에 들어올 틈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용서하기로 선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마 6:9-11)을 통해 우리가 용서 받았듯이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25-26은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대적하는 마음이 있으면 먼저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킹제임스 흠정역 참고/역자 주).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용서치 못하는 마음은 우리 마음에 언제까지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갈 때까지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다른 이들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용서하며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을 오늘 제 마음에서 보냅니다. 그들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저를 놀랍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저도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이것을 읽는 분들 중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상처를 준 그 사람들을 마음에서 보내는 결정을 통해 그 사람들이 살아 있든 아니면 이미 죽었든 상관없이 그들을 용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당신의 능력과 은혜로 치유 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 제자되기 연습문제

1. 마태복음 18:21을 읽어보세요. 베드로는 몇 번 용서하겠다고 했습니까?
2. 마태복음 18:22을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서는 몇 번 용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3. 마태복음 18:23-24을 읽어보세요.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습니까?
4. 마태복음 18:25을 읽어보세요. 당시에는 파산 신고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은 어떻게 될 형편입니까?
5. 마태복음 18:26을 읽어보세요. 이 종은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주인이 기다려 주면 이 종은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을까요?
6. 마태복음 18:27을 읽어보세요. 주인은 이 종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빚(죄)에 대해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7. 마태복음 18:28을 읽어보세요. 용서받은 종의 동료는 이 종에게 얼마를 빚졌습니까?
8. 마태복음 18:28을 읽어보세요. 이 종은 자신의 동료에게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9. 마태복음 18:29-30을 읽어보세요. 이 종은 자신의 동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10. 마태복음 18:31-33을 읽어보세요. 주인은 용서하지 않는 이 종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11. 마태복음 18:33을 읽어보세요. 주인은 이 종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12. 마태복음 18:34을 읽어보세요. 주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3. 마태복음 18:34을 읽어보세요. 용서하지 않은 이 종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자신이 받은 용서를 상실하게 되었습니까?
14. 마태복음 18:35을 읽어보세요. 이 비유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 인용구절

(마 18:21-27) 그 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  
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22)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  
까지라도 할지니라 (23)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24)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25)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  
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26)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  
늘 (27)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마 18:28-35)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29)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30) 허락  
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31)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32)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34)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 너희가 각각 마음으  
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 정답

1. 마태복음 18:21을 읽어보세요. 베드로는 몇 번 용서하겠다고 했습니까?

일곱 번

2. 마태복음 18:22을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서는 몇 번 용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일곱 번씩 일흔 번(490번 혹은 무한히)

3. 마태복음 18:23-24을 읽어보세요.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습니까?

만 달란트(100억, 절대 갚을 수 없는 액수)

4. 마태복음 18:25을 읽어보세요. 당시에는 파산 신고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은 어떻게 될 형편  
입니까?

그 자신과 아내와 자식들은 노예로 팔려가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빚을 갚아야 할 상황이다.

5. 마태복음 18:26을 읽어보세요. 이 종은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다 갚을 테니, 참아 달라

주인이 기다려 주면 이 종은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6. 마태복음 18:27을 읽어보세요. 주인은 이 종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공홀과 용서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빛(죄)에 대해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우리를 공홀히 여기시고 죄를 용서하셨다.

7. 마태복음 18:28을 읽어보세요. 용서받은 종의 동료는 이 종에게 얼마를 빚졌습니까?

백 데나리온(하루 일당)

8. 마태복음 18:28을 읽어보세요. 이 종은 자신의 동료에게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참아주지 않고 폭력적이었으며 용서하지 않는 모습

9. 마태복음 18:29-30을 읽어보세요. 이 종은 자신의 동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 안 되는 그 빚을 갚을 때 까지 옥에 가두었다.

10. 마태복음 18:31-33을 읽어보세요. 주인은 용서하지 않는 이 종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악한 종

11. 마태복음 18:33을 읽어보세요. 주인은 이 종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 준 것처럼 그 종도 그의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한다.

그의 동료를 놓아주고 용서해 주어야 한다.

12. 마태복음 18:34을 읽어보세요. 주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노했다.

13. 마태복음 18:34을 읽어보세요. 용서하지 않은 이 종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자신이 받은 용서를 상실하게 되었습니까?

네

14. 마태복음 18:35을 읽어보세요. 이 비유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 레벨 2

### 제 10강

# 결혼생활 1

던 크로우

오늘은 결혼생활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한 부부의 75%가 상담이 필요한 상태라고 합니다. 두 부부 중에 한 부부는 결국 이혼을 하고 둘 중에 한 명의 배우자가 5년 내에 불륜을 저지를 확률도 50%라고 합니다. 교계에서도 30% 이상의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서의 부적절한 관계에 연루된다고 합니다. 이 통계가 조금이라도 맞는다면 우리는 말씀의 원리를 깨닫지 못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 대한 주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의 결혼생활을 더 튼튼하게 해 주는 방법을 배워봅시다.

결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18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창세기 1:31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아담과 교제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서늘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교제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완벽한 관계를 가진다면 다른 것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만드신 피조물들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 1:31)고 하셨는데 첫 번째로 “좋지 않다”고 하신 것이 창세기 2:18에 나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즉 결혼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만든 것으로 그가 경험할지도 모를 외로움을 대비해 돕는 배필을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지킨다면 결혼은 불행이 아닌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결혼에 대해 직접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창세기 2:24부터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은 모든 관계를 떠나 삶을 다시 조정하여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마치 삼위일체와 같이 셋이 하나가 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관계 안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을 때 그것은 아담과 하나님만의 관계도 아니었고 하와와 하나님만의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어 하나의 목적 아래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7입니다. “남편들이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창세기 5:1-2도 놀라운 구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그분께서 그들



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아담’은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뜻이며 개역개정에는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음/역자 주)이라 부르시니라(킹제임스 흠정역)” 아담은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한꺼번에 아담이라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과 나, 또는 하나님과 저 배우자가 아니라 나와 내 배우자가 하나가 되어 은혜를 따라 생명의 공동 상속자가 되며 하나님을 섬기는 부르심을 받아 하나 됨과 연합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창세기 2:24은 남자가 그의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합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목적을 위해 하나가 되려고 달라붙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당신의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나, 배우자에게 행동하는 방식이나, 배우자에게 하는 말이 서로가 하나 되도록 가까이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틈이 생기게 하여 분리시키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부부관계에 명령하는 바는 서로 달라붙기 위해 합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부부관계를 세워줍니까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이런 점들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이 단지 감정적인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당신을 사랑했지만 지금은 사랑이 식었어.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당신이 역기능 가정 출신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결혼식을 올립니다. 당신의 인생을 상대방에게 바치겠다고 맹세합니다.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라온 가정은 역기능 가정이었기 때문에 사랑을 보지도 못했고 어떻게 표현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따뜻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당신의 배우자는 사랑을 많이 표현하는 가정에서 성장했는데 당신은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른다면 그 결혼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의 인생을 바치겠다고 맹세한 상대방을 아무리 사랑하기 원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역기능적인데다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경험해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 결혼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몇 년 내에 상담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할 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잘 맞지 않아요. 제 배우자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저에게 당신을 위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냉장고를 새로 샀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사용설명서를 읽어보겠지요. 사용설명서에는 뭐가 잘못된 것인지 알려주거나 서비스센터 번호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부부관계에 관한 사용설명서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디도서 2:4은 사랑이란 가르칠 수 있는 것이며 배울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역기능 가정 출신이라 배우자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잘 모른다고 해도? 그래서 결혼이 망가져 가고 있다고 해도-걱정할 필요가 없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3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고, 친절과 관용을 보여주셨고, 상대방의 유익을 추구하는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상황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은 결혼이라는 주제에 관한 서론입니다. 계속해서 공부해 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주제에 더 깊이 들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 제자되기 연습문제

1. 에베소서 5:31-32을 읽어보세요. 31절은 창세기 2:24을 인용한 것입니다. 32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2. 야고보서 4:4-5을 읽어보세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3. 베드로전서 3:7을 읽어보세요. 아내와 남편이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요한복음 15:5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삶의 주인이 아닌데도 결혼생활이 형통할 수 있습니까?
5. 디도서 2:4을 읽어보세요.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닙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가능합니까?
6. 요한일서 5:3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_\_\_\_\_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7. 마태복음 7:12을 읽어보세요.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그 이유는 서로가 또는 둘 중에 하나가 \_\_\_\_\_ 안에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8. 고린도전서 13:4을 읽어보세요. 사랑은 어떠한다고 합니까?
  - A. 감정이다
  - B. 따뜻한 느낌이다
  - C. 온유하다

### 인용구절

(엡 5:31-32)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약 4:4-5) 간음한 여인들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5)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벧전 3:7)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 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요 15: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딤후 2:4/킹제임스 흠정역)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고

(요일 5:3)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마 7:1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고전 13:4)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 정답

1. 에베소서 5:31-32을 읽어보세요. 31절은 창세기 2:24을 인용한 것입니다. 32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혼인관계와도 같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2. 야고보서 4:4-5을 읽어보세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성령이 시기하기 까지 우리를 사모하신다.
3. 베드로전서 3:7을 읽어보세요. 아내와 남편이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4. 요한복음 15:5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삶의 주인이 아닌데도 결혼생활이 형통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5. 디도서 2:4을 읽어보세요.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닙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가능합니까?

네

6. 요한일서 5:3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_\_\_\_\_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

7. 마태복음 7:12을 읽어보세요.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그 이유는 서로가 또는 둘 중에 하나가 \_\_\_\_\_ 안에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

8. 고린도전서 13:4을 읽어보세요. 사랑은 어떠한다고 합니까?

C. 온유하다

## 레벨 2

### 제 11강

# 결혼생활 2

던 크로우

오늘은 결혼이라는 주제에 관해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결혼을 설계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결혼은 둘이 합하는 것,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연합입니다. 창세기 2:24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 그러나 결혼이란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6:15-16은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결혼에 대해 언급한 창세기 2:24을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 성관계를 통해 창녀와 합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아내와 이혼이 되고 그 창녀와 결혼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혼은 무엇일까요? 결혼이 하나 됨이라면, 서로 연합하는 것이라면, 한 몸이 되는 것이라면, 창녀와 합하는 것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물론 창녀와 성관계를 가지면 그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성경말씀이 결혼을 하나 됨, 연합, 둘이 합하는 것이라 말하지만 결혼 안에는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결혼은 언약을 통해 둘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리스(berith)인데 둘을 묶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그 한 사람에게만 헌신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창녀와 합하는 것은 악한 죄이며 그 행위에는 상대 창녀에 대한 어떠한 헌신의 결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의 정수는 첫째로 다른 모든 사람을 버린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창세기에서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해야 한다고 했고 에스겔은 이것을 “네가 내 것이 되었느니라(겔 16:8/킹제임스 흠정역)”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이란 한 사람을 위해 다른 모든 사람을 버린다는 뜻이 됩니다. 그 한 사람에게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 그것은 언약과 헌신을 통해 오는 결혼의 원칙인 하나 됨과 연합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에스겔 16:8은 이것을 결혼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도 결혼에 관해 배울 수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합니다. 바로 사랑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언약인 이유는 결혼생활의 주된 원칙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보다 사랑이 결혼생활의 주된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결혼은 하나 됨의 언약입니다. 베드로전서 3:7에서는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더 연합한 그릇으로 알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는 공동 상속자로 여기지 않으면 그 남자의 기도는 막힌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대로 하나 됨의 조화 속에서 결혼생활을 하지 않으면 남자들의 영적 생활이 방해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잠언 2:16-17은 결혼의 언약과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린 음녀에 관해 말하

고 있습니다. 또 결혼은 하나님의 언약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결혼은 한 사람과 맺는 언약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맺는 언약이기도 합니다. 제가 저의 사역을 귀하게 생각하긴 해도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제가 결혼생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결혼이란 나의 삶을 배우자에게 맞추는 것이며 결혼관계에서는 사랑이 주된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12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또한 결혼생활에 적용해야 할 원리이기도 합니다. 결혼을 이기적인 이유로 해서는 안 되며 결혼은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4을 보면 사랑은 친절하다고 합니다. 즉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며 상대에게 너그럽고 친절하며 항상 상대의 최선을 구하는 것입니다. 결혼이 그렇게 설계된 이유는 우리의 부부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표본을 보여주는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모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주님의 영원한 관계가 실제로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기를 원하셔서 그것의 모델로써 우리가 훌륭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도록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만 유지됩니다. 한시적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부활 때가 되면 결혼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혼에 대한 좋은 모델을 알고 있기를 바라십니다. 사랑이 원칙이 되고 이타적으로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 원칙이 되는 결혼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나와서 결혼 관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이해하기 바란다. 그것은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며 몇 년 만 지속되다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나와서 관계는 영원하며 나의 모든 사랑은 영원히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결혼생활의 원칙에 대해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유하여 말하자면, 결혼은 단순한 동업이 아닌 합병입니다. 창세기 4장은 그것을 ‘아는 것’으로 표현했고 베드로전서 3:7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 받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결혼은 언약입니다. 즉 함께 묶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헌신이 요구됩니다. 죄가 가장 먼저 들어간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결혼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에 관한 사용설명서를 읽고 사랑의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랑이 뭔가요?” 사랑의 정의는 한 마디로 이타심입니다. 이사야 53:6은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관계에서 우리는 배우자에게 집중해야 하며 배우자의 유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에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남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즉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앞서서 자기 손을 잡고 자기 어깨를 두드려 주며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고 음식을 먹고 자기를 돌보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며 아내의 단점을 공개적으로 떠벌려서도 안 됩니다. 공개적으로 아내를 놀린다던지 아내에게 상처가 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됩니다. 남편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올려드리면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감사하지 않은 것이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배우자를 감사하지 못하고 무시했다면 성경은 그것을 이기적인 것이며 죄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말씀을 통해 물로 씻어 깨끗케 하셨다고 합니다. 배우자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배우자는 내가 선포하는 말씀의 수준까지 일어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은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네, 못생긴데다 똥똥해.”라고 한다면 당신은 자신의 결혼생활을 힘들게 하는 것이며 하나 됨이 아니라 분리를 야기하고 배우자로부터 자신을 소외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친절할 말을 하면서 “여보,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감사해요. 당신이 있어서 너무 좋고 당신을 사랑해요.”라고 하며 행동으로 그 말을 증명한다면 당신의 배우자는 그 말의 수준까지 올라올 것입니다.

부부관계의 많은 문제가 당신이 내뱉은 말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배우자를 높여주기 보다는 깎아 뭉개왔습니까? 오늘부터는 배우자에게 좋은 말로 격려를 해주기 바랍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과 상관없이 상대방의 안녕과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친절할 행동을 시작해 보세요. 나무로 만든 가구에는 여러 번의 페인트칠이 필요하듯이 사랑도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작은 행동과 작은 친절이 하나하나 모여서 말입니다. 배우자에게 높여주는 말, 존중하는 말, 가치 있게 여기는 말, 사랑의 말을 시작하십시오.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원리를 적용해 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 제자되기 연습문제

1. 잠언 18:22을 읽어보세요. 다음 중 결혼을 바르게 표현한 것을 전부 골라보세요.
  - A. 결혼은 복을 받는 것이다.
  - B. 결혼은 미친 짓이다.
  - C. 결혼은 주의 은총이다.
2. 히브리서 13:4을 읽어보세요. 결혼관계 안에서의 성관계는 어떠합니까?
  - A. 죄 짓는 것이다.
  - B. 더럽고 악하다.
  - C. 깨끗하다
3. 전도서 9:9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적인 결혼관계는 주님께서 이 생애 주신 선물이며 보상입니까?
4. 요한일서 3:18을 읽어보세요. 우리는 사랑을 무엇으로 보여줘야 합니까?
5. 에베소서 5:28을 읽어보세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까?



6. 요한일서 3:16을 읽어보세요. “사랑한다.”는 말은 행동이 따를 때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은 우릴 위해 목숨을 내어 놓으시며 그분의 말씀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도 배우자를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구체적인 방법으로 희생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자신이 섬김 받고 싶은 영역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7. 에베소서 5:25-26에 따르면 다음의 말은 사실입니까? “내 아내는 내가 아내에게 하는 말 만큼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나는 아내에게 선포하는 내 말로 인해 아내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8. 로마서 8:38-39과 요한일서 4:19을 읽어보세요. 다음의 말은 사실입니까? “우리는 행함으로 증명하신 하나님의 친밀한 말씀으로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에게 러브레터를 보내고 계십니다.”
9. 요한일서 5:3과 요한이서 1:6을 읽어보세요. 다음의 말은 사실입니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계명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랑의 원리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10. 요한복음 14:15을 읽어보세요. 다음의 말은 사실입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 결단입니다. 성경의 모든 계명은 인간의 감정이 아닌 의지에 대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고 어떻게 행하라고 명하셨을 뿐입니다.”
11. 갈라디아서 5:22-23을 읽어보세요.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야 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야 합니다. 사랑은 \_\_\_\_\_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 A. 사람의 생각  
B. 사람의 본성  
C.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12. 에베소서 5:31-32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적인 결혼관계는 무엇의 그림입니까?

### 인용구절

(잠 18:22)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히 13:4/쉬운성경) 모두 결혼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남편과 아내는 그들의 결혼을 깨끗이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음하는 자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전 9:9)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요일 3:18)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엡 5:28)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요일 3:16)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엡 5:25-26)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26)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롬 8:38-39)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요일 4:19)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일 5:3)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이 1:6)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요 14: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갈 5:22-23)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엡 5:31-32)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 정답

1. 잠언 18:22을 읽어보세요. 다음 중 결혼을 바르게 표현한 것을 전부 골라보세요.
  - A. 결혼은 복을 받는 것이다.
  - C. 결혼은 주의 은총이다.
  
2. 히브리서 13:4을 읽어보세요. 결혼관계 안에서의 성관계는 어떠합니까?
  - C. 깨끗하다
  
3. 전도서 9:9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적인 결혼관계는 주님께서 이 생애 주신 선물이며 보상입니까?
 

네
  
4. 요한일서 3:18을 읽어보세요. 우리는 사랑을 무엇으로 보여줘야 합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5. 에베소서 5:28을 읽어보세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까?
 

네
  
6. 요한일서 3:16을 읽어보세요. “사랑한다.”는 말은 행동이 따를 때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은 우릴 위해 목숨을 내어 놓으시며 그분의 말씀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도 배우자를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구체적인 방법으로 희생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자신이 섬김 받고 싶은 영역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네
  
7. 에베소서 5:25-26에 따르면 다음의 말은 사실입니까? “내 아내는 내가 아내에게 하는 말 만큼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나는 아내에게 선포하는 내 말로 인해 아내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네. 에베소서 5:26의 “말씀”은 헬라어로 ‘레마’이며 그 뜻은 “선포된 말”이다.
  
8. 로마서 8:38-39과 요한일서 4:19을 읽어보세요. 다음의 말은 사실입니까? “우리는 행함으로 증명하신 하나님의 친밀한 말씀으로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에게 러브레터를 보내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말씀으로 가득하다.
  
9. 요한일서 5:3과 요한이서 1:6을 읽어보세요. 다음의 말은 사실입니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계명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랑의 원리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네

10. 요한복음 14:15을 읽어보세요. 다음의 말은 사실입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 결단입니다. 성경의 모든 계명은 인간의 감정이 아닌 의지에 대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고 어떻게 행하라고 명하셨을 뿐입니다.”

네

11. 갈라디아서 5:22-23을 읽어보세요.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야 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야 합니다. 사랑은 \_\_\_\_\_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C.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12. 에베소서 5:31-32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적인 결혼관계는 무엇의 그림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

## 레벨 2

### 제 12강

# 하나님적인 사랑 1

던 크로우

고린도전서 13:13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4:1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성경말씀은 사랑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사랑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어떤 번역본은 사랑을 제 1의 목적으로 삼으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이생에서 영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차를 가져갈 수도 없고 집을 가져갈 수도 없고 돈을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삶에 풀어놓아 주신 사랑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사랑만이 영원히 가치 있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란 정말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저는 아이스크림을 사랑해요. 애플파이도 사랑하고요.” 영어에는 사랑한다는 표현이 단 하나 뿐입니다. 그래서 아내도 사랑한다고 하고 우리 집 고양이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 아내가 감동을 받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떤 사람은 성행위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강력한 감정을 생각합니다. 저마다 각각 사랑에 대한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헬라어에는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4개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에로스(EROS)입니다. 성경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단어이며 성적인 끌림이나 성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된다고 하셨을 때 그러한 사랑을 명하신 것입니다. 아가서는 성적인 사랑을 노래한 책으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결혼한 관계 안에 제한시켜 놓으셨습니다. 그 외의 사랑들은 모든 인류가 자유롭게 누릴 수 있지만 에로스는 결혼관계 안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스토르계(STORGE)로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필레오(PHILEO)가 있는데 필리아(PHILIA)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에서 72번 사용되었습니다. 필레오는 따뜻한 애정의 감정이며 강하게 표현되는 감정입니다. 대부분 사랑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은 필레오를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에 빠졌다. 사랑이 식었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당신의 결혼생활이 이러한 종류의 사랑 위에 세워졌다면 아마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랑에 근거한다면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사랑이 식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적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가페(AGAPE)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아가페 사랑에는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고린

도전서 13장은 아가페가 무엇인지 잘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5:3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KJV 역자직역)” 예수님의 계명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설명하면 바로 마태복음 7:12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성경은 남이 나에게 해줬으면 하는 것을 먼저 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을 거스릅니다. 우리의 육신은 다른 사람의 유익이 아닌 나의 유익을 더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합니다.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그분의 계명을 통해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육신적으로도 바른 선택과 결단을 하게 해주시며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어느 날 저는 평소처럼 퇴근 후에 기도하러 공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섬기고 싶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매우 따뜻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어린 남자아이와 어린 여자아이가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빈 그네가 하나 있길래 거기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지?” 그랬더니 그 아이 말이 “나는 영어 잘 못해요.”라고 했습니다. “그래? 어느 나라에서 왔니?”라고 묻자 자기는 루마니아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 지역에 루마니아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보니 아이들의 부모로 보이는 루마니아 사람들이 서 있었고 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내가 왜 자기 아이들에게 말을 거는 지 궁금했겠지요. 제가 그 분들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당신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자 의아한 눈으로 그분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를 돕고 싶다고요? 왜 우리를 도와주고 싶으세요? 우리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도와주기 원하시니까요.” 그 당시 저는 요한일서 3:18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는 말로만 사랑해선 안 되며 행동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평소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데 그날따라 주머니에 돈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이거 받으세요.” 그러면서 돈을 건넸습니다. 또 그날 저는 금식을 했기 때문에 점심으로 싸갔던 음식도 좀 있었습니다. “이걸 가족들과 드세요.” 그러자 그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고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또 빌게요.”

집에 가서 아내에게 루마니아 가족을 만난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냉동실에서 고기를 꺼내 요리했습니다. 다음 날 벼룩시장에서 그릇을 한 박스 사가지고 아내와 함께 그 공원으로 갔습니다. 그 루마니아 사람들과 아이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선물을 좀 가져왔어요. 좀 무거워서 차로 날라야 하니 집을 알려 주면 선물을 가져갈게요.” 방 하나 딸린 낡은 아파트에 도착해서 그릇과 세트인 포크, 나이프 등을 박스에서 꺼내 하나씩 그분들께 드렸습니다. 제가 그것을 건넬 때 그분들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들 엄마가 영성찬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 이리다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렇게 말했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우리 집에서 성경공부가 있는데 초대하고 싶어요.” “네, 가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선물을 드렸다고 책임감에 오실 필요는 없어요.” “아니에요. 가서 당신의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요.”

그분들은 차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데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분들은 영어를 잘 못했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뒤로 얼마 되지 않아서 저는 또 다른 루마니아 부부를 알게 되었고 처음 만난 루마니아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루마니아 부부에게 가서 저랑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겠어요?” 그분들은 이 제안에 동의해 주었고 얼마 되지 않아 두 번째 루마니아 부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에 대해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외로움과 싸우고 있어요. 선생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루마니아 부부와 같이 그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저는 선물, 음식 등 많은 것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었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첫 번째 루마니아 부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분도 성경공부에 오세요. 예수님에 대해 가르쳐 주는데 너무 좋아요.” 그러자 두 번째 루마니아 부부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치는 공산주의 나라에서 왔어요. 예수쟁이들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친구가 되어주시면 족합니다.” 그리고 주말에 다시 만나 그분들을 위해 옷도 사고 필요한 여러 가지를 사 주었습니다. 그분들은 매우 당황해 하더니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날이 추워지는데 코트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면 이 코트를 사시다.” 제가 행함을 통해 그분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었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성경공부 시간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권했습니다. “성경공부 모임에 참석하는 미국인들 중에 당신들에게 직장을 소개해 줄만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자 그분들도 성경공부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밤 성경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주님께 아주 명칭한 소리를 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되니까 저에게 저분들 나라 언어로 방언의 은사를 주셔야 합니다.” 성경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그날 참여했던 미국인 한명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공부를 인도할 차례가 되자 두 번째 루마니아 부부의 아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공부가 끝나고 그 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만져주셨고 그 공간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습니다. 그 아내분의 말이 “아까 간증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이해가 안됐는데 던 선생님이 예수님에 대해 얘기할 때는 전부 다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지금 당장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까지 전부다 이해했어요! 이제 영어가 완벽하게 이해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요!” 그 결과 그 루마니아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후 월요일 성경공부 시간은 온갖 나라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루마니아인, 불가리아인 그리고 러시아인들까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셨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까지 우리 성경공부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언어가 잘 통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신다는 것 말입니다. 또 그들은 제가 자신들을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들이 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의 삶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느 날 한 공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저와 다른 인종, 다른 국적의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바라보았을 때 시작된 것입니다. 그 당시 저에게 어떤 따뜻한 느낌이나 애정의 감정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내가 대접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저는 나 자신의 기분과 상관없이 그 사람들의 유익과 안녕을 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저에게 너무나도 고마워했고 그들 안에 저를 향한 필레오 사랑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감정이 따라오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매번 “던 형제님, 사랑해요.”라고 말하면서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결과 제 안에도 그분들을 향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감정이 따라오는 사랑을 원한다면 먼저 아가페 사랑을 실행해 보십시오. 자신의 감정이 어떠한 상대방의 유익과 안녕을 추구한다면 감정이 따라오는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 제자되기 연습문제

1. 요한일서 5:3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_\_\_\_\_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2. 로마서 13:9-10을 읽어보세요. 이 구절이 설명하는 사랑에 대해 적어 보세요.
3. 로마서 12:19-21을 읽어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감정을 극복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4. 디도서 2:4을 읽어보세요. 이 구절은 사랑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5. 고린도전서 13:4-8을 읽어보고 사랑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6. 요한일서 3:18을 읽어보세요.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 인용구절

(요일 5:3)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롬 13:9-10)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롬 12:19-21)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딤후 2:4/킹제임스 흠정역)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고

(고전 13:4-8/쉬운성경)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5)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6)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7)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 냅니다. (8)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언은 있다가도 없고, 방언도 있다가 그치며, 지식도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요일 3:18)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 정답

1. 요한일서 5:3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_\_\_\_\_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계명

2. 로마서 13:9-10을 읽어보세요. 이 구절이 설명하는 사랑에 대해 적어 보세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각각의 계명들은 우리가 이웃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3. 로마서 12:19-21을 읽어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감정을 극복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한다.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타인의 유익을 구할 수 있다.

4. 디도서 2:4을 읽어보세요. 이 구절은 사랑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가르침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것이다.

5. 고린도전서 13:4-8을 읽어보고 사랑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동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쉽게 성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 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소망하고, 모든 것을 견디고, 영원합니다.

6. 요한일서 3:18을 읽어보세요.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말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 레벨 2

### 제 13강

# 하나님적인 사랑 2

던 크로우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이 나타났으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으로 볼 때 예수님은 한번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가장 위대한 사랑이 나타나셔서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내에게 “사랑해.”라고 말하고서 바람을 피우고 돌아다닌다면 제 아내는 저의 말을 믿을까요, 아니면 저의 행동을 믿을까요? 분명 저의 행동을 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사랑의 95% 이상이 말이 아닌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요한일서 3:18입니다. “자녀들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행동의 언어입니다. 마태복음 25:35-36을 보면 예수님은 사랑을 ‘결과로 나오는 행동’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리고 40절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정말로 사랑은 행동입니다. 히브리서 6:10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니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마태복음 22장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라는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계명은 사실 같은 것입니다. 가장 보잘 것 없는 형제들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실제적으로 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으며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난 강에서 저는 공원에서 만난 루마니아인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저 자신의 기분과 상관없이 그들의 유익과 안녕을 추구하자 그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저와 다른 인종, 다른 국적이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안녕을 추구하여 그들에게 다가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다른 방법이 있다면 좋겠지만 저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이 어떠한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유익과 안녕을 추구하신 것입니다.

어느 날 그 루마니아 친구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들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온지 7년 반이 되었고 당시 캔자스 주에 살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망명 신청에 대해 통첩이 왔어요. 30일간 항소할 수 있고 그 기간이 끝나면 추방시킨다고 합니다.” 보통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하면 2-5%정도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 루마니아인들도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안 될 거란 말만 듣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저는 기도하겠다고 하고서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도와주냐고요? 저도 방법은 몰랐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것은 엄청난 불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들의 아이들은 오랜 미국 생활로 인해 루마니아어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 친구 하나가 콜로라도 주의원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 사람 말이 그 루마니아인들이 캔자스 주에 살고 있으니 캔자스 주의 샘 브라운백 의원에게 연락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된 것이, 제 친구 김(Kim)이 브라운백 의원의 직원이었습니다. 저는 김에게 전화를 했고 김은 워싱턴 D. C.에서 4명의 의원을 모아 이 사건을 다루어 달라고 청원했습니다. 그리고 캔자스 주의 서브릿 사람들은 이 루마니아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계속 살기를 원한다는 탄원서를 다음과 같이 써서 올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있으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분들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이 내용이 신문에 크게 실리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정부기관의 높은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문제 삼았기 때문에 이 루마니아 사람들이 미국에 계속 살 수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고 캔자스 주 서브릿으로 갔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망명 허가를 위해 도와줘서 고맙다고 브라운백 의원에게 전화로 말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 날은 클린턴 대통령 탄핵 청문회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브라운백 의원은 그곳에 오지 못했지만 ABC와 NBC에서 취재차 카메라를 들고 나와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이들은 저에게 달려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러자 카메라가 전부 저를 향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이분들과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저는 기자들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만났는지, 제가 왜 이분들의 유익과 안녕을 추구했는지. 그리고 이 분들을 도왔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12에서 하신 말씀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축하행사가 준비된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미국 국기를 상징하는 빨강, 하양, 파란색의 풍선들로 단장되어 있었고 애국심을 고조하는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루마니아 친구들이 입장을 하니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환호성을 질렀고 이 루마니아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그곳의 시장이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날, 1월 12일은 이 루마니아 분들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유칸 가족의 날’로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루마니아 친구들은 워싱턴 D. C.에서 브라운백 의원이 보내온 미국 국기를 증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언제까지라도 법적으로 미국에 머물 수 있다고 기록된 문서도 받았습니다. 평생 미국에서 살아도 된다는 말이었지요. 루마니아 부부는 각각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했고 그 뒤에 저에게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감사해도 부족한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7년 반 전에 콜로라도 주,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한 공원에서 저는 하나님께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누구에게 다가가야 하는지 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루마니아 분들에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짧게 나눈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돕기 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을 제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이 있기 1년 전, 제 친구 김은 저와 브라운백 의원의 만남을 주선했었습니다. 브라운백 의원은 앤드류 워맥 미니스트리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서 저를 만나고 갔습니다. 김이 브라운백 의원에게 “콜로라도에 가면 던 크로우를 꼭 만나야 합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왜 제가 브라운백 의원을 만나야 하는지 몰랐고 그 자리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돕기 위해 미리 예비하신 자리였다는 것을 당시에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평생 잊지 못할 기적이었고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 루마니아 부인 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저의 믿음은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우리를 미국에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사랑을 갈구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사랑의 원리를 이해하기로 결정하고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사랑은 친절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하면서도 우리의 유익을 구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원리를 더 알고자 하는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제자되기 연습문제

1. 마태복음 7:12을 읽어보고 황금률을 설명해 보세요.
2.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줄 배우자를 찾습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을 찾아야 할까요, 아니면 상대방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할까요?
3. 요한일서 5:3을 읽어보세요. 사랑은 감정입니까, 아니면 행동입니까?
4. 요한일서 3:18을 읽어보세요. 배우자에게 “사랑해!”라고 말하고 밖에 나가서는 바람을 피운다면 상대방은 그 말을 믿을까요, 아니면 그 행동을 믿을까요?
5. 로마서 5:6-8을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죽기를 원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6. 갈라디아서 5:22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7. 요한일서 4:8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_\_\_\_\_ 이시기 때문입니다.
8. 고린도전서 13:5을 읽어보고 다음 중 사랑이 아닌 것을 골라 보세요. : 무례함, 이기심, 용서치 않음.
9. 고린도전서 13:8을 읽어보세요. 이 땅에서 천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10. 잠언 10:12을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3:5은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랑은 얼마만큼의 죄를 덮어 줍니까?

### 인용구절

(마 7:1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요일 5:3)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일 3:18)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롬 5:6-8)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7)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갈 5: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요일 4:8)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고전 13:5/쉬운성경)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고전 13:8/쉬운성경)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언은 있다가도 없고, 방언도 있다가 그치며, 지식도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잠 10:12)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 정답

1. 마태복음 7:12을 읽어보고 황금률을 설명해 보세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2.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줄 배우자를 찾습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을 찾아야 할까요, 아니면 상대방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할까요?  
상대방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3. 요한일서 5:3을 읽어보세요. 사랑은 감정입니까, 아니면 행동입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원리(계명)를 지켜 행동으로 옮기는 것
4. 요한일서 3:18을 읽어보세요. 배우자에게 “사랑해!”라고 말하고 밖에 나가서는 바람을 피운다면 상대방은 그 말을 믿을까요, 아니면 그 행동을 믿을까요?  
행동. 행동이 말보다 더 크게 말하기 때문에
5. 로마서 5:6-8을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죽기를 원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러나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의 유익을 구하셨다.
6. 갈라디아서 5:22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7. 요한일서 4:8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_\_\_\_\_ 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
8. 고린도전서 13:5을 읽어보고 다음 중 사랑이 아닌 것을 골라 보세요. : 무례함, 이기심, 용서치 않음.  
모두 다 사랑이 아님



9. 고린도전서 13:8을 읽어보세요. 이 땅에서 천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 이것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10. 잠언 10:12을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3:5은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랑은 얼마만큼의 죄를 덮어 줍니까?

모든 죄

## 레벨 2

### 제 14강

# 재정 1

앤드류 워맥

예수님은 당신이 재정적으로 형통하길 원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살아가는 데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울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때에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재정의 영역을 우리 혼자 감당하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너의 영적인 면에만 관심이 있다. 너의 재정 생활에는 관심이 없지. 그러니까 혼자 알아서 하도록.”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 혼, 몸 모든 면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미 모든 것을 공급해 놓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재정적 형통은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종교는 재정을 풍성하게 갖는 것을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욕심을 품지 말 것을 가르치지만 또한 풍성한 재정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칩니다. 요한삼서 1:2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네 혼이 형통함같이 네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킹제임스 흠정역)” 이 얼마나 강력한 말입니까? 요한은 “무엇보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유, 감정, 관계, 재정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 당신이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영, 혼, 몸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형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길 원하신다고 말해왔습니다. 가난은 경건한 것이며 더 가난 할수록 더 경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런 사고방식 아래에서 성장했습니다. 사역자는 많이 가지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은 없이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은 말씀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당시 최고로 부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부유했으면 왕이 그에게 와서 아브라함의 재산이 그 나라에 영향을 미치니 떠나 달라는 부탁까지 했겠습니까?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도 형통했고 엄청난 부유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기 개인 재산에서 250만 달러(약 27억/역자 주) 가치의 금과 은을 성전 짓는데 쓰도록 주님께 드렸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부자였습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겼던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축복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 재정적으로 힘들어 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13에서 자신은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풍부에 처

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경우도 있습니다만 더 가난할수록 더 거룩하다는 논리는 말씀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면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더 거룩하지는 않으니까요. 욕심이 나쁘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디모데전서 6:10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들어 돈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이 구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합니다. 돈을 무지 사랑하지만 십 원 한 장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그 부를 사용할 뿐이지요.

신명기 8:18은 재정적 형통의 참된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막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던 참이었고 그때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부와 형통을 누리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에 따르면 형통의 목적은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재산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정적으로 축복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2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원하는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채워주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이기적인 목적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정적으로 형통하게 해 주시려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8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정적으로 형통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든 좋은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성경적인 형통의 정의입니다. 형통은 무엇입니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굴리고, 명품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9:8에 따르면 형통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또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딘가에 현금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그럴만한 능력이 없으십니까?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지만 그럴만한 능력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성경의 정의로 볼 때 재정적으로 형통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또 모든 좋은 일을 넘치도록 할 만큼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성경적 형통은 자신의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이기적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나 이기심으로 비칠 수 있지만 마음의 동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더 큰 집에 이사 가고 더 좋은 차를 굴리려고 하나님께 더 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으로 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의 필요가 다 채워져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자 하여 하나님께 더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재정적으로 형통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형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 얘기한 다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해 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당신이 재정적으로 형통하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동기와 행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정말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도전이 되길 바라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최선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최선은 당신이 형통한 것입니다.

### 제자되기 연습문제

1. 고린도후서 8:7-8을 읽어보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헌금할 때 나는 무엇을 증명한 것입니까?
2. 고린도후서 8:13-14을 읽어보세요. 우리 모두가 헌금하는 데에 있어서 마음을 합할 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3. 고린도후서 8:13-14을 읽어보세요. 모든 사람들의 필요는 어떻게 채워집니까?
4. 에베소서 4:28을 읽어보세요. 도둑질 하던 사람들은 더 이상 도둑질 하지 말고 줄 것이 있게 하기 위해 일하라고 합니다. 그 외에 또 어떤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5. 창세기 13:2과 12:2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를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_\_\_\_\_ 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6. 디모데전서 6:17-18을 읽어보세요. 부자는 자신들의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7.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고 재정적인 축복을 맡겨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인용구절

(고후 8:7/킹제임스 흠정역)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일 곧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할지니라.

(고후 8:8)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고후 8:13-14)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14)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엡 4:28)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창 13:2)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창 12:2/쉬운성경)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 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딤후 6:17-18)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 정답

1. 고린도후서 8:7-8을 읽어보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헌금할 때 나는 무엇을 증명한 것입니까?  
나의 사랑의 진실함
2. 고린도후서 8:13-14을 읽어보세요. 우리 모두가 헌금하는 데에 있어서 마음을 합할 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균등함.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한 헌금하고 나눠야 한다.
3. 고린도후서 8:13-14을 읽어보세요. 모든 사람들의 필요는 어떻게 채워집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로 헌금하므로

- 
4. 에베소서 4:28을 읽어보세요. 도둑질 하던 사람들은 더 이상 도둑질 하지 말고 줄 것이 있게 하기 위해 일하라고 합니다. 그 외에 또 어떤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라
  
  5. 창세기 13:2과 12:2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를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_\_\_\_\_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정적인) 축복
  
  6. 디모데전서 6:17-18을 읽어보세요. 부자는 자신들의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한다.
  
  7.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고 재정적인 축복을 맡겨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레벨 2

### 제 15강

# 재정 2

앤드류 워맥

지난 강에서는 우리가 재정적으로 형통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역사하게 하는 몇 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6:38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에는 재정 외에도 많은 원리가 들어있지만 재정에 적용해 보자면 헌금을 제외하고 재정적인 형통을 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재정적 형통을 논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 하나님께서 내가 형통하길 원하신다는 말이지? 하지만 꼭 헌금해야 할 필요는 없어.” 가지고 있는 돈의 전부, 두 랩돈을 드린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이 엄청난 돈을 헌금하는 모습도 지켜보셨지만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은 부요한 가운데 드렸지만 이 여인은 가난한 가운데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돈의 액수가 아닌 퍼센트를 보십니다. “나는 헌금할 돈이 없어요.”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말 없다면 옷이라도 벗어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뭔가 나눌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남에게 줄 것이 없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사실 줄게 별로 없을 때 나의 나눔(헌금)이 내 소유의 가장 큰 퍼센트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만원 밖에 없는데 오천 원을 주었다면 1억을 주고도 몇 천억이 남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퍼센트로 헌금을 결정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드릴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주라고 하십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목적 하나는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셨다면 나눠주는 행위는 내 모든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목적에서 더 멀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눠주는 것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주인을 속인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불의한 mammon(돈)에 대해서도 신실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에게 진정한 재물을 맡기겠냐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작은 일, 즉 돈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더 중요한 영적인 가치에 어떻게 도달하겠냐는 말입니다. 이 구절은 청지기 정신에 있어서 돈을 가장 작은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재정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면 우리의 영원한 운명(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돈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을 보낼 것이라는 것은 어떻게 믿느냐는 말입니다. 비교해 보면,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는 영적인 것들이 사실 돈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입니다. 돈은 하찮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신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첫 단계입니다. 잠언 11:24은 필요 이상으로 나눠주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형통합니다. 또 자기가 가진 것을 움켜쥐고 나눠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세가 오히려 그들에게 가난을 초래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해주시는 것입니다. 재정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거나 재정과 현금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 제자되기 연습문제

1. 요한복음 3:16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동기가 무엇입니까?
2. 고린도전서 13:3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주는 동기도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마 7:12 참고)
3. 야고보서 2:15-16을 읽어보고 그 뜻을 설명해 보세요.
4. 누가복음 6:38을 읽어보세요. 이 구절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5. 에베소서 1:7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풍성함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풍성함을 따라 주셨습니까? 그 차이점을 설명해 보세요.
6. 잠언 19:17을 읽어보세요. 가난한 자들에게 줄 때,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갚아주십니까?

7. 시편 41:1-3을 읽어보세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 5가지는 무엇입니까?

## 인용구절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고전 13:3)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마 7:1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약 2:15-16)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눅 6:38)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엡 1:7)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잠 19:17)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시 41:1-3)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2)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3)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 정답

1. 요한복음 3:16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사랑

2. 고린도전서 13:3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주는 동기도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마 7:12 참고)

사랑.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한다.

3. 야고보서 2:15-16을 읽어보고 그 뜻을 설명해 보세요.

사랑의 대부분은 말없이 표현된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다.

4. 누가복음 6:38을 읽어보세요. 이 구절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내가 헤아리는 대로 나도 헤아림을 받는다. 내가 많다, 적다, 하는 기준대로 나에게 돌아온다.

5. 에베소서 1:7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풍성함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풍성함을 따라 주셨습니까? 그 차이점을 설명해 보세요.

그분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지 무조건 풍성함만을 주시려는 목적은 아니었다.

6. 잠언 19:17을 읽어보세요. 가난한 자들에게 줄 때,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 빌려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다시 갚아주십니까?

네

7. 시편 41:1-3을 읽어보세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 5가지는 무엇입니까?

재앙의 날에 건지시고, 지켜주시고, 이 세상의 복을 주시고, 원수에게서 구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건강을 주신다.

레벨 2

제 16강

#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앤드류 워맥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누길 원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드러진 모든 기도에 언제나, 항상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14-15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것은 엄청난 자신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기도가 항상 응답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7:7-8도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옳은 것, 선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도 않고 이기적이지도 않은 것을 구했는데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하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경험은 구했으나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매우 놀랍게 들리겠지만 둘 다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4:24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영적인 영역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려면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것을 물리적 세계로 끌어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1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보이는 물리적 세계가 아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있을 뿐입니다. 믿음은 영적인 영역에까지 뻗어나가 그곳에 있는 것들을 취하여 물리적 세계로 끌어냅니다.

마치 라디오 신호 같은 것입니다. 라디오나 TV 방송은 항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라디오를 켜야 하고 듣고 싶은 방송에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신호를 라디오가 끌어내어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있

는 영역으로 가져와 방송을 내 보냅니다. 하나님의 기도응답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영역에 기도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응답을 믿음으로 취하여 물리적 세계로 끌어내야 합니다. 물리적 세계와 영적 세계는 서로 평행선을 걷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 영적세계와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 세계 사이에 다리를 놓지 않으면 기도는 이미 응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삶으로 풀어져 나오는 것을 절대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하나님께 계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시간 관 계상 간략하게 간추려 보겠습니다. 주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다니엘에게 보내셔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다니엘서 9:22-23입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기도응답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죽 읽어보면 3분정도 걸립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명하시고 그것이 나타나기까지 걸린 시간이 3분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정말로 신이라면, 그리고 뭔가가 그분의 뜻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그 순간 일어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나서 가브리엘이 오기까지 대략 3분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저도 모르고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후 그것이 나타나기까지 대략 3분 정도의 시간이 지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응답에 걸리는 시간이 3분 정도라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할 사람은 없겠지요. 하지만 항상 그렇게 빨리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서 10장에는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3주가 걸렸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다니엘의 첫 번째 기도는 3분 만에 응답하시고 두 번째는 3주씩 기다리게 하셨을까?” 대부분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다니엘 10:11-12을 읽어봅시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한 첫날 이미 가브리엘을 보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타나기까지는 3주가 걸렸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증거합니다(히 13:8).

9장과 10장을 연결하여 보면 하나님께서는 두 기도 모두 즉각 응답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는 3분 걸렸고 다른 하나는 3주가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관건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시점과 그것이 나타나

는 시점 사이에는 무수한 변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쪽에서는 믿어야 합니다. 영적 영역에 있는 응답을 취해 물리적인 영역으로 끌어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니엘 10:13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십일 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 주므로” 이것은 바사 왕국의 군주인 물리적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방해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사탄도 변수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하셨지만 사탄이 사람들을 이용하여 기도 응답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정의 돌파를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돈을 가져다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조지폐를 만드실 일은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돈을 만들어 내 지갑에 넣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6:38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 주리라(킹제임스 흠정역)”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재정은 사람들을 통해서 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욕심에 묶여 있거나 내가 하는 일이 그 사람들의 신경을 건드린다면 사탄은 그들을 통해 내 기도의 응답을 방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재정의 돌파를 놓고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내 재정의 돌파에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드러진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항상 기도응답을 주시지만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우리 쪽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주고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아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제자되기 연습문제

1. 마태복음 7:7-8을 읽어보세요.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2. 마태복음 7:7-8을 읽어보세요.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3. 마태복음 7:7-8을 읽어보세요. 두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4. 요한복음 10:35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주십니까?
5. 야고보서 4:1-3을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왜 구해도 받지 못합니까?
6. 베드로전서 3:7을 읽어보세요. 배우자를 함부로 대하면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7. 요한일서 5:14-15을 읽어보세요. 기도응답을 받는 열쇠는 무엇입니까?

8. 마가복음 11:24을 읽어보세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인용구절

(마 7:7-8)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요 10:35)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약 4:1-3/쉬운성경)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속에 분쟁을 일으키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2)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갖지 못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니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그리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쓰려고 구하고 있습니다.

(벧전 3:7)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 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요일 5:14-15)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막 11: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 정답

1. 마태복음 7:7-8을 읽어보세요.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받는다.
2. 마태복음 7:7-8을 읽어보세요.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찾는다.
3. 마태복음 7:7-8을 읽어보세요. 두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열린다.
4. 요한복음 10:35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주십니까?  
아니요
5. 야고보서 4:1-3을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왜 구해도 받지 못합니까?  
동기와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이기적인 마음으로 구했다. 그들의 동기는 오로지 이기심 뿐
6. 베드로전서 3:7을 읽어보세요. 배우자를 함부로 대하면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막힌다.
7. 요한일서 5:14-15을 읽어보세요. 기도응답을 받는 열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
8. 마가복음 11:24을 읽어보세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받은 줄로 믿으면 받는다.



# 제자 삼는 전도



레벨 3

## 레벨 3 16강 훈련 코스

### 목차

제 1강	나를 통해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랑.....	3-1
제 2강	사역을 위한 은사의 사용.....	3-6
제 3강	기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3-15
제 4강	하나님적인 인간관계의 능력.....	3-21
제 5강	박해.....	3-24
제 6강	왕과 그 분의 왕국(Kingdom).....	3-29
제 7강	구원하는 믿음의 목적.....	3-37
제 8강	율법의 올바른 사용.....	3-41
제 9강	율법 아래가 아닌 은혜 아래.....	3-47
제 10강	죄에 대한 의식은 이제 그만.....	3-52
제 11강	나는 사랑받는 자이며, 나는 아름답습니다.....	3-59
제 12강	구원의 열매 1.....	3-64
제 13강	구원의 열매 2.....	3-70
제 14강	제자로의 부르심.....	3-75
제 15강	자기 간증 사용법.....	3-81
제 16강	각 사람의 은사를 사용하여 제자삼기.....	3-88

### 레벨 3

### 제 1강

# 나를 통해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랑

앤드류 워맥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은 우리의 결단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부으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끌어내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빌레몬서 1:6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의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라(한글킹제임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려면 첫 번째로 내 안에 있는 선한(좋은) 것들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남에게 줄 수는 없으니까요. 일단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하게 되면 그것은 나를 통해 저절로 흘러가게 됩니다. 내가 경험한 놀라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 간증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요한일서 4:7-8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나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느껴질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헬라어에는 사랑을 나타내는 4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차원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랑과 어떤 사람에 대한 단순한 끌림 또는 욕망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때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해주는 고린도전서 13:4-8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시기하거나 이기적이거나 쉽게 화를 내거나 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하며 사랑이라고 하려면 그것은 이기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즉 상대방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가 나를 위해 뭔가를 해 주기 때문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성장하여 하나님적인 사랑을 잘 분별하게 되면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흘러갈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흘러간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그 흐름을 따라 격려의 말이나 행동을 하면 됩니다. 즉 행동에 옮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의 경우, 기도 중에 어떤 사람이 떠오를 때가 있는데 그때 저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가지게 됩니다. 그럴 이유가 없는데도 말이지요. 즉 그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쓰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연락을 취합니다. 그러면 거의 매번

상대방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시네요. 저에게 큰 은혜가 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사랑, 즉 내 안에서 상대방에게 흘러가는 하나님적인 공허를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느낄 때 이제는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방법으로 사역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14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흘러갔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 느끼신 공허와 사랑을 통해 흘러간 것입니다. 마태복음 8:2-3을 보면 나병환자의 이야기 나옵니다. 유대법은 이런 사람을 부정하다고 정의했고 만져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는 자신도 전염되어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께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의 마음은 그를 향한 공허로 움직였고 그로인해 그 나병환자를 직접 만지셨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하나님적인 사랑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공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나머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눅 23:34/ 킹제임스 흠정역)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용서하고 싶은 감정이 물밀듯 몰려오지 않았다는 것쯤은 우리 모두 알만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만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느끼셨고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셨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앞에서 인용했던 성경구절, 요한 일서 4:8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당신에게 흘려보내실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렇다고 매번 뭔가 특별한 것을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하면서 전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를 향해 공허가 느껴지면 그 사람에게 가서 어깨를 감싸고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요.” 한번은 제가 그것의 혜택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서 거의 쫓겨날 지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렸고 어떤 사람은 저를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낙심된 나머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도 저에게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문제 때문에 마귀와 싸우고 있었는데 친구 하나가 멀리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몇 분 동안

이런저런 사소한 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기, 전화한 용건이 있을 텐데?”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를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려고 전화했지. 기도하는데 자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거든.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네.” 그가 말한 것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통해 저에게 사랑을 주고 계신 것을 알았고 그것으로 인해 저는 사역을 그만두지 않을 수 있었으며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사랑이 당신을 통해 흘러가는 것을 분별할 때 그것은 신성한 흐름, 즉 신성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지한다면 반드시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행동이나 말을 통해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실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그들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 제자되기 연습문제

※ 이번 강 제자되기 연습문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 주신 것으로 하여금 어떻게 흘러가게 하는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빌레몬서 1:6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2. 요한일서 4:7-8을 읽어보세요.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참된 근원은 무엇입니까?
3. 저자는 이 강에서 “나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7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4. 고린도전서 13:4-8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5. 마태복음 14:14을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섬기실 때,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6. 마태복음 25:37-40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사랑과 긍휼로 사람들을 섬길 때, 실제로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6:10을 참고하세요.

### 인용구절

(문 1:6/한글킹제임스) 이는 너의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라.



(요일 4:7-8)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고전 13:4-8/쉬운성경)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5)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6)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7)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 냅니다. (8)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언은 있다గా도 없고, 방언도 있다가 그치며, 지식도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마 14:14)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마 25:37-40)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39)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뱉었나이까 하리니 (40)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히 6:10)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 정답

1. 빌레몬서 1:6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하는 것
2. 요한일서 4:7-8을 읽어보세요.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참된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요일 4:8)
3. 저자는 이 강에서 “나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7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다).

4. 고린도전서 13:4-8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동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쉽게 성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 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소망하고, 모든 것을 견디고, 영원합니다.

5. 마태복음 14:14을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섬기실 때,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심

6. 마태복음 25:37-40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사랑과 긍휼로 사람들을 섬길 때, 실제로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히 6:10 참고)

예수님

### 레벨 3

### 제 2강

## 사역을 위한 은사의 사용

앤드류 워맥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4:11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 구절에서 사용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용어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것이 “말씀(oracle)”이라고 불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의 뜻은 하나님의 대변인같이 하라는 뜻이 됩니다. 즉 말을 할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을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 분께 찬양과 권세가 영원무궁토록 있느니라(한글킹제임스)”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해서 안 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위대한 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섬길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이며 은사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시며 그것을 위해 각각의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6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 모두를 통해 하신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킹제임스 흠정역)” 즉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입니다.

위 구절들이 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모두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이 책의 3권까지 공부하고 있다는 것, 또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삼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방법을 배워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 당신 안

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뜻을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적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한 기적의 씨앗을 당신 안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풀어내어 그 사람들의 삶에 흘러보낼 것인가 하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있습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능력(기적) 행함, 치유의 은사들 등입니다. 또한 로마서 12장에 기록된 은사들도 있습니다. 직접 공부해 보고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기름부으심, 즉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가 하는 일을 할 수는 없지만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나눌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가르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가르치는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선포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으며 교회를 목양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기록된 또 다른 은사들 중에는 대접(hospitality, 환대)의 은사가 있습니다(13절). 재능이나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은사를 가졌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접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장소에 들어설 때 아픈 사람들을 즉시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이해하고 위로해 줍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사라는 것을 아셨습니까?

로마서 12장은 구제(giving)의 은사도 언급합니다. 복음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돈을 벌어들이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은사이며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바로 이 부르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권면하는 은사를 가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행정에 관련된 은사를 가졌고 교회에서는 그것을 섬김의 은사라고 부릅니다. 교회 안에도 할 일이 너무 많고 실생활에서도 사람들의 요구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낙심된 사람을 격려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저처럼 말씀을 가르치기만 해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분들은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감싸주고 친절한 말을 통해 상대를 세워주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하려는 말은 이러한 능력들을 단지 자연적인 자신의 성격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특정 성격타입으로 규정해 놓았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넣어주신 초자연적인 능력이며 그것을 통해 당신에게는 재능과 능력이 생긴 것이고 또 당신 안에 있는 그 초자연적인 능력 때문에 특정한 일에 끌리는 관점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것을 가지고 섬겨야(사역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임 사역자들, 다른 직업이 있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이웃을 섬기든 아니면 마트에서 만난 사람을 섬기든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전임사역자로서의 부르심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시간과 연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는 없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해 보십시오. 네, 물론 실수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놀라 보좌에서 떨어지실 일은 없으며 사람들은 당신의 진심을 알아 줄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이제 받은 은사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시작해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보십시오.

### 제자되기 연습문제

1. 베드로전서 4:11을 읽어보세요. 우리는 어떤 능력으로 사역해야(섬겨야) 합니까?
2. 고린도전서 12:4을 읽어보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은사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3. 고린도전서 12:6을 읽어보고 맞는 답을 골라보세요.
  - A.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으로 일하신다.
  - B.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방법은 다양하다.
  - C. 하나님은 목사들을 통해서만 일하신다.
4. 고린도전서 12:7을 읽어보세요. 성령님의 임재와 영적인 은사는 누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5. 고린도전서 12:8-10을 읽어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사들을 각각 정의해 보세요. (정답 뒤에 있는 추가 참고 구절을 참고하세요.)
 

지혜의 말씀 =  
사도행전 27:21-25 참고

지식의 말씀 =  
사도행전 9:11-12 참고

믿음의 은사 =  
고린도전서 13:2 참고

치유의 은사들 =  
마가복음 16:18 참고

기적(능력)을 행함 =  
히브리서 2:3-4 참고

예언 =

사도행전 11:27-28과 고린도전서 14:3 참고

영들을 분별함 =

사도행전 16:16-18 참고

각종방언 =

사도행전 2:4-11 참고

방언의 통역 =

고린도전서 14:13-14 참고

6. 로마서 12:6-8을 읽어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을 정의해 보세요.

예언 =

섬김 =

디모데후서 4:11 참고

가르침 =

사도행전 13:1 참고

권면 =

사도행전 13:15 참고

구제(giving, 현금 포함) =

잠언 22:9 참고

지도(다스림) =

사도행전 20:28 참고

금홍 =

마태복음 5:7 참고

7. 이 중에 자신에게 해당하는 은사를 발견했습니까? 무엇인가요?

8. 고린도전서 12:7을 읽어보세요. 이 은사들의 유익을 누려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인용구절

(벧전 4:11/한글킹제임스)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 분께 찬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고전 12:4)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고전 12:6-10)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7/킹제임스 흠정역)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8)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9)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0)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롬 12:6-8)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7)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8)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흠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딤후 4:11)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행 13:1)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행 13:15)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잠 22:9)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행 20:28)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마 5:7) 공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홀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고전 12:7/킹제임스 흠정역)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 정답

1. 베드로전서 4:11을 읽어보세요. 우리는 어떤 능력으로 사역해야(섬겨야)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2. 고린도전서 12:4을 읽어보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은사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성령님)

3. 고린도전서 12:6을 읽어보고 맞는 답을 골라보세요.

B.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방법은 다양하다.

4. 고린도전서 12:7을 읽어보세요. 성령님의 임재와 영적인 은사는 누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모두의 유익

5. 고린도전서 12:8-10을 읽어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사들을 각각 정의해 보세요. (정답 뒤에 있는 추가 참고 구절을 참고하세요.)

지혜의 말씀 = 하나님의 생각과 목적을 영적으로 계시해 주는 것

사도행전 27:21-25 참고

지식의 말씀 = 어떤 사실과 사건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계시

사도행전 9:11-12 참고

믿음의 은사 = 의심하며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능력

고린도전서 13:2 참고

치유의 은사들 = 의학적 도움이나 처방 없이 질병을 고치는 영적인 능력

마가복음 16:18 참고

기적(능력)을 행함 = 자연적인 법칙을 초월하여 기적을 일으키는 영적인 개입

히브리서 2:3-4 참고

예언 =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 말하는 사람의 모국어로 표현되는 영적인 말

사도행전 11:27-28, 고린도전서 14:3 참고

영들을 분별함 = 영들의 임재와 활동에 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계시  
사도행전 16:16-18 참고

각종방언 = 하나님께 받은 영감으로 인해 알 수 없는 언어로 하는 영적인 말  
사도행전 2:4-11 참고

방언의 통역 =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 방언을 통역하는 영적인 말  
고린도전서 14:13-14 참고

6. 로마서 12:6-8을 읽어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을 정의해 보세요.

예언 = 하나님께 받은 영감으로 말하는 사람의 모국어로 표현되는 영적인 말

섬김 = 타인을 구체적 방법으로 섬기는 것  
디모데후서 4:11 참고

가르침 = 자세히 설명하여 교육하는 것  
사도행전 13:1 참고

권면 = 촉구하고, 조언하고, 격려하고, 강권하고, 훈계하고, 위로하고, 경고하는 일  
사도행전 13:15 참고

구제(giving, 헌금 포함) =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타인들에게 관대하고 너그럽게 주는 것  
잠언 22:9 참고

지도(다스림) = 리더십을 발휘하여 일을 처리하는 것  
사도행전 20:28 참고

궁휼 = 마음이 상한 자나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동정을 베푸는 것  
마태복음 5:7 참고

7. 이 중에 자신에게 해당하는 은사를 발견했습니까? 무엇인가요?

8. 고린도전서 12:7을 읽어보세요. 이 은사들의 유익을 누려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게 한다.

### 추가 참고 구절

(행 27:21-25)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 레테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22)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23)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25)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행 9:11-12)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12)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고전 13:2)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막 16:18)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히 2:3-4)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4)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행 11:27-28) 그 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28)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고전 14:3)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행 16:16-18)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17)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18)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행 2:4-11)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5) 그 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6) 이 소리가 나

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7)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8)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9) 우리는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10)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11)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고전 14:13-14)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14)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 레벨 3

### 제 3강

# 기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앤드류 워맥

지난 강에서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 나눴습니다. 이번 강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시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매우 많은 성경구절이 이 주제에 해당하지만 여기서는 몇 가지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성령의 은사인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면 사람들은 의심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글쎄요, 당신이 지금 하는 말이 사실인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의 그러한 의심의 벽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수천수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한 유명한 전도자 오스본(T. L. Osborne)입니다. 그가 처음 선교지에 갔을 때 사람들은 그가 전한 복음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가 한 남자에게 전도하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오.” 그랬더니 상대방 남자가 이렇게 받아챘다고 합니다. “당신이 가진 그 까만 책이 다른 까만 책들과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그 말을 들은 오스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을까?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만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확신시키지?’

오스본은 패배감으로 낙심한 채 그 선교지를 떠나 집으로 돌아왔고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분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적과 이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베드로전서 1:23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기적을 통해 가능합니다.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하고 선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증명해 주어야 합니다. 장님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이 증명됩니다. 기적 자체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당신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성경의 예는 마가복음 2:1-9에 기록된 중풍병자의 이야기입니다.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사실, 두 가지 다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누군가의 중풍병을 치유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하실 수 있다면 나머지 하나도 당연히 하실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12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니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님께서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함으로써 증명하신 것은 그분이 말씀만으로 우리 육신과 같은 물리적인 영역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면 죄용서와 같은 영적인 것들도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 기적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가 히브리서 2:3-4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처럼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서야 어떻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맨 먼저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께 들은 자들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확증되었으니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의 선물들으로써 그들에게 증거하셨느니라(한글킹제임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16:20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매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킹제임스 흠정역)” 제가 전달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기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 나타나는 기적을 사용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 결과 그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자유케 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으로 가는 길에는 종종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들의 몸과 감정이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몸과 감정의 문제를 처리하여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마음의 문을 열어 남은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1-5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처음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갔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서 그는 자신이 말만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그들에게 다가간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 자체로 놀라운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진리를 발견하면 ‘내가 전에는 왜 이걸 몰랐지? 사람들은 왜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하며 의아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에 오직 논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시며 그분의 말씀에서 증명하셨듯이 자신을 능력으로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3:8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기적과 이사와 표적으로써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았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행전 10:38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자신의 말씀을 증명하셨고 그 기적들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끌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기적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구절들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 영광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성령님의 능력을 사용하셔야만 했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행하셔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없이 어떻게 세상을 설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기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올리는 경종과 같은 것입니다.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처럼 나를 배부르게 하는 것은 음식이지만 나를 주목하게 하는 것은 올리는 종입니다. 그 종이 울리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점심을 먹지 못할 수도 있듯이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정말로 존재하시며 그분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모두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며 우리를 통해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셔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용기가 안 나요. 누군가의 치유를 위해 기도했는데 치유가 안 되면요? 진짜 기적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기적을 행하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당신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을 자유케 했다고 해도 그것이 당신의 공로가 아니듯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당신의 탓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일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쓰셔서 기적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



여 그것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알아보고 그것을 당신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당신을 통해 흘러가게 하십시오.

### 제자되기 연습문제

1. “기적”의 뜻을 정의해 보세요.
2. 마가복음 2:10-12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3. 마가복음 16:15-18을 읽어보세요. 믿는 자들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4. 사도행전 8:5-8 그리고 12절을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본 것은 무엇이며 이에 대해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5. 사도행전 3:12을 읽어보세요. 베드로 사도는 무엇이 기적을 일으켰다고 했습니까?
6. 사도행전 3:16을 읽어보세요. 기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7. 신약 성경에서 사도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행해진 기적을 찾을 수 있습니까? (정답 뒤에 있는 추가 참고 구절을 참고하세요.)
8. 고린도전서 1:7을 읽어보세요. 기적을 행하는 은사는 언제 끝납니까?

### 인용구절

(막 2:10-12/한글킹제임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들을 용서할 권세를 가진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 하신 후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11)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네 집으로 가라.”고 하시니라. (12) 그가 즉시 일어나 침상을 들고 모든 사람 앞을 지나가니 모두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우리가 이같은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노라.”고 하니라.

(막 16:15-18)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행 8:5-8)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6)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8)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행 8:12)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행 3:12/한글킹제임스) 그것을 보던 베드로가 그 백성에게 대답하기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히 여기느냐? 마치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어찌하여 우리를 주시하느냐?”

(행 3:16) 그 이름을 믿으므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고전 1:7)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 정답

1. “기적”의 뜻을 정의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비범하고 특별한 현상 또는 자연적 법칙에 개입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2. 마가복음 2:10-12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할 권세

3. 마가복음 16:15-18을 읽어보세요. 믿는 자들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귀신(마귀)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를 고쳐야 한다.

4. 사도행전 8:5-8 그리고 12절을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본 것은 무엇이며 이에 대해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기적을 보았으며(7)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다(12).

5. 사도행전 3:12을 읽어보세요. 베드로 사도는 무엇이 기적을 일으켰다고 했습니까?  
그 사람을 치유한 것은 자신의 권능이나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6. 사도행전 3:16을 읽어보세요. 기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7. 신약 성경에서 사도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행해진 기적을 찾을 수 있습니까? (정답 뒤에 있는 추가 참고 구절을 참고하세요.)

**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막 9:38-39), 빌립(행 8:5-7), 아나니아(행 9:10-18)**

8. 고린도전서 1:7을 읽어보세요. 기적을 행하는 은사는 언제 끝납니까?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 추가 참고 구절

(막 9:38-39)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39)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행 8:5-7)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6)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행 9:10-18) 그 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1)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12)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13)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15)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17)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레벨 3

제 4강

## 하나님적인 인간관계의 능력

던 크로우

이번 강에서는 하나님적인 인간관계의 능력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것은 성경 전반에 걸쳐 나옵니다. 예를 들어 “교회”의 헬라어 원어는 ‘에클레시아’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 만나라는 독려를 받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매일 서로를 격려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할 때, 하나님적인 인간관계의 능력으로 인해 각 사람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장로”라는 말도 성경에 자주 쓰인 단어로 다른 사람들보다 나이가 많고 성숙하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으로서 자기 가족과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만약 저의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면 경건하고 오랜 경험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구할 것입니다.

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을 실제의 물리적인 몸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는 손이 있고 눈과 귀가 있으며 다른 몸의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몸의 다른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서로의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에게서 힘을 얻습니다. 몸의 각 부분이 각각의 은사와 재능을 가졌으며 각각의 방법으로 서로 힘과 지식을 주고받습니다.

야고보서 5:16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적인 인간관계의 능력에 관한 예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믿는 자의 제사장직에 대해 너무 강조한 나머지 성도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뿐, 서로서로에게 다가가지 않게 되어 놓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에게 잘못을 고하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예로 제가 가진 관계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와 가까운 사이인 로렌 루이스 박사는 나이가 많은 신사 분입니다. 저는 그분과 많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 분은 헬라어 학자라서 성경을 헬라어로 읽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분에게 헬라어에 관련된 질문을 합니다. 헬라어 시제에 대해서도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성경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십니다. 우리는 아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 분은 지혜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부부관계도, 가정생활도 모두 형통합니다. 성도로서 우리 모두는 서로의 잘못을 고백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말씀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라고 한 것을 저도 잘 압니다. 또한 제 말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것도 아니며 우리는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의 삶에서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적인 인간관계의 능력은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는 능력이며 주님을 구하도록 서로를 독려하는 관계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매일 서로를 권면하라고 하고 있으며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서로를 권면하고 경고하여 죄의 미혹으로 인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적인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적이지 않은 인간관계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적인 관계로 나를 보호하고 내 주변을 채우지 않으면 머지않아 있지 말아야 할 곳에 도달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잠 11:14, 13:20, 고전 15:33).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고후 6:14)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적인 관계로 주변을 채우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멀리 해야 합니다. 서로를 단련해 주고 의지가 되는 경건한 성도들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잠 27:17). 이 주제에 대해 계속 묵상해 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 제자되기 연습문제

1. 고린도전서 15:33을 읽어보세요. 이 구절은 관계에 대해 뭐라고 가르칩니까?
2. 고린도전서 12:12을 읽어보세요. 이 구절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3. 히브리서 10:24을 읽어보세요. 이 구절은 하나님적인 인간관계에 대해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4. 히브리서 10:25을 읽어보세요. 이 구절은 인간관계에 대해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5. 잠언 5:22-23을 읽어보세요. 불경건한 인간관계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6. 디모데후서 2:22을 읽어보세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의, 믿음, 사랑, 화평을 구해야 합니까?
7. 히브리서 13:7을 읽어보세요. 우리는 누구의 삶을 생각하고, 누구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까?

### 인용구절

(고전 15:33/한글킹제임스)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귀는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고전 12:12)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히 10:24-25)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잠 5:22-23/한글킹제임스) 악인은 자신의 악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들에 매이리라. (23) 그는 훈계 없이 죽을 것이요, 큰 어리석음으로 그릇되이 갈 것이니라.

(딤후 2:22)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히 13:7)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 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 정답

1. 고린도전서 15:33을 읽어보세요. 이 구절은 관계에 대해 뭐라고 가르칩니까?  
악한 사귀는 좋은 행실을 부패시킨다.
2. 고린도전서 12:12을 읽어보세요. 이 구절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물리적인 몸처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필요하다.
3. 히브리서 10:24을 읽어보세요. 이 구절은 하나님적인 인간관계에 대해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4. 히브리서 10:25을 읽어보세요. 이 구절은 인간관계에 대해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모여서 교제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한다.
5. 잠언 5:22-23을 읽어보세요. 불경건한 인간관계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큰 어리석음으로 그릇되이 가지 않기 위해(23절)
6. 디모데후서 2:22을 읽어보세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의, 믿음, 사랑, 화평을 구해야 합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7. 히브리서 13:7을 읽어보세요. 우리는 누구의 삶을 생각하고, 누구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 지도자들

### 레벨 3

### 제 5강

## 박해

### 던 크로우

마태복음 10:16-23을 보면 예수님은 다가올 공격에 대비해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원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게 되길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적으로(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 즉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습니다(딤후 3:12). 박해는 마귀를 쫓듯 쫓아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박해의 배후에는 원수 마귀가 있으며 의를 위해 나설 때 박해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준비시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마 10:16) 여기 “보라”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얘들아, 내 말을 들어봐라. 이것을 알아야 한다. 나는 마치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듯, 너희를 보낸다.” 양은 자기보호 능력이 없고 목자를 가장 의존하는 동물입니다. 양은 뱀 같은 송곳니도 없고 독도 없습니다. 자기를 방어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유일하게 양을 방어해줄 사람은 오직 목자뿐입니다.

양을 늑대에게서 보호해 주는 것은 목자가 할 일인데 예수님은 그 반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다가올 박해를 대비해 제자들을 준비시키고자 함이었습니다. 에베소서 6:12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를 반대하는 세력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직면하게 되는 것은 신앙생활의 일부이며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그것을 알기를 바라십니다. “뱀처럼 지혜로우라”(마 10:16) 예수님은 우리가 준비되길 원하십니다. 여기서 “지혜롭다”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에 합당한 지혜를 갖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조심하라”(마 10:17/한글킹제임스) 원수 마귀는 사람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2:2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은 우리를 저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저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지하기 위해 사람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마 10:17)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



고 때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십에서 하나 감한 때를 다섯 번 맞았으며”(고후 11:23-24) 예수님은 우리가 공회(정부에 관련된 사람들의 모임/역자 주)에 넘겨진다고 하십니다. 정부도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저지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공회와 왕 앞에 끌려 갈 것이며 그들 앞에서 간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전에 CBC에서 전도에 대한 강의를 했었습니다. 전도편지와 개인의 간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대략 100명에게 전도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메리앤이라는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면 안 되지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알아냈습니까?” “전화번호부에서 찾았는데요?(과거 미국 전화번호부에는 개인의 이름과 주소가 있었음/역자 주)” 그러자 그 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 이름과 전화번호는 전화번호부에 없어요!” 제가 다시 대답했습니다. “거기에서 봤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내일 경찰서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박해를 받는다는 성경말씀은 정말 진짜구나!’ 그리고 다음 날 정말로 경찰이 연락을 해왔고 두 시간 가까이 저를 심문했습니다.

거리엔 범죄로 가득한데 경찰은 저를 심문한다고 두 시간을 허비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하면 박해를 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냐고요? 물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언하고, 예수님을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의로운 삶을 살면 저지를 당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선의 힘도 역사하고 악의 힘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준비되길 바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19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넘겨 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하나님의 영을 가진 우리는 스테반처럼 지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스테반의 간증을 들은 사람들은 그의 지혜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22-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의를 저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저지하는 반대 세력이 실제로 역사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공원에 갔었을 때 일입니다. 할머니 한분이 그네에 앉아 계셨고 저는 ‘저분은 위험하지 않겠지. 나를 해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옆에 있는 그네에 앉아도 되는지 물어본 뒤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혹시 무슨 일을 하세요?”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냥 늙은이지요. 은퇴 후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그쪽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네, 저는 선교단체에서 일해요.” 그러자 갑자기 할머니의 표정이 바뀌더니 무례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만 해보쇼! 예수에 대해서도 절대 말하지 마시오!” 놀

란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있었다면 그 얼굴에 침이라도 뱉었을 거요!” “할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셨나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할머니. 음, 그럼 제 가족 애길 해볼까요?” “싫어! 나한테 말 걸지 말라고 했잖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 가족에게 한 일에 대해 말할 거잖아. 절대 말하지 마. 당신은 나에게 말할 수 없어.” “할머니,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 아셔야 해요.” 그러자 할머니는 크게 화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 닥치라니까!”

그 할머니는 작은 강아지를 데리고 있었는데 그 강아지가 으르렁 거릴 정도로 줄을 끌어당기며 떠나버렸습니다. 이 할머니가 그렇게까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 이유는 자기 안에 있는 불순종의 영이 그렇게 선동했기 때문입니다. 원수에게 지배당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가까이 대고 나에게 소리 지른 사람은 지금껏 아무도 없었는데.’ 그런데도 저의 마음엔 오직 할머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을 통제하지 못했지만 저는 저 자신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있잖아요, 가장 큰 기적이라면 제가 평안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할머니가 나를 향해 노발대발 하는데도 저는 그 할머니를 향한 사랑과 긍휼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박해와 저항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거절 받을 때에도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어떤 상황에 처해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강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 제자되기 연습문제

1. 디모데후서 3:12을 읽어보세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2. “박해”의 뜻을 정의해 보세요.
3. 마가복음 4:16-17을 읽어보세요. 환난과 박해는 왜 옵니까?
4. 사도행전 8:1, 4을 읽어보세요. 예루살렘에서의 박해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5. 마태복음 5:10-12을 읽어보세요. 무엇을 위해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까?
6. 마태복음 5:12을 읽어보세요. 믿는 자가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때 어떤 상급을 받게 됩니까?

7. 사도행전 9:4-5를 읽어보세요. 사울이 박해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8. 사도행전 9:1을 읽어보세요. 실제로는 사울이 누구를 박해했습니까?
9. 갈라디아서 6:12을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의 유대교인들은 복음 위에 율법을 더하려고 했습니다. 무엇을 피하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 인용구절

(딤후 3:12)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막 4:16-17)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17)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행 8:1)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행 8:4)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마 5:10-12)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행 9:4-5)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행 9:1)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갈 6:12)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 정답

1. 디모데후서 3:12을 읽어보세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박해를 받는다.
2. “박해”의 뜻을 정의해 보세요.  
겁주다. 어떤 사람의 신앙으로 인해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다.
3. 마가복음 4:16-17을 읽어보세요. 환난과 박해는 왜 옵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또는 말씀을 앗아가기 위해
4. 사도행전 8:1, 4을 읽어보세요. 예루살렘에서의 박해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사람들이 모든 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
5. 마태복음 5:10-12을 읽어보세요. 무엇을 위해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까?  
의
6. 마태복음 5:12을 읽어보세요. 믿는 자가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때 어떤 상급을 받게 됩니까?  
하늘의 큰 상
7. 사도행전 9:4-5를 읽어보세요. 사울이 박해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8. 사도행전 9:1을 읽어보세요. 실제로는 사울이 누구를 박해했습니까?  
주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9. 갈라디아서 6:12을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의 유대교인들은 복음 위에 율법을 더하려고 했습니다. 무엇을 피하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오는 박해를 면하려고. 즉 오직 은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전할 때 오는 박해를 피하려고 했다.

레벨 3

제 6강

## 왕과 그분의 왕국(Kingdom)

던 크로우

구약의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었던 이유는 그 나라가 신정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국가였습니다(사 43:15). 그 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자신들도 세상의 다른 나라들처럼 되길 원했고 세상 왕에게 다스림 받기 원했습니다(삼상 8:5-19). 하나님은 그들의 요청을 들어 주셨고 사울이라는 왕을 선택해 주셨습니다(삼상 10:24-25). 그러나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행 13:21-22, 왕상 15:3).

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였습니다(신 17:14-20). 왕이 주님을 따랐을 때, 왕과 그의 왕국은 형통했고 왕이 주님을 따르지 않았을 때, 왕과 그의 왕국은 포로로 끌려가 파멸의 길을 걸었습니다(삼상 15:22-23).

하나님께서 왕을 선택하실 때에는 선지자를 보내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것은 왕이 통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하셔서 기름부어주시는 것의 예표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왕에게 임하여 그의 마음을 바꿔 주셨고 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삼상 10:1, 6-7, 9). 이렇듯 다스리게 하는 기름부으심(또는 왕으로 기름부으심)에서 메시아의 개념이 나옵니다. 메시아(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부음을 받은”이라는 뜻이며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그리스도)로 번역되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래에 메시아(또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오신다고 예언했고 하늘의 하나님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나라(왕국)를 세우실 것이라고 했습니다(단 2:44, 7:14, 27).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왕국을 이야기하실 때, 유대인들에게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왕국은 그들이 이미 추구했던 구약의 개념이었기 때문입니다(사 9:6-7, 11:1-6, 단 2:44, 7:13-14, 18, 27).

왕국에 대한 기본 이해 없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왕국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내용이었고 제자들에게 전파하라고 하신 유일한 내용이었습니다(막 1:14-15, 눅 9:1-2, 행 28:23-31, 눅 16:16, 마 24:14). 이 메시지는 또한 “구원”이라고 소개되기도 했고 “영생”을 주시는 것으로도 표현되었습니다(히 2:3, 마 19:16과 19:23 비교, 행 28:23-24, 28, 30-31). “하나님의 나라(왕국)”라는 표현 속에는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바로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 마음의 변화를 성경은 회개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변화, 즉 사탄에게서 돌아서는 것, 죄와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그리스

도와 그의 길로 돌아서는 것을 뜻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선물로써 죄의 용서와 영생을 거저 주십니다(롬 6:23). 이 “좋은 소식”은 “은혜의 복음”이라고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라고도 표현 됩니다(행 20:24-25).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바로 은혜이며(마 20:1-16)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 조용하고도 은밀하게 임했습니다(마 13:33). 그러나 다시 오실 때에는 영광스럽고 찬란하게 임할 것입니다(마 13:36-43).

### 제자되기 연습문제

1. 다니엘 2:44을 읽어보세요. 구약의 선지자, 다니엘은 장래에 메시아(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온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어떠한 나라를 세우신다고 했습니까?
  - A. 천 년간 지속되는 나라
  - B.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
  - C. 일시적인 나라
2. 마태복음 4:17, 23을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3. 마가복음 1:14-15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복음을 전파하셨습니까?
4. 누가복음 4:43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무슨 일을 위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5. 요한복음 4:25을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에게는 그 뜻을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A. 그들이 몰랐던 것이기 때문에
  - B.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 C. 그들이 이미 추구하던 것이었기 때문에
6. 누가복음 9:1-2을 읽어보세요. 열 두 제자가 했던 세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7. 누가복음 10:1-2과 8-9을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70인에게 전파하라고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8. 누가복음 23:2을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의 정의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9. 사도행전 17:7을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의 주장은 바울이 로마법을 어겨가며 \_\_\_\_\_라 하는 다른 \_\_\_\_\_이 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10. 사도행전 19:8-10을 읽어보세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_\_\_\_\_에 대해 담대히 토론도 하고 받아들여이도록 설득했습니다.
11. 사도행전 28:23-31을 읽어보세요.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전파했다고 합니까?
12. 마태복음 24:14을 읽어보세요. 온 세상에 전파 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3. 사도행전 20:24-25을 읽어보세요. 왕국 복음은 무엇으로도 불립니까?
14. 누가복음 16:16을 읽어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며 제자들에게 \_\_\_\_\_ 하라고 하신 유일한 것입니다.
- A. 전파  
B. 외면  
C. 숙고
15. 마태복음 6:10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설명되었습니까?
16. 골로새서 1:13-14과 로마서 14:9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까?
- A.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B. 사탄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죄 사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C.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17. 마태복음 4:17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마음의 변화는 필수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를 성경은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 A. 참회  
B. 율법의 행위  
C. 회개
18. 사도행전 26:18을 읽어보고 다음 빈칸을 채워 보세요. 그 눈을 뜨게 하여 \_\_\_\_\_에서 빛으로, 사탄의 \_\_\_\_\_에서 \_\_\_\_\_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19. 에스겔 36:26-27과 사도행전 11:15-18을 읽어보세요. 당신은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 하나님의 길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20. 누가복음 18:13-14을 읽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께 구하여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 인용구절

(단 2:44)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마 4:17)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 4:23)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막 1:14-15)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눅 4:4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요 4:25)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눅 9:1-2)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2)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눅 10:1-2) 그 후에 주께서 따로 칠십 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2)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눅 10:8-9)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9)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눅 23:2)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행 17:7)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행 19:8-10)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9)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10)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행 28:23-31)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24)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25)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26)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27)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 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28)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29) 그가 이 말을 마칠 때에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가더라 (30)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마 24:14/한글킹제임스)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행 20:24-25)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5)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눅 16:16)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마 6:10)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골 1:13-14)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롬 14:9)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마 4:17)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행 26:18)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겔 36:26-27)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행 11:15-18)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16)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17)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18)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눅 18:13-14)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 정답

1. 다니엘 2:44을 읽어보세요. 구약의 선지자, 다니엘은 장래에 메시아(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온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어떠한 나라를 세우신다고 했습니까?

**B.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

2. 마태복음 4:17, 23을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3. 마가복음 1:14-15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4. 누가복음 4:43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무슨 일을 위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

5. 요한복음 4:25을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에게는 그 뜻을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C. 그들이 이미 추구하던 것이었기 때문에

6. 누가복음 9:1-2을 읽어보세요. 열 두 제자가 했던 세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7. 누가복음 10:1-2과 8-9을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70인에게 전파하라고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8. 누가복음 23:2을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의 정의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왕

9. 사도행전 17:7을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의 주장은 바울이 로마법을 어겨가며 \_\_\_\_\_라 하는 다른 \_\_\_\_\_이 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왕

10. 사도행전 19:8-10을 읽어보세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_\_\_\_\_에 대해 담대히 토론도 하고 받아들여도 설득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11. 사도행전 28:23-31을 읽어보세요.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전파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12. 마태복음 24:14을 읽어보세요. 온 세상에 전파 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왕국 복음(Gospel of the Kingdom)

13. 사도행전 20:24-25을 읽어보세요. 왕국 복음은 무엇으로도 불립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14. 누가복음 16:16을 읽어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며 제자들에게 \_\_\_\_\_ 하라고 하신 유일한 것입니다.

**A. 전파**

15. 마태복음 6:10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설명되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6. 골로새서 1:13-14과 로마서 14:9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까?

**B. 사탄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죄 사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17. 마태복음 4:17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마음의 변화는 필수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를 성경은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C. 회개**

18. 사도행전 26:18을 읽어보고 다음 빈칸을 채워 보세요. 그 눈을 뜨게 하여 \_\_\_\_\_ 에서 빛으로, 사탄의 \_\_\_\_\_ 에서 \_\_\_\_\_ 계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어둠, 권세, 하나님

19. 에스겔 36:26-27과 사도행전 11:15-18을 읽어보세요. 당신은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 하나님의 길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20. 누가복음 18:13-14을 읽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께 구하여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 레벨 3

### 제 7강

## 구원하는 믿음의 목적

던 크로우

결혼식에서 주례를 맡은 목사님이 신랑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여자를 당신의 전용 요리사로, 청소와 설거지를 위한 가정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오늘부터 영원히 두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 여자를 바닥 쓸고 먼지를 털 청소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자 신부가 말합니다. “잠깐만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면 가정부를 고용해야죠.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을 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해 줄 수 있는 일’만 욕심내는 사람은 저도 원치 않습니다.”

다음은 A. W. 토저가 한 말입니다.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바로 그리스도 한 분 뿐이라는 것을 모르는 교인들이 있다. 그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요 주님으로서의 그리스도도 아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다.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여러 개의 직분 중에 하나를 믿을 때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직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속죄를 믿으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며 십자가나 구세주의 제사장직을 믿으라는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라는 인격체 안에 들어있는 것이며 결코 따로 구분되거나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여러 직분들 중에서 하나는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거부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렇게 해도 된다는 개념은 현대의 이단적 주장이며 다른 모든 이단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악한 결과를 초래했다.”(The Root of the Righteous, p84-86).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우리는 왜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아닌 그리스도의 일부나 그분이 주시는 유익의 일부, 또는 그리스도의 직분만을 강조합니까? 그것은 마치 한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그 여인 자체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요리사를 채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 제자되기 연습문제

1. 요한복음 1:12을 읽어보세요. 누구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까?
  - A. 그(주 예수 그리스도)
  - B. 구원자로서의 예수
  - C. 주님으로서의 예수
  - D.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2. 사도행전 16:31을 읽어보세요.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3. 누가복음 6:46을 읽어보세요. “주”는 무슨 뜻입니까?
4. 마태복음 1:21을 읽어보세요. “예수”는 무슨 뜻입니까?
5. 누가복음 23:2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6. 로마서 1:16을 읽어보세요. 이 구절에 따르면 복음이란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7. 로마서 1:1-3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8. 요한복음 6:54을 읽어보세요. 뭇가를 먹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9. 갈라디아서 3:27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무엇으로 옷 입었습니까?
10. 사도행전 9:5-6을 읽어보세요. 사울이 회개했을 때 그가 예수님께 물었던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11. 로마서 7:4을 읽어보세요. 우리는 누구와 혼인(연합)했습니까?
12. 당신은 그리스도와 혼인관계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분과 얘기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며 그분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 인용구절

(요 1:12/한글킹제임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행 16:31/한글킹제임스)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니라.

(눅 6:46)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마 1: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눅 23:2)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롬 1:16/한글킹제임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롬 1:1-3)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2)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요 6:54)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갈 3:27)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행 9:5-6)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6)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롬 7:4)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 정답

1. 요한복음 1:12을 읽어보세요. 누구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까?

A. 그(주 예수 그리스도)

2. 사도행전 16:31을 읽어보세요.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3. 누가복음 6:46을 읽어보세요. “주”는 무슨 뜻입니까?

주인, 지도자, 우리의 삶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신 분. 신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4. 마태복음 1:21을 읽어보세요. “예수”는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

5. 누가복음 23:2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왕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

- 
6. 로마서 1:16을 읽어보세요. 이 구절에 따르면 복음이란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그리스도(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유익 포함한다.)
7. 로마서 1:1-3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8. 요한복음 6:54을 읽어보세요. 뭔가를 먹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먹는 그것을 다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뜻. 내가 먹는 것이 나의 생명, 나의 힘이 된다.
9. 갈라디아서 3:27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무엇으로 옷 입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음
10. 사도행전 9:5-6을 읽어보세요. 사울이 회개했을 때 그가 예수님께 물었던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누구시나이까?(하나님은 누구신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자신의 소명)
11. 로마서 7:4을 읽어보세요. 우리는 누구와 혼인(연합)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12. 당신은 그리스도와 혼인관계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분과 얘기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며 그분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레벨 3

제 8강

## 율법의 올바른 사용

던 크로우

어느 날 친구 빌과 스티브를 만나 호숫가에서 얘기를 나누는 중에 질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까지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제가 답했습니다. “빌, 자네가 스티브의 집에 찾아갔다고 해 볼까? 그런데 그는 집에 없었고 그의 아내만 있었어. 그런데 만약 자네가 스티브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면 자네는 친구의 아내를 범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겠나? 십계명에 대해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고 성경책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고 해도 죄책감은 느껴진다네. 그 죄책감과 책임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하나님께서서는 율법과 양심을 통해 옳은 것을 감지하는 능력과 잘못된 일에 대하여 느끼는 죄책감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율법과 양심은 ‘자가 정죄 기능’으로써 우리의 행동에 대해 고발하고 변명하는 역할을 합니다(롬 2:14-15).

제 친구 빌은 자신이 얼마나 선하게 살아왔는지에 대해 항상 저에게 말해왔습니다. 자신은 구세주가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출애굽기 20장을 열어 그에게 10계명을 읽어준 뒤 이렇게 물었습니다. “빌, 자네의 삶에 가장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입니까?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있는가? 만약 아니라면 자네는 첫 번째 계명을 어긴 거라네(출 20:3).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은 없었는가? 만약 있었다면 두 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고(출 20:4).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처럼 사용한 적은 없었나? 그러면 세 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지(출 20:7). 하나님께 영광과 예배를 올려 드리기 위해 일주일에 하루는 항상 구별해서 떼어 드렸나? 아니라면 네 번째 계명을 어긴 거라네(출 20:8). 어렸을 때 항상 부모님을 존경했었나? 아니라면 다섯 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고(출 20:12). 누군가에게 엄청 화낸 적은 없었나? 있었다면 여섯 번째 계명도 어긴 것이지(출 20:13, 마 5:21-22).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적이 있었다면 일곱 번째 계명을 어긴 거라네(출 20:14, 마 5:27-28). 자기 것이 아닌 걸 취한 적은 없었고? 만일 있었다면 여덟 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지(출 20:15). 나에게 항상 진실만을 말해왔나? 아니라면 아홉 번째 계명을 어겼다네(출 20:16). 다른 사람의 것을 갖고 싶어 한 적은? 있었다면 열 번째 계명까지 어긴 것이지(출 20:17). 이제 왜 예수님께서서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겠나(막 2:16-17)?”

자신이 깨나 선한 사람이라는 생각 또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의 문제는 바로 우리 모두가 십계명 전부를 다 어겼다는 것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야고보서 2:10은 율법을 전부 다 지키다가도 하나를 어기면 모든 것을 다 어긴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드러내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롬 3:19-20).

우리 모두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구세주”라는 말은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해주는 분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멸망해 가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마 1:21).

천국에 갈 수 있을 만큼 선하려면 하나님의 의와 동일한 의가 있어야 합니다(고후 5:21). 그리고 복음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를 선물로 거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롬 5:17)

### 제자되기 연습문제

1. 마가복음 2:16-17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2. 로마서 2:1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 우리 자신에게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3. 야고보서 2:10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고 한 가지 계명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됩니까?
  
4. 갈라디아서 3:10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면 얼마큼, 언제까지 지켜야 합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5. 갈라디아서 2:16을 읽어보세요. 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써,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해 줍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가 주어지며 그 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영원합니다(고전 15:3-4, 롬 4:25). 그렇다면 무엇을 의지 할 때 의를 얻지 못합니까?  
  
사람은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율법으로 구원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6. 로마서 6:14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디 아래 있습니까?  
A. 율법 아래  
B. 은혜 아래
  
7. 에스겔 18:20을 읽어보세요. 율법 아래 있다면 죄에 대한 징벌은 무엇입니까?

8. 로마서 4:6-8을 읽어보세요. 은혜 아래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9. 로마서 5:1을 읽어보세요.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니 어떤 것을 누리야 하겠습니까?
10. 로마서 5:9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11. 로마서 10:4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12. 고린도전서 1:30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무엇이 되셨습니까?
13. 빌립보서 3:9을 읽어보세요. 모세의 법 아래에서 얻는 의는 어떤 의입니까?
14. 고린도전서 11:1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지키는 법이 아니라 인격이신 한 분에게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 순종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15. 로마서 8:3을 읽어보세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우리\_\_\_\_\_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 인용구절

(막 2:16-17)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17)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롬 2:1)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약 2:10)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갈 3:10)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 2:16)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롬 6:14)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겔 18:20)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롬 4:6-8)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7)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8)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롬 5: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롬 5:9)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롬 10:4)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고전 1:30)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빌 3:9)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고전 11:1)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롬 8:3)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 정답

1. 마가복음 2:16-17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죄인

2. 로마서 2:1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 우리 자신에게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스스로를 정죄함

왜 그렇습니까?

판단하는 자신이 똑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3. 야고보서 2:10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고 한 가지 계명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됩니까?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이 된다.

4. 갈라디아서 3:10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면 얼마큼, 언제까지 지켜야 합니까?

율법 전부를 항상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네

5. 갈라디아서 2:16을 읽어보세요. 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써,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해 줍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가 주어지며 그 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영원합니다 (고전 15:3-4, 롬 4:25). 그렇다면 무엇을 의지 할 때 의를 얻지 못합니까?

자신의 공로, 율법의 행위

사람은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율법으로 구원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육체도 율법으로 구원 받을 수 없다.

6. 로마서 6:14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디 아래 있습니까?

B. 은혜 아래



7. 에스겔 18:20을 읽어보세요. 율법 아래 있다면 죄에 대한 징벌은 무엇입니까?

죽음(사망)

8. 로마서 4:6-8을 읽어보세요. 은혜 아래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용서하고 덮어 주시며 죄를 죄로 여기지(인정하지) 않으신다.

9. 로마서 5:1을 읽어보세요.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니 어떤 것을 누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화평

10. 로마서 5:9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진노하심

11. 로마서 10:4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의

12. 고린도전서 1:30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무엇이 되셨습니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13. 빌립보서 3:9을 읽어보세요. 모세의 법 아래에서 얻는 의는 어떤 의입니까?

자기 의

14. 고린도전서 11:1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지키는 법이 아니라 인격이신 한 분에게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 순종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15. 로마서 8:3을 읽어보세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우리 \_\_\_\_\_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

### 레벨 3

### 제 9강

## 율법 아래가 아닌 은혜 아래

던 크로우

한번은 꿈을 꿴는데 한 여자가 자신의 죄에 대해 끊임없이 벌을 받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쫓아다니면서 그 여자가 실수할 때마다 경멸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벨트를 풀어 그 여자를 채찍질했습니다. 여자가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할라치면 그 때마다 그는 매번 여자를 벌했습니다. 그 여자는 절뚝거리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으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실수를 했습니다. 별로 대단한 실수도 아니었는데 이 남자는 여자의 실수가 발견될 때마다 채찍으로 내리쳤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실수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너무나도 불쌍했습니다. 그 못된 남자로부터 도망칠 수 있도록 여자를 돕고 싶었지만 이내 꿈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마음이 은혜 안에 세워지면 우리는 자신의 행위 또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용납을 얻어 내려던 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데 대한 징벌에서 마침내 자유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호의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호의란 누군가의 인정, 지지 또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호의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할 일이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요. 항상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얼마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중력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동안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꿈에 나온 그 여자가 마치 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 잘 해보려고 하다가 하나를 놓치면 전부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하루 만이라도 실수 없이 지낼 수 있다면 뭔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저는 항상 불완전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제가 저의 하늘 아버지를 실망시켰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저 자신을 정죄하고 채찍질 했었습니다. 나 자신에 의해 패배자가 된 것이지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니 항상 부족했고, 항상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구해줄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긍휼로 인해 우리에게 도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도움의 이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자신으로부터 또 율법을 지키려 했던 처절한 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의 징벌을 대신 받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

고 자유케 되어 그분과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의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고 거룩한 자들로 세워주셨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됨 그리고 부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격 없이 거저 받은 하나님의 호의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은 의심 없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당신의 마음을 안전하고 안정되게 유지하십시오. 그 말은 풍성한 삶을 위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는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대신에 우리의 부족함이나 실수, 죄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마음은 슬퍼지고 힘을 잃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도 받을 수 없을 거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와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주님께 드러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만족하고 안식하게 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 4:23)

### 제자되기 연습문제

1. 저자는 이 강에서 “은혜”를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2. 빈칸을 채워 보세요. “우리 마음이 은혜 위에 세워 질 때, 우리의 \_\_\_\_\_로 하나님의 용납을 얻어내려는 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된다.”
3. 히브리서 10:14을 읽어보세요. 저자의 부족함은 항상 자신을 불완전한 존재로 보게 했습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우리는 어떻게 완전하게 되었습니까?
4. 로마서 5:17을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_\_\_\_\_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었습니다.
5. 이사야 26:3을 읽어보세요. 만약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대신에 우리의 부족함이나 실수, 죄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마음은 슬퍼지고 힘을 잃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고정시켜야 합니까?
6. 에베소서 3:17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9장 본문의 마지막 문장을 읽어보고 빈칸을 채워 보세요.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주님께 드러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_\_\_\_\_.”

7. 로마서 4:5을 읽어보세요. 구원은 얻어내는 상급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는 선물입니까?
8. 로마서 5:17을 읽어보세요. 의(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기 위해 일해야 합니까? 선물은 어떻게 받습니까?
9. 로마서 6:23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10. 디도서 3:5을 읽어보세요. 우리의 선행과 공로는 구원을 얻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됩니까?
11. 로마서 6:14을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의미를 정의해보세요.
12. 로마서 11:6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로 된 것이면 \_\_\_\_\_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13. 로마서 3:24을 읽어보시고 이 구절의 뜻을 자신만의 정의로 설명해 보세요.
14. 에베소서 1:7을 읽어보세요. 우리의 죄는 무엇을 따라 사함을 받았습니까?

### 인용구절

(히 10:14)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롬 5:17)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사 26:3)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엡 3:17/킹제임스 흠정역)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

(롬 4:5)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롬 5:17)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롬 6:23)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딤후 3:5)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롬 6:14)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롬 11:6)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롬 3: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엡 1:7)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 정답

1. 저자는 이 강에서 “은혜”를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자격 없이 거저 받는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능력
2. 빈칸을 채워 보세요. “우리 마음이 은혜 위에 세워 질 때, 우리의 \_\_\_\_\_로 하나님의 용납을 얻어내려는 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된다.”  
행위
3. 히브리서 10:14을 읽어보세요. 저자의 부족함은 항상 자신을 불완전한 존재로 보게 했습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우리는 어떻게 완전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사가 우리를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
4. 로마서 5:17을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_\_\_\_\_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었습니다.  
선물
5. 이사야 26:3을 읽어보세요. 만약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대신에 우리의 부족함이나 실수, 죄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마음은 슬퍼지고 힘을 잃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도 받을 수 없을 거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고정시켜야 합니까?  
우리의 생각은 주님께 고정되어야 한다.

6. 에베소서 3:17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9장 본문의 마지막 문장을 읽어보고 빈칸을 채워 보세요.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주님께 드러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_\_\_\_\_.”  
만족하고 안식하게 됩니다.
7. 로마서 4:5을 읽어보세요. 구원은 얻어내는 상급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는 선물입니까?  
하나님 은혜로 거저 받는 선물
8. 로마서 5:17을 읽어보세요. 의(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기 위해 일해야 합니까?  
아니요
- 선물은 어떻게 받습니까?  
단순히 손을 뻗어 취하므로 받는다.
9. 로마서 6:23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사망 대신 받는 영원한 생명
10. 디도서 3:5을 읽어보세요. 우리의 선행과 공로는 구원을 얻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됩니까?  
전혀 안 된다.
11. 로마서 6:14을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의미를 정의해보세요.  
우리의 죄 값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최선(best)을 받는 것. 오직 하나님의 공휼에 의해서 의, 용납, 용서를 선물로 거저 받는 것.
12. 로마서 11:6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로 된 것이면 \_\_\_\_\_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행위
13. 로마서 3:24을 읽어보시고 이 구절의 뜻을 자신만의 정의로 설명해 보세요.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는 선물이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사역을 통해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14. 에베소서 1:7을 읽어보세요. 우리의 죄는 무엇을 따라 사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레벨 3

제 10강

## 죄에 대한 의식은 이제 그만

던 크로우

한 남자가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반대편 차에 타고 있던 18살 여자아이가 즉사했습니다. 그 이후 죽은 여자아이의 부모는 이 남자를 상대로 벌인 소송에서 이겼고 남자는 그 가족에게 150만 달러(약 17억)를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은 150만 달러를 받는 대신 936달러(약 100원)만 받기로 했는데 그 이유는 이 돈을 조금 독특한 방식으로 받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족은 술에 취해 운전했던 이 남자가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계속해서 기억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은 이 남자에게 죽은 여자아이 이름으로 매주 수표를 써서 1달러씩 보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150만 달러 대신에 936달러만 갚으면 되는 상황이 꽤나 좋은 거래로 보였겠지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1달러씩 보내는 것이 어렵지 않았지만 시간이 좀 지나자 죽은 여자아이의 이름으로 수표를 써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그 남자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죽인 여자아이 생각에 매주 우울함과 싸워야 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돈을 안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가족은 그를 또 고소했고 다시 돈을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6-7년간 이 남자는 4-5번 돈 보내는 일을 멈췄습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은 매번 그를 다시 고소했고 그때마다 죽은 여자아이의 이름으로 돈을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가족은 자신들이 그 남자에게 더 이상 분노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 다만 그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상기시켜 주려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가족 역시 그 남자만큼이나 속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역시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상기시켜 주는 돈을 매주 받아야 했으며 그 말은 그들 역시 죽은 딸을 떠나보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이 남자가 그 가족을 고소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그 가족의 죄명은 그들이 벌인 “잔인하고 비상한 징벌의 집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내 과거를 잊고 삶을 이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정죄 아래 살면서 고통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부 다 갚으셨습니다.”라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이들은 매주 종교적인 의무를 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받아주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 제자되기 연습문제

1. 본문에 나오는 남자는 이런 일이 진행되는 동안 그 가족들과의 관계가 어떠했을까요?
2. 히브리서 10:1을 읽어보세요. 율법이 하지 못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3. 히브리서 10:1을 읽어보세요. 이 구절을 통해 구약의 제사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을 적어보세요.
4. 히브리서 10:2을 읽어보세요. 죄를 근본적으로 다루 줄 제사가 있었다면 그 제사는 섬기는 자들(제사를 드리는 자, 예배 자)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5. 본문에 음주 운전을 했던 이 남자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까?
6. 히브리서 10:14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떤 방법으로 온전케 하십니까?
  - A. 그들의 선한 행위를 통해
  - B. 교회 등록과 출석을 통해
  - C. 10계명을 지켰는지의 여부를 통해
  - D. 예수님의 제사(십자가에서의 희생)를 통해
7. 히브리서 10:14을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받는 예수님의 제사는 믿는 자들을 언제까지 온전케 해 주니까?
  - A. 다음 죄를 짓기 전까지
  - B. 과거의 죄 까지만
  - C. 영원히
8. 창세기 20:1-18을 읽어보세요. 이 이야기에 나온 두 남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9. 창세기 20:2, 5을 읽어보세요. 거짓말을 하고 속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10. 창세기 20:7을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의 잘못된 행동을 두둔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누구 편이셨으며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15:1, 18과 야고보서 2:23을 읽어보세요.

11. 창세기 20:7과 17-18을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누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A.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B.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위해  
 C. 서로 서로를 위해
12. 로마서 8:31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지라도 누가 우리 편이십니까?
13. 로마서 4:8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14. 히브리서 8:12-13을 읽어보세요. 새 언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까?
15. 에베소서 2:5과 8-9을 읽어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16. 디도서 3:5을 읽어보세요. 우리의 구원은 어떤 것으로 말미암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17. 에베소서 1:6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_\_\_\_\_ 그 \_\_\_\_\_의 영광을 영원히 찬양하게 하려 하십니다.

### 인용구절

(히 10:1-2)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2)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히 10:14)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창 20:1-18)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2)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3)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4)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5)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6)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

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7)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8) 아비멜렉이 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 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9)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10)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11)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 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12)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13)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 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푼 은혜라 하였었노라 (14)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15)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16)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천 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17)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18)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라

(창 20:2/킹제임스 흠정역)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가니라.

(창 20:5)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창 20:7)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창 15:1) 이 후에 여호와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 15:18)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약 2:23)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창 20:7)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창 20:17-18)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 하게 하셨으니 (18)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단으셨 음이더라

(롬 8:31)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 적하리요

(롬 4:8)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히 8:12-13)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3)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엡 2:5)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엡 2:8-9)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딤후 3:5)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엡 1:6/한글킹제임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시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 정답

1. 본문에 나오는 남자는 이런 일이 진행되는 동안 그 가족들과의 관계가 어떠했을까요?  
용서치 못함, 쓴 뿌리, 다툼으로 가득한 관계
2. 히브리서 10:1을 읽어보세요. 율법이 하지 못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흠 없게) 할 수 없었다.
3. 히브리서 10:1을 읽어보세요. 이 구절을 통해 구약의 제사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 려주는 부분을 적어보세요.  
해마다 늘(매일, 매주, 매달) 드리는 같은 제사. 이렇게 반복해야 했다는 사실이 죄의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 해 준다.

4. 히브리서 10:2을 읽어보세요. 죄를 근본적으로 다뤄 줄 제사가 있었다면 그 제사는 섬기는 자들(제사를 드리는 자, 예배 자)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죄에 대한 의식(낙심과 좌절)을 없애 주었을 것이다.
5. 본문에 음주 운전을 했던 이 남자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까?  
자신이 저질렀던 죄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6. 히브리서 10:14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떤 방법으로 온전케 하십니까?  
D. 예수님의 제사(십자가에서의 희생)를 통해
7. 히브리서 10:14을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받는 예수님의 제사는 믿는 자들을 언제까지 온전케 해 주니까?  
C. 영원히
8. 창세기 20:1-18을 읽어보세요. 이 이야기에 나온 두 남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9. 창세기 20:2, 5을 읽어보세요. 거짓말을 하고 속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10. 창세기 20:7을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의 잘못된 행동을 두둔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누구 편이셨으며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15:1, 18과 야고보서 2:23을 읽어보세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친구였기 때문에
11. 창세기 20:7과 17-18을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누가 누굴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A.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12. 로마서 8:31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지라도 누가 우리 편이십니까?  
하나님
13. 로마서 4:8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죄 없다고 하신다(우리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신다).
14. 히브리서 8:12-13을 읽어보세요. 새 언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15. 에베소서 2:5과 8-9을 읽어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분의 은혜로. 받을 자격이 없는 호의와 공화로

16. 디도서 3:5을 읽어보세요. 우리의 구원은 어떤 것으로 말미암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의 공활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17. 에베소서 1:6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_\_\_\_\_ 그 \_\_\_\_\_의 영광을 영원히 찬양하게 하려 하십니다.

받아들이시어, 은혜

### 레벨 3

### 제 11강

# 나는 사랑받는 자이며, 나는 아름답습니다

던 크로우

하루는 제 사무실로 마이클이라는 학생이 찾아와서 페트리샤라는 학생에 대해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고 있을 때 페트리샤가 뭐가 끄적거렸답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이며, 나는 아름답습니다.” 페트리샤는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옷차림으로 유명한 학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페트리샤가 그렇게 쓴 진짜 이유는 자신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과 자신이 아름답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페트리샤는 자신이 거절 받았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곤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 용납 받고자 하는 욕구, 가치 있게 여김을 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또한 높은 자존감을 원하며 자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들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받지 못한다, 우리는 가치가 없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느끼게 합니다. 사탄이 믿는 자들을 상대로 사용하는 견고한 진은 바로 죄의식과 정죄감입니다. 게다가 그런 감정이 영적이라고 느끼게까지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께 처음 나아왔을 때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실 뿐 아니라 당신을 받아 주셨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완벽한 의가 되셨다는 것도 함께 들으셨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 그것뿐입니다. 그 의만 있으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0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것이 바로 복음의 좋은 소식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롬 1:16-17)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롬 4:5)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감 있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믿음 자체를 믿거나 물질(things,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는 것/역자 주)을 믿으라고 우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보다 더 많이 당신을 사랑하실 수 없습니다. 이미 더 사랑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요일 4:8). 하지만 당신이 더 많이 받을 수는 있습니다.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믿으면 믿을수록 당신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요일 4:19) 이것을 생각해 보고,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 제자되기 연습문제

1. 로마서 8:38-39을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확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 어떤 신학교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을 뿐 의롭게 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로마서 5:19을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율법을 지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A.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
  - B.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
  - C. 의롭게 되었다.
3. 고린도후서 5:21을 읽고 빈칸을 채워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_\_\_\_\_.
4. 골로새서 1:21-22을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_\_\_\_\_ 우리를 기록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하고자 함입니다.
  - A. 나 자신이 보기에
  - B.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 C. 하나님이 보시기에
5. 에베소서 1:6을 읽고 빈칸을 채워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_\_\_\_\_ 그 은혜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양케 하려 하심입니다.
6. 히브리서 10:14을 읽어보세요. 예수님과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 우리는 얼마 동안 온전해 졌습니까?
  - A. 다음 죄를 짓기 전까지
  - B. 교회 가서 회개하기 전까지
  - C. 영원히
7. 히브리서 10:15-17을 읽어보세요.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
  - A. 전부 기억하고 계신다.
  - B. 일부 기억하고 계신다.
  - C. 기억하지 않으신다.
8. 로마서 6:1-2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죄를 전부 다 합친 것 보다 크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많이 드러나도록 계속 죄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9. 히브리서 9:12을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서는 어떠한 속죄(죄의 대가에서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10. 로마서 8:33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11. 로마서 8:34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12. 로마서 8:35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13. 로마서 8:31을 읽어보세요. 이 강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 인용구절

(롬 8:38-39)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롬 5:19)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고후 5: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골 1:21-22/한글킹제임스) 너희가 전에는 악한 행실로 인하여 멀리 떠나 너희의 생각으로 원수가 되었으나 (22) 이제는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육신의 몸 안에서 그가 화해케 하셨으니, 그가 보시기에 너희를 기록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하고자 함이라.

(엡 1:6/킹제임스 흠정역)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 주셨으니

(히 10:14-17) 그가 기록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5)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16)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17)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롬 6:1-2)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히 9: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롬 8:33)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롬 8:34:35)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롬 8:31)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 정답

1. 로마서 8:38-39을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확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을 확신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2. 어떤 신학교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을 뿐 의롭게 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로마서 5:19을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율법을 지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C. 의롭게 되었다.

3. 고린도후서 5:21을 읽고 빈칸을 채워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_\_\_\_\_.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4. 골로새서 1:21-22을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_\_\_\_\_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하고자 함입니다.

C. 하나님이 보시기에

5. 에베소서 1:6을 읽고 빈칸을 채워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_\_\_\_\_  
 그 은혜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양케 하려 하심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이(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시어
6. 히브리서 10:14을 읽어보세요. 예수님과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 우리는 얼마 동안 온전해 졌습니까?  
 C. 영원히
7. 히브리서 10:15-17을 읽어보세요.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  
 C. 기억하지 않으신다.
8. 로마서 6:1-2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죄를 전부 다 합친 것 보다 크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많이 드러나도록 계속 죄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9. 히브리서 9:12을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서는 어떠한 속죄(죄의 대가에서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  
 습니까?  
 영원한 속죄
10. 로마서 8:33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
11. 로마서 8:34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다.
12. 로마서 8:35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다.
13. 로마서 8:31을 읽어보세요. 이 강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레벨 3

제 12강

# 구원의 열매 1

던 크로우

단 한 번의 믿음의 행동은 그것이 지속되지 않더라도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믿음은 멈췄지만 그에 대한 약속은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습니다(창 15:6). 만일 아브라함의 믿음이 멈췄다면(끝났다면), 그가 받은 의도 멈췄을까요?

“믿음”이란 한 번의 행동(헬라어의 부정과거 시제)으로 완전하게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지만 헬라어의 현재시제를 보면 믿음은 신앙생활에서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시제로 주어진 명령들은 그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삶에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시제가 사용된 구절에 아래의 단어들을 삽입하면 성경을 읽을 때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단어들입니다. 반복적으로; 거듭,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생활 방식으로써, 끊임없이.

아래 구절들을 헬라어의 현재시제로 볼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 ]안은 모두 저자 주)

요한복음 3:16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현재시제: 믿고 계속해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0:14(한글킹제임스) -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써 거룩하게 된(KJV sanctified)[현재시제: 구별되고 계속해서 구별된. 뉴킹제임스 번역본(NKJV)은 “성화 되어가는” 이라고 했으며 NIV는 “거룩하게 되어가는” 이라고 번역했음]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3:9 -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현재시제: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보여주는 삶의 방식으로써의 죄를 짓지 않으며]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현재시제: 하나님의 씨가 거하고 또 계속해서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현재시제: 삶의 방식으로써 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마가복음 1:15 -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현재시제: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회개하고 또 계속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현재시제: 믿고 또 계속해서 믿으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5:24 -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현재시제: 계속해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가복음 15:7 -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현재시제: 계속해서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사도행전 17:30 -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시라[현재시제: 계속해서 명하시라] 회개하라[현재시제: 계속해서 회개하라] 하셨으니

요한복음 6:47 -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현재시제: 믿고 또 계속해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로마서 4:5 -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현재시제: 믿고 또 계속해서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사도행전 26:20 -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현재시제: 계속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현재시제: 계속해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현재시제: 자신의 회개를 증거하기 위해 계속해서 행하라] 전하므로

결론: 현재시제는 성경에 수백 번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을 전부 소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구원하는 믿음은 지속되는 것이며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알마니즘과 칼비니즘조차 모두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는 교리입니다.

영원한 안전(‘한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주장/역자 주)을 믿는 칼비니즘이 주장하는 바는 진정한 믿는 자들이라면 실족하거나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은 지켜진다는 것입니다(고전 1:8). 또한 영원한 안전을 믿는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롬 6:1-3). 나중에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돌아서는 사람들은 한 번도 거듭난 적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요일 2:19).

알마니즘 교리는 진정한 믿는 자들도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은 구원을 잃거나 버린다고 믿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회개의 열매 없이 계속해서 반항하고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엔 이미 구원을 잃었으니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요일 1:8) 또한 다음과 같은 말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요일 3:9) 이것이 모순처럼 보이긴 하지만 성경말씀에 따라 볼 때 일관성이 없는 주장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모두 죄를 짓습니다만(요일 1:8)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모두 순종합

니다(요일 2:3).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와 육신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죄는 그들을 다스릴 수 없고 죄가 그들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요일 3:9). 진정한 회개와 믿음은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삶의 방향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물론 완벽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행 26:18, 요일 1:8). 그러나 “열매”로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해봐야 합니다. 믿음은 굳건한 영적 확신이기 때문에 진정한 믿는 자라면 행동과 결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이 진리는 히브리서 11장에도 나타나 있으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그에 따른 행동을 낳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는 행동은 우리가 믿는 것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2:18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사도들이 ‘행함’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했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율법의 행위”입니다. 즉 구원을 얻어내기 위해 하는 행동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말씀은 구원의 열매인 선한 행위,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바로 회개와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 또는 행위입니다(행 26:20, 마 3:7-10, 살전 1:3, 약 2:14-26). 그 행위는 구원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회개와 믿음은 같은 열매 또는 같은 증거를 통해 연합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같은 열매, 같은 증거란 바로 선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선한 행위를 통해 구원받지 않지만 구원의 결과 선한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엡 2:8-10, 선한 행위가 구원의 원인인가 아니면 결과인가가 중요함). 행함을 보면 그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인지 시험할 수 있고 한 사람의 삶과 행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은혜라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볼 수 없습니다(딤후 2:11-12). 예수님은 진정한 믿는 자는 열매로 알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마 3:8, 7:16-20, 25:34-40, 요 13:35, 14:23, 행 26:20, 롬 2:6-11, 약 2:14-18, 요일 3:10).

### 제자되기 연습문제

1. 본문에서 헬라어의 현재시제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성경에 현재시제로 주어진 계명들은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2. 요한복음 3:16을 읽어보세요. 헬라어의 현재시제에 따르면 요한복음 3:16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3. 요한일서 3:9을 읽어보세요. 헬라어의 현재시제에 따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4. 누가복음 15:7을 헬라어의 현재시제에 따라 읽어보세요. 죄인 한 사람이 \_\_\_\_\_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5. 사도행전 17:30을 헬라어의 현재시제에 따라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온 세상 사람들에게 \_\_\_\_\_ 명령하십니다.
6. 사도행전 26:20을 헬라어의 현재시제에 따라 읽어보세요.
7. 요한일서 2:3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하나님을 아는 것)를 가지면 어떠한 열매를 맺습니까?
8. 야고보서 2:18을 읽고 빈칸을 채워 보세요.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_\_\_\_\_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9. 데살로니가전서 1:3을 읽어보세요.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와 행동은 뭐라고 불립니까?
10. 갈라디아서 2:16, 21을 읽고 빈칸을 채워 보세요. 율법의 행위는 구원 또는 \_\_\_\_\_ 을 받기 위해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한 율법의 행위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으며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11. 로마서 2:7-10을 읽어보세요. 본문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맺는 열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들입니까?

### 인용구절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일 3:9)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यो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눅 15:7)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행 17:30/쉬운성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눈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온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행 26:20/한글킹제임스) 먼저 다마스쿠스의 사람들과 예루살렘과 유대 온 지방에,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전하였더니

(요일 2:3)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약 2:18)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살전 1:3)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갈 2:16)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 2:21)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롬 2:7-10)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8)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9)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10)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 정답

- 본문에서 헬라어의 현재시제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성경에 현재시제로 주어진 계명들은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계속 반복하여 삶에 적용해야 한다.**
- 요한복음 3:16을 읽어보세요. 헬라어의 현재시제에 따르면 요한복음 3:16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현재시제: 믿고 계속해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 요한일서 3:9을 읽어보세요. 헬라어의 현재시제에 따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현재시제: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보여주는 삶의 방식으로써의 죄)**
- 누가복음 15:7을 헬라어의 현재시제에 따라 읽어보세요. 죄인 한 사람이 \_\_\_\_\_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회개하고 계속해서 회개하면**

5. 사도행전 17:30을 헬라어의 현재시제에 따라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온 세상 사람들에게 \_\_\_\_\_ 명령하십니다.  
회개하고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6. 사도행전 26:20을 헬라어의 현재시제에 따라 읽어보세요.  
먼저 다마스쿠스의 사람들과 예루살렘과 유대 온 지방에,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현재시제: 계속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현재시제: 계속해서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현재시제: 계속해서 행하라)고 전하였더니
7. 요한일서 2:3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하나님을 아는 것)를 가지면 어떠한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킴
8. 야고보서 2:18을 읽고 빈칸을 채워 보세요.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_\_\_\_\_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행함으로(또는 내가 하는 일로)
9. 데살로니가전서 1:3을 읽어보세요.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와 행동은 뭐라고 불립니까?  
믿음의 역사(행위)
10. 갈라디아서 2:16, 21을 읽고 빈칸을 채워 보세요. 율법의 행위는 구원 또는 \_\_\_\_\_ 을 받기 위해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한 율법의 행위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으며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의롭다 함
11. 로마서 2:7-10을 읽어보세요. 본문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맺는 열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들입니까?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레벨 3

제 13강

## 구원의 열매 2

던 크로우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요일 3:10) “이렇게 하므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마 7:20)

성경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1)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다(엡 2: 8-9). (2)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선한 행위를 한다(엡 2:10). 그런데 우리는 왜 믿는 자들의 열매에 대해 말하기를 두려워할까요? 성경은 그 주제에 대해 담대히 말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아래 구절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3-5 -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요일 2:29) (이해가 되시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본성은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3:5-10 -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헬라이어 현재시제: 계속되는 습관적인 행동을 뜻한다. 다음과 같은 단어들을 삽입하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반복적으로, 거듭,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삶 방식으로써, 끊임없이] 범죄하는[현재시제]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이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현재시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현재시제: 자신의 본성으로 인해 습관적인 삶

의 방식으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현재시제: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보여주는 삶의 방식으로써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현재시제: 끊임없이]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현재시제]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현재시제]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라 (즉, 요한의 말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지, 마귀의 자녀가 누군지 알 수 있다.” 의와 사랑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본성을 가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거듭남의 증거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3:14 -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일서 4:6 -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사도들]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사도들]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요한일서 4:8 -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믿는 자들의 표시.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이므로)

요한일서 5:2 -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현재시제: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 [현재시제: 계속해서 지키]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5:18-19 -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현재시제: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보여주는 삶의 방식으로써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현재시제: 계속해서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사도 요한이 이런 내용을 쓴 이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요일 5:13)

결론: 의, 거룩, 사랑, 성령의 열매는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 때 자신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담대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양심이 정죄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도 없어질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굳세게 하라고 했습니다(벧후 1:10).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영광스러운 복음에 걸 맞는 삶을 살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이 확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분께 속했음을 안다.”는 말입니다.

### 제자되기 연습문제

1. 사도행전 8:13과 18-22을 읽어보세요. 마음의 동기가 바르지 못할 때(시몬처럼),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2. 베드로후서 1:5-11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3. 마태복음 25:34-40을 읽어보세요. 이 구절에서 믿는 자들이 보인 덕목은 어떤 것들입니까?
4. 요한복음 13:35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들로 알까요?
5. 마태복음 7:21-23을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까?
6. 요한복음 14:23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7. 사도행전 26:20을 읽어보세요. 이 구절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8. 야고보서 2:17을 읽어보세요.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 인용구절

(행 8:13)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행 8:18-22)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19)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20)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21)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느니라 (22)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벧후 1:5-11)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6)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7)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8)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흠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9)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10)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1)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마 25:34-40) 그 때에 임금의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35)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거니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36)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37)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39)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40)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요 13: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마 7:21-23)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요 14:2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행 26:20)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약 2:17)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 정답

1. 사도행전 8:13과 18-22을 읽어보세요. 마음의 동기가 바르지 못할 때(시몬처럼),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고 마음의 생각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

2. 베드로후서 1:5-11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자신의 믿음 위에 성령님의 덕목과 새로운 피조물의 덕목을 더한다.



3. 마태복음 25:34-40을 읽어보세요. 이 구절에서 믿는 자들이 보인 덕목은 어떤 것들입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행위들. 배고픈 자들에게 음식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들을 입히고, 병든 자를 돌보고, 옥에 갇힌 자들을 찾아 갔다.
4. 요한복음 13:35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들로 알까요?  
 서로 사랑할 때
5. 마태복음 7:21-23을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보면 ‘불법을 행하는’은 현재시제로, 이것을 통해 불법을 행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은 그들을 알지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은 이 사람들이 단지 종교적인 사람들일 뿐, 구원받은 자들은 아니라는 뜻이다. 고로, 그들은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며 생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들이 아니다.
6. 요한복음 14:23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말씀을 지키고 행한다.
7. 사도행전 26:20을 읽어보세요. 이 구절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너의 회개를 행동으로 증명하라
8. 야고보서 2:17을 읽어보세요.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

레벨 3

제 14강

## 제자로의 부르심

앤드류 워맥

이번 강에서는 나 자신이 제자 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것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상기시켜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명령은 단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목적인 거듭남을 넘어 성숙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즉 제자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서 제자 삼으라, 사람들이 성숙해지도록 도와서 그들이 다시 제자 삼을 수 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일을 소위 목회자 또는 사역자들에게 맡겼습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며 큰 집회를 하는 전도자들이 있고 그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진정한 거듭남이 아닌 감정의 변화만 느낀 경우도 있겠으나 반면 진정으로 거듭나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시작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전도 집회는 대부분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뜻하신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을 아이 낳는 것과 비교해 보면 아이를 낳아놓고 예뻐할 줄만 알았지 그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너무나도 책임감 없는 행동입니다. 일단 아이를 낳으면 양육과 교육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경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강조하신 것은 그것과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진정으로 헌신되었으나 동시에 매우 미성숙한 사람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해가 되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제자삼아 그들 역시 자신들의 믿음을 전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을 수 있는 성숙한 제자들로 성장시킬 것을 원하셨습니다.

만약 6개월에 한 명씩 전도하여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을 때까지 오로지 그 한 사람을 제자 삼는 일에만 전념한다면 6개월 뒤에는 당신과 그 제자, 단 두 사람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과 당신의 제자가 또 각각 한 명씩 전도하여 6개월 동안 그 사람을 제자 삼는 일에 전념한다면 1년 뒤에는 4명의 그리스도인이 생깁니다. 큰 집회에서 천 명씩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제자삼다 보면 1년에 단 4명뿐이네. 전도 집회는 한 번에 천명이나 영접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전도 집회를 해야지.” 1년에 한번 하는 집회에서 천 명씩 주님께 인도하는 그 사람은 평생 35,000명 정도 주님께 인도할 수 있겠지요. 그것도 좋습니다.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000명이라는 숫자는 전 세계 인구와 비교하면 큰 양동이에 물 한 방울 같을 뿐인데 그동안 교회는 그 방법으로 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자 삼는 것을 강조한다면, 6개월에 한명을 주님께 인도하여 제자삼은 뒤 그 두 명이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보면 12년 6개월 만에 전 세계 인구를 모두 제자화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럴 리가요!”라고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제가 직접 계산해 보았고 12년 6개월 동안 한 명이 6개월 마다 한명씩 전도해서 제자 삼을 수 있는 제자를 만들면 55억의 인구를 모두 제자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번 하는 전도 집회만 한다면 매년 천명이 거듭난다고 해도 12년 6개월 뒤에 12,500명을 전도할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승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훈련받는 자가 아니라 훈련하는 자가 되어서 단 한 사람만이라도 이 논리를 이해하여 주님을 따라 성숙을 이루고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일을 시작한다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6개월에 한 명이 아니라 일 년에 한명을 전도하여 제자 삼는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1년 뒤에는 당신과 그 제자가 남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네 명이 되겠지요. 그러나 계속해서 이 방법을 따른다면 10년 뒤에는 제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는 사람이 1,024명이 될 것입니다. 단 한 사람만이 이 방법대로 실천한다 해도 20년 뒤에는 백만 명이 넘는 제자들이 생산되어 있을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지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설계하신 증가의 방법입니다. 영접시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기에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사고방식은 임시변통의 손쉬운 해결책만을 찾습니다.

큰 집회에 참석하여 헌신을 다짐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선포한 뒤에도 여전히 분노와 쓴 뿌리, 질투로 가득하여 복음이 전해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미성숙한 사람을 보고 “교회 다닌다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겠다. 교회 다녀봤자 무슨 소용이야?”라는 결론을 내리고 복음에서 돌아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은 제자 삼는 일이야 말로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 주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리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지는 못합니다

(요 8:31-32).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제자가 되길 원하시며 그 결과 하나님의 100%까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제자 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음화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택했고 그것은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 삼는 것의 가치를 여러분의 마음에 보여주시길 기도합니다. 먼저 제자가 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제자되기 연습문제

1. 예수님은 그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4복음서를 읽고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라고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해 보세요.
2. 사도행전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부르심은 없습니다. “제자”가 되라는 부르심만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고 사람들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기록해 보세요.
3. 성경에 보면 “제자”라는 단어가 273번 사용되었습니다. 반면 “그리스도인”은 단 세 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용된 구절을 적어보세요.
4. 마태복음 10:25을 읽어보세요. 이 구절에 따르면 제자란 무엇입니까?
5. 누가복음 14:26을 읽어보세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생명을 무조건적으로 희생한다는 의미가 맞습니까?
6. 누가복음 14:33을 읽어보세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최우선 순위에 올리는 것이 맞습니까?
7. 마태복음 19:29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위해 집과 형제자매와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내와 자녀와 땅을 버린 사람들은 백배로 보상 받고 또 영생을 받습니까?
8. 사도행전 14:22을 읽어보세요. 제자들은 항상 믿음 안에 거해야 합니까?
9. 히브리서 10:14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은 없습니다. 은혜로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가 되려면 진실한 희생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는 우리의 역할이 없습니다. 그 자체로 완벽하며 우리 쪽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삶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까?

10.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둘로 나뉘지 않습니다. 즉 어떤 사람들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남아도 되고 어떤 사람들은 제자가 되어야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1:26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인과 제자는 같은 의미입니까?
11. 마태복음 28:19을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은 가서 \_\_\_\_\_  
것입니다.  
A. 제자를 삼는 것 B. 영접을 시키는 것
12. 마태복음 28:20을 읽어보세요. 믿는 자들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게 해야 합니까?
13. 요한복음 1:12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와 의 같이 예수님을 통해 오는 유익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 인용구절

(마 10:25/킹제임스 흠정역)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그들이 그 집 주인을 바알세뵘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의 집안사람들은 오죽 하겠느냐?

(눅 14:26)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눅 14:33) 이와 같이 너희 중의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마 19:29)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행 14:22/킹제임스 흠정역)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히 10:14)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행 11:26)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마 28:19-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 1:12/한글킹제임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 정답

1. 예수님은 그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4복음서를 읽고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라고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해 보세요.
2. 사도행전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부르심은 없습니다. “제자”가 되라는 부르심만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고 사람들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기록해 보세요.
3. 성경에 보면 “제자”라는 단어가 273번 사용되었습니다. 반면 “그리스도인”은 단 세 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용된 구절을 적어보세요.  
사도행전 11:26, 26:28, 베드로전서 4:16
4. 마태복음 10:25을 읽어보세요. 이 구절에 따르면 제자란 무엇입니까?  
그의 스승이나 주인처럼 되는 사람
5. 누가복음 14:26을 읽어보세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생명을 무조건적으로 희생한다는 의미가 맞습니까?  
네
6. 누가복음 14:33을 읽어보세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최우선 순위에 올리는 것이 맞습니까?  
네
7. 마태복음 19:29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위해 집과 형제자매와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내와 자녀와 땅을 버린 사람들은 백배로 보상 받고 또 영생을 받습니까?  
네
8. 사도행전 14:22을 읽어보세요. 제자들은 항상 믿음 안에 거해야 합니까?  
네

9. 히브리서 10:14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은 없습니다. 은혜로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가 되려면 진실한 희생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는 우리의 역할이 없습니다. 그 자체로 완벽하며 우리 쪽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삶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까?

네

10.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둘로 나뉘지 않습니다. 즉 어떤 사람들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남아도 되고 어떤 사람들은 제자가 되어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1:26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인과 제자는 같은 의미입니까?

네

11. 마태복음 28:19을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은 가서 \_\_\_\_\_  
것입니다.

A. 제자를 삼는 것

12. 마태복음 28:20을 읽어보세요. 믿는 자들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게 해야 합니까?

네

13. 요한복음 1:12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와 의 같이 예수님을 통해 오는 유익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네



레벨 3

제 15강

## 자기 간증 사용법

던 크로우

이번 강에서는 우리 각자의 간증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42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매일 성전에서 만나고 집집마다 다니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고 가르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집마다 다니는 접근 방법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나가서 직접 전도할 때, 제자훈련을 위해 자기 집 문을 열어주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킨 사람들을 보면서 배운 점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생각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세 번이나 자신의 간증을 사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 간증, 즉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으며 그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법은 우리가 “땅밟기 기도”라고 부르는 방법입니다. 어떤 집으로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들은 이 지역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거든요. 혹시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있지요.”하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불편해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문제없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 전도 팀원들은 각자의 간증을 나눕니다.

이렇게 시작 합니다. “아이들이 있으시네요. 저도 세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1981년 12월 14일에 제 쌍둥이 딸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둘째는 사산됐습니다.” 그러면 보통 상대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머,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반응 합니다. “아니에요, 그 뒤에 엄청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계속해서 간증을 나눕니다. “둘째는 거꾸로 태어났습니다. 발부터 나온 거죠. 아이가 나오는 동안 산소가 차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사산되어 죽은 채 태어났지요.

의사가 둘째를 들고 때렸고(최대한 세계 때렸지요), 기계로 아이 폐에 찬 물을 빼내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시도했지만 결국 포기해야 했습니다. 저 또한 다른 아버지들처럼 너무 슬펐습니다. 제 딸을 잃었으니까요.” 이야기를 이정도 나누고 나서 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한 가지 여쭙볼 것이 있는데요. 성경을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면 “네, 조금은요.” 또는 “아뇨, 전혀요.”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설명합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성경책 사도행전 10:38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그 뒤에 제 딸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 드릴게요. 믿으시면 좋겠고 못 믿겠다 해도 너무 빨리 속단하지는 말길 바랍니다. 제 딸은 죽었고 저는 장래를 며칠 미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 딸을 한 번 안아보고 싶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제 딸을 안아 올리자 악한 영이 제 딸 위에 임한 것을 느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가 실제로 저를 공격해서 순간 저를 마비시켰습니다. 그 즉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더러운 귀신아 내 아이에게서 떠나라. 내 아이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명한다.” 그러자 한 번도 숨을 쉬지 못했던 그 갓난아기가 한번 혈떡거린 뒤 크게 숨을 들이 쉬었는데 또다시 멈췄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더러운 영아, 내 아이에게서 당장 떠나! 생명은 이 아이에게 들어갈 지어다!” 그러자 제 딸이 몇 번 혈떡이더니 숨을 한 번 크게 쉬었고 그 뒤로 계속해서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산소 없이 3분이 지나면 두뇌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아시지요? 제 딸은 지금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그 딸을 비타(Vita)라고 이름 지었는데 그것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딸을 살리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성경을 엄청나게 공부했고 그 결과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내 아이에게 임했던 더러운 영처럼 어둠의 세계가 존재하며 사탄의 나라와 그가 다스리는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의 나라에서 사람들을 불러내어 회개와 믿음을 통해 그분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그분을 따르게 하신 것이지요. 어떤 종교를 믿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나누는 얘기는 저의 가족과 제 삶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당신의 집에 찾아온 진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바빠 교회도 못갈 지경이고 아예 가길 원치도 않습니다. 교회에 가더라도 질문이 있다고 해서 설교 중에 ‘목사님, 그게 무슨 뜻이지요?’하고 질문할 수도 없는 일이구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집으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10분 정도 되는 성경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말씀에 따라 몇 가지 문제를 풀고 확실히 이해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우리가 푸는 문제는 사실 묻고 답하는 대화 같은 과정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하러 온 것도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단지 전달만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려는 것입니다.

원하시면 편한 시간을 정하세요. 우리가 와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다시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귀찮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니까요. 교회에 등록시키러 온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미 하신 일을 전달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단계에 이르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것이 많지만 짧은 성경공부를 함께 하는 것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그 집에서 제자훈련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들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짧은 영접기도를 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손쉽게 복음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양육 교재를 사용하여 그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이해하도록 도우려는 것입니다.

한번은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 제자양육 성경공부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강의 이후에 보통 무슨 일이 있나요?” 첫 강의를 마치면 공부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알게 되고 예수님의 공훈과 용서를 어떻게 받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강의를 공부하고 나면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또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16강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16강까지 했다면 이미 죄를 회개하고 물세례를 받았으며 성령 세례도 받은 상태입니다. 사실 16강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6강정도 되면 성령세례까지 마무리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면서 그 과정 중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훈련을 하는 동안 우리는 훈련받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매주 그렇게 하다보면 그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그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설교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러 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그들 스스로 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게 하는 질문도 합니다.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분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분께 헌신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오늘날 보통 행해지는 전도방법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은 가장 먼저 우리의 간증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 간증이 있으니까요. 또 간증 리스트를 적어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제 리스트의 제목은 “내 딸의 죽음”인데 제가 여러 번 사용했던 것입니다. 우리 팀원 조(Joe)의 간증 제목은 “노예가 자유를 찾다”입니다. 술과 마약 중독에서 자유케 된 간증입니다. 또 다른 간증의 제목은 “그 마약 중독자는 죽었다”인데 15세부터 마약 중독이었다가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신 로키(Rocky)의 간증입니다. 이러한 간증을 문 앞에서 나눕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는 그런 극적인 간증이 없어요.” 물론 보통 사람들에게는 저의 간증처럼 극적인 간증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앤드류 워맥의 간증과 비슷한 간증을 가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아 어린 시절 내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죄나 나쁜 짓을 가까이 하지 않은 간증 말입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에게는 간증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간증이 너무 밋밋하다고 생각된다면 저의 간증을 사용하세요. 우리가 처음에 이 제자 삼는 전도 팀을 시작했을 때 조(Joe)는 저의 간증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저보다 저의 간증을 더 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하러 갈 때 마다 “조,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주시죠.”라고 했지요.

사도 바울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자기의 간증을 세 번이나 나눴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갖 프로그램이 있는 컴퓨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간증 목록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간증은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 책에서 읽은 것이 아니에요. 저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간증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왔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다닐 때 자신의 간증을 나눠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다면 저의 홈페이지([www.krowtracts.com](http://www.krowtracts.com))를 방문하셔서 “믿음을 나누는 방법(Tips on Sharing Your Faith)”을 참고하세요. 자신의 간증을 적어보시고 간증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나누는 방법”을 공부해 보십시오. 그것을 읽는데 그치지 않고 공부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전도하므로 온 열방을 주님께 돌아오게 할 당신을 축복합니다.

### 제자되기 연습문제

1. 마가복음 16:15을 읽어보세요.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져야 합니까?
2. 마태복음 28:19-20을 읽어보세요. 제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3. 사도행전 8:5, 26, 16:13-15, 23, 20:20-21을 읽어보세요. 전도가 행해진 곳은 어디입니까?
4. 마가복음 4:11-12을 읽어보세요. 진정으로 거듭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 A. 본다.
  - B. 안다.
  - C. 듣는다.
  - D. 깨닫는다.
  - E. 위 전부
5. 사도행전 28:23-24을 읽어보세요. 바울이 복음에 대하여 강론하고 증언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수님께 관하여 권했습니까?
6. 사도행전 16:14을 읽어보세요. 예수님께 진정으로 돌이킨 사람은 무엇을 엿니까?
7. 사도행전 2:37을 읽어보세요. 사람의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확신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 사도행전 16:31과 2:38을 읽어보세요.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9. 사도행전 2:42과 요한복음 8:31-32을 읽어보세요.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0. 로마서 10:14-15을 읽어보세요. 순서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에게로 올 수 있었습니까?

### 인용구절

(막 16:15)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 28:19-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행 8:5/킹제임스 흠정역) 그때에 빌립이 사마리아 시로 내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매

(행 8:26/킹제임스 흠정역)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나아가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였는데 그곳은 사막이니라.

(행 16:13-15)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14)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15)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행 16:23/킹제임스 흠정역) 그들을 많이 채찍질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라고 하매

(행 20:20-21/한글킹제임스)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숨겨두지 않고 보여 주었으며 또 집집마다 다니며 너희에게 드러나게 가르쳤으니 (21)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노라.

(막 4:11-12)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니라 (12)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행 28:23-24)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24)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행 16:14)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행 2:37)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꼬 하거늘

(행 16:31)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행 2:38)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행 2:42)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요 8:31-32)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롬 10:14-15)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 정답

1. 마가복음 16:15을 읽어보세요.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져야 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2. 마태복음 28:19-20을 읽어보세요. 제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모든 민족
3. 사도행전 8:5, 26, 16:13-15, 23, 20:20-21을 읽어보세요. 전도가 행해진 곳은 어디입니까?  
도시, 사막, 강가, 감옥, 거리, 집집마다.

4. 마가복음 4:11-12을 읽어보세요. 진정으로 거듭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E. 위 전부

5. 사도행전 28:23-24을 읽어보세요. 바울이 복음에 대하여 강론하고 증언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수 님에 관하여 권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6. 사도행전 16:14을 읽어보세요. 예수님께 진정으로 돌이킨 사람은 무엇을 엿니까?

마음(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

7. 사도행전 2:37을 읽어보세요. 사람의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확신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질문하게 된다.

8. 사도행전 16:31과 2:38을 읽어보세요.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으라.

9. 사도행전 2:42과 요한복음 8:31-32을 읽어보세요.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행하라

10. 로마서 10:14-15을 읽어보세요. 순서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에게로 올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보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는다.



### 레벨 3

### 제 16강

# 각 사람의 은사를 사용하여 제자삼기

던 크로우

제자 삼는 일에는 모든 사람의 은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수년간 사용해 왔고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거듭났고 성령 세례와 물세례로 그들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하루는 친구와 얘기를 나누던 중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 사람들이 빈틈으로 새어나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자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잘 돼 가는 줄 알았는데 무슨 소리야?”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안으로만 들어가는 교회, 즉 사람들이 모여 앉아 목사의 설교를 듣고 끝나면 집에 가는 그런 교회를 밖으로 끄집어내어 밖을 향하는 교회로 만들 수 있을가에 관한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95%가 한 번도 전도를 통해 누군가를 주님께 이끌어 본 적이 없고 복음화의 90%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세상에서 가장 전도활동이 많이 행해지는 장소인 것입니다. 주일학교에서도 복음화를 하고 예배당에서도 복음화를 합니다. 교회 내에서 복음화를 하는 모습을 보면 거듭나야 할 대상이 마치 교회인 것 같아 보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된 것은 3세기 콘스탄티누스 때의 일입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전도와 제자 삼는 일을 교회 건물 안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 건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길 원하고 안으로 향하는 교회가 밖으로 향하길 원합니다. 통계를 보면 교회에서 추구하는 프로그램의 0.5%만이 교회 건물 밖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볼 때 오늘날 미국에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가가려는 교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건물 밖의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을 제자 삼는 것은 기독교의 중요한 역할이고 앞으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통해 믿음에 의한 의의 계시를 교회에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1800년대에는 요한 웨슬리에 의한 엄청난 전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한 전도는 사도들 이후에 행해진 적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르겠어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 방법을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자신의 간증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쉬운 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역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이거야 말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대하기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일 말고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 일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자 삼는 전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할 때 저는 이렇

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받고,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받으며 물세례도 받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정말 엄청나네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저랑 같이 전도하러 가실 분?” 그러면 한 2백 명 중에 두세 명 정도 손을 듭니다. 나머지는 겁을 내거나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어떨까요? “아, 같이 전도하는 것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성경공부 팀을 만들면 그 팀을 인도하실 분?” 그러면 열 명에서 열두 명 정도가 손을 듭니다. “네, 제가 가서 가르칠게요.” 하지만 역시 그 정도에서 끝이지요.

그러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사랑으로 제자 삼는 데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모든 은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모든 은사가 필요하며 그러한 은사는 지역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성령세례, 치유, 등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제자양육 프로그램에 보면 그런 분들이 필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기도는 못해요.” 그렇다면 간식을 만들어 주실 수는 있겠지요? 카드나 편지를 보내는 것은 어떻습니까? 전화하는 것은 부담 없으십니까? 우리가 아이 엄마들과 성경공부를 하는 동안 그 아이들을 돌봐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볼일을 볼 수 있게 그 집에 가서 한 시간 정도 아이를 봐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잔심부름 같은 것은요? 아니면 중보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중보기도에 부르심을 받았습시다. 우리와 성경공부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알려드릴 테니 혼자 또는 기도모임에서 기도하고 중보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매주 전도하러 나가는 제자 삼는 전도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도 있겠지요.

제자훈련을 위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일에는 모든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팀은 모든 은사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교사와 보조 교사로 구성된 팀을 만들어 제자훈련 사역을 하게하고 또 두 명으로 구성된 섬김 사역 팀에서 구체적인 일들을 도와줍니다. 예를 들면 음식을 나누다던지 간식을 준비한다던지 제자훈련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전화로 확인하는 일들입니다. 또 훈련을 하는 사람들과 훈련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궁금하시죠? 하나님께서 훈련받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고 계십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목양과 섬김으로 그분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사역의 일을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원래 사역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평범한 사람들이지요. 에베소서 4:11을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그 성도들이 사역의 일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단상에서 있는 “목사”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사역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일을 위해 목사가 교회를 가르치고 준비시켜 성도들이 직접 사역을 하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전쟁이 선포되어서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 봅시다. “우리는 전쟁에서 너무 많은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니 군대는 배제하고 장군들만 싸움터로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온 세상이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교회에서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장군들, 즉 오중 사역자들만 전쟁터로 내보내서 그들이 모든 일을 다 하도록 하고 있으니 마귀가 우릴 보고 비웃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겠지요. “그렇게 하라고 돈이라도 줄판인데, 알아서 잘들 하고 있네.” 우리는 군대를 일으키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군대를 일으키기 원하시며 ‘제자 삼는 전도’ 프로그램에서는 모든 은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군대를 만드는 것을 돕기 원하며 놀라운 능력의 제자훈련 도구를 장착해 주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도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개발해 놓은 도구인 제자 삼는 전도 훈련코스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른 모든 전략으로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과 새 신자들을 각자의 은사로 섬기기 위해 또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따르기 위해 열방을 제자 삼으러 나아가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 제자되기 연습문제

1. 다음은 전도 팀을 구성해서 잃어버린 영혼에게 접근하여 전도하고 제자삼는 방법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은사를 통해 이 과정을 꾸준히 진행하면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빠른 성장을 이루게 할 수 있습니다. 팀 구성을 위해 아래 질문들을 사용하세요.

관심 분야에 체크하세요.

-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
- 제자훈련 교재로 가르치는 것
- 중보기도(잃어버린 영혼들과 전도 팀을 위해 기도하는 것)
-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생필품을 나눠 주는 것
- 전화나 만남을 통해 아는 사람들에게 관계 전도를 하는 것
- 섬김을 통한 전도. 음식을 만들어 주거나 카드를 보내거나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돕는 것
- 편모와 그 자녀들을 돕는 것
- 교회 갈 때 교통편을 제공하는 것
- 그 외 (

)

2. 다음은 제자훈련에 관한 일지입니다. 이것을 목사님이나 교회 권위자들에게 제출하여 상황을 보고 할 수 있습니다.

- 날짜 ;
- 인도자 ;
- 참여자 ;
- 장소 ;
- 강의 주제 ;
- 결과 ;

3. 야고보서 1:22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4. 마태복음 7:24-27을 읽어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서 안 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5. 에베소서 4:11-12을 읽어보세요. 사역(섬기는 일)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6. 사도행전 8:1, 4을 읽어보세요. 모든 땅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것은 누구입니까?
7. 사도행전 8:1, 4을 읽어보세요. 모든 땅으로 말씀을 전하러 가지 않고 남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8. 사도행전 11:19-22을 읽어보세요.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의 지도 아래 믿는 자들이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리더들이 일을 주도하고 성도들은 따라갑니다. 사도행전 11:22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9. 고린도전서 12:14-18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몸의 모든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서로 비교해선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 완전히 헌신했다는 것은 모든 일을 혼자서 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부으신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 배운 것을 어떻게 실천하기 원하십니까?

### 인용구절

(약 1:22)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마 7:24-27)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엡 4:11-12/한글킹제임스)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자와 교사로 주셨으니 (12)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행 8:1)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행 8:4) 그 흠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행 11:19-22) 그 때에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흠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2)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고전 12:14-18)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15)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16)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17)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18)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 정답

1. 다음은 전도 팀을 구성해서 잃어버린 영혼에게 접근하여 전도하고 제자 삼는 방법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은사를 통해 이 과정을 꾸준히 진행하면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빠른 성장을 이루게 할 수 있습니다. 팀 구성을 위해 아래 질문들을 사용하세요.

관심 분야에 체크하세요.

-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
- 제자훈련 교재로 가르치는 것
- 중보기도(잃어버린 영혼들과 전도 팀을 위해 기도하는 것)
-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생필품을 나눠 주는 것
- 전화나 만남을 통해 아는 사람들에게 관계 전도를 하는 것
- 섬김을 통한 전도. 음식을 만들어 주거나 카드를 보내거나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돕는 것
- 편모와 그 자녀들을 돕는 것
- 교회 갈 때 교통편을 제공하는 것
- 그 외 ( )

2. 다음은 제자훈련에 관한 일지입니다. 이것을 목사님이나 교회 권위자들에게 제출하여 상황을 보고 할 수 있습니다.

날짜 ;

인도자 ;

참여자 ;

장소 ;

강의 주제 ;

결과 ;

3. 야고보서 1:22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신을 속이는 것
4. 마태복음 7:24-27을 읽어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서 안 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행해야 한다.
5. 에베소서 4:11-12을 읽어보세요. 사역(섬기는 일)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목회자나 전임 사역자가 아니라 성도들
6. 사도행전 8:1, 4을 읽어보세요. 모든 땅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것은 누구입니까?  
믿는 자들
7. 사도행전 8:1, 4을 읽어보세요. 모든 땅으로 말씀을 전하러 가지 않고 남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도. 이 사건을 통해 제자훈련과 전도의 책임이 교회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8. 사도행전 11:19-22을 읽어보세요.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의 지도 아래 믿는 자들이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리더들이 일을 주도하고 성도들은 따라갑니다. 사도행전 11:22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먼저 듣고 그들의 리더들인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다.
9. 고린도전서 12:14-18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몸의 모든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서로 비교해선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 완전히 헌신했다는 것은 모든 일을 혼자서 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부으신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 배운 것을 어떻게 실천하기 원하십니까?  
배운 내용을 나의 은사와 결합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행한다.

## 연락처

### 미국

Andrew Wommack Ministries  
P.O. Box 3333, Colorado Springs, CO 80934  
Helpline: 719-635-1111  
www.awmi.net

### 유럽

Andrew Wommack Ministries – Europe  
PO Box 4392, Walsall, WS1 9AR, England  
UK Help Line (Orders and Prayer):  
Email: enquiries: info@awme.net Phone: +44 (0) 1922 473300  
www.awme.net

### 독일

Andrew Wommack Ministries Germany e. V.  
Am Bahnhof 2, 55765 Birkenfeld, Deutschland  
Email: info@awme.de Phone: 06782 9846405  
www.awme.de

### 헝가리

Andrew Wommack Ministries Hungary  
9173 Gyorladamer, Orszagut utca 7, Hungary  
Email: hungary@awme.net  
www.awme.hu

### 인도

Andrew Wommack Ministries Trust  
72-D Nandhini Maha, First Floor, Velachery Main Road, Velachery,  
Chennai, 600 042, INDIA  
Email: info@awmindia.net Phone: (044)-42021820  
www.awmindia.net

### 네덜란드

Andrew Wommack Ministries Nederland  
PO Box 7, 1755ZG Petten, Holland  
Email: info@awme.net  
www.andrewwommack.nl

### 남아프리카

Andrew Wommack Ministries – South Africa  
PO Box 30, Cape Town, 8000, South Africa  
Email: enquiries@awmsa.net Phone: 021 914 1110  
www.awmsa.net